



한일대중문화교류세미나

日韓大衆文化交流セミナー

탈근대, 동아시아,
그리고 한일문화교류

脱近代、東アジア、
そして日韓文化交流

2006.11.28





한일대중문화교류세미나
日韓大衆文化交流セミナー

탈근대, 동아시아,
그리고 한일문화교류
脱近代、東アジア、
そして日韓文化交流



개 회 사

친애하는 오구라 국제교류기금 이사장님, 공로명 전 외교통상부 장관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저는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이 동경대 동양문화연구소와 함께 뜻깊은 한일 대중문화교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은 지난 2003년 창립 이래로 문화산업을 매개로 국가간 민간부문의 문화교류를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매년 아시아송페스티벌과 글로벌문화산업 등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화산업의 국제적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일대중문화교류세미나는 한일 양국간의 문화교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귀중한 자리로 양국의 문화산업 전문가들의 진솔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일 양국은 가장 오랜 교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정치, 경제,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하고도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자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이 깊어지며 민간분야의 교류는 더욱도 다양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앞으로도 한일 양국이 문화적인 가치를 공유하며 더욱 더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재단은 이번에 제기되는 양국 전문가들의 고견을 향후 일본과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경대 동양문화연구소, 그리고 이번 행사에 기꺼이 참석해주신 공로명 전 외교통상부 장관님, 오구라 국제교류기금 이사장님께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재)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이사장 신현택

ご挨拶の言葉

親愛なる 小倉国際交流基金理事長、孔魯明元外交通商部長官、ご来賓の皆様。

本日、国際文化産業交流財団が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とともに意義深い日韓大衆文化交流セミナーを開催する運びになったことを大変喜ばしく存じます。

本財団は2003年創立以来、文化産業を媒体として国家間民間部門の文化交流を支援して参りました。特に、毎年アジア・ソングフェスティバルやグローバル文化産業など、多くのイベントやプログラムを通じ文化産業の国際的協力とネットワークを強化しております。

今回の日韓大衆文化交流セミナーは、両国間の文化交流の過去と現在、そして未来を展望するための貴重な場として、両国の文化産業専門家の活発な討論が行われる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

日韓両国はもともと長い交流の歴史や伝統を持っており、現在も政治、経済、外交など様々な分野において密接で強固な関係を維持しています。特に最近は韓国文化に対する日本人の関心が高まり、民間分野においての交流はさらに幅広く、友好的な雰囲気の中で進められています。

今回のセミナーをきっかけに今後とも日韓両国が文化的価値を共有し、さらに緊密な協力が行われることを期待してやみません。本財団は両国専門家のご意見を今後の日本との交流に積極的に反映していく所存です。

最後に、今回のセミナーの準備にご尽力いただきました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に感謝申し上げますとともに、快くご出席いただきました孔魯明元外交通商部長官、小倉国際交流基金理事長に深い尊敬と感謝の意を表します。

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財) 国際文化産業交流財団

理事長 シン・ヒョンテク

한일대중문화교류세미나

2006년 11월 28일 화요일 동경 롯본기 힐즈 49층 타워홀

탈근대, 동아시아, 그리고 한일문화교류

2006년 11월 28일 화요일

09:30-10:00	청중 등록
10:00-10:15	개회식 개회사: 신현택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이사장 동경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10:15-10:30	기조강연: ‘한류’ 등의 민간교류가 갖는 적극적 의미 연설자: 공로명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소장
10:30-10:45	기조강연: 한일문화교류의 의미와 문제점 연설자: 오구라 가즈오 일본국제교류기금 이사장
10:50-12:00	제1주제 한일문화교류의 역사 사회자: 요시미 순야 동경대 정보학환 학환장 발표 1: ‘한일문화교류의 역사와 현황’ 발표자: 이지원 한림대 교수 발표 2: ‘한국의 일본문화수용, 일본의 한국문화수용’ 발표자: 하야시 나츠오 도야마대 조교수 토론자: 현대송 동경대 동양문화연구소 교수, 이와부치 코이치 와세다대 조교수
12:00-13:30	점심 휴식
13:40-14:40	제2주제 한일 문화수용의 현황 사회자: 강명구 서울대 교수 발표 1: ‘한일문화수용과 상호인식 비교’ 발표자: 이창현 국민대 교수 발표 2: ‘아시아의 문화교류와 일본에서의 한류’ 발표자: 하야시 카오리 동경대 대학원 정보학환 조교수 토론자: 정주영 동경대 정보학환 객원연구원, 이향진 세필드대 교수
14:40-15:00	Intermission
15:00-16:00	제3주제 한일문화산업 교류 전망 사회자: 김경주 동해대 교수 발표 1: ‘한국드라마가 일본에서 경쟁력을 얻기 위한 한국방송산업의 구조적 개선안’ 발표자: 송병준 그룹에이트 대표 발표 2: ‘한국드라마의 일본진출과 일본드라마의 한국진출 현황과 미래’ 발표자: 노자키 무네토시 후지TV 국제국 부부장 토론자: 예영준 중앙일보 동경특파원, 구마모토 신이치 아사히신문 논설위원
16:00-16:40	종합토론
16:40-17:00	정리

日韓大衆文化交流セミナー

2006年11月28日火曜日 六本木ヒルズ49階タワーホール

脱近代、東アジアそして日韓文化交流

2006年11月28日火曜日

09:30-10:00	Audience 登録
10:00-10:15	開会式 開会辞: シン・ヒョンテク 国際文化産業交流財団理事長 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10:15-10:30	基調講演: 「韓流」など、民間交流の積極的な意味 演説者: コン・ロミョン 翰林大学日本学研究所長
10:30-10:45	基調講演: 日韓文化交流の意味と問題点 演説者: 小倉和夫 国際交流基金理事長
10:50-12:00	第1テーマ 日韓文化交流の歴史 司会者: 吉見俊哉 東京大情報学環長 発表 1: 「日韓文化交流の歴史と現況」 発表者: イ・ジウオン 翰林大学教授 発表 2: 「韓国の日本文化受容、日本の韓国文化受容」 発表者: 林夏生 富山大教授 討論者: ヒョン・デソン 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教授 岩渕功一 早稲田大学助教授
12:00-13:30	休憩
13:40-14:40	第2テーマ 日韓文化受容の現況 司会者: カン・ミヨン グ ソウル大教授 発表 1: 「日韓文化受容と相互認識の比較」 発表者: イ・チャンヒョン 国民大学教授 発表 2: 「アジアの文化交流と日本での韓流」 発表者: 林香里 東京大学大学院情報学環助教授 討論者: チョン・ジュヨン 東京大学情報学環客員研究員 イ・ヒャンジン Sheffield 大学教授
14:40-15:00	Intermission
15:00-16:00	第3テーマ 日韓文化産業の交流と展望 司会者: キム・キョンジュ 東海大教授 発表 1: 「韓国ドラマが日本で競争力を得るための韓国放送産業の構造的な改善案」 発表者: ソン・ビョンジュン グループエイト代表 発表 2: 「韓国ドラマの日本進出と日本ドラマの韓国進出の現況と未来」 発表者: 野崎宗利 フジテレビ国際局副部長 討論者: イエ・ヨンジュン 中央日報東京特派員 隈元信一 朝日新聞論説委員
16:00-16:40	総合討論 全パネラー
16:40-17:00	取りまとめ

‘한류’ 등의 민간교류가 갖는 적극적 의미

「韓流」など、民間交流の積極的な意味

◆ 孔 魯明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소장

コン・ロミョン

翰林大学日本学研究所長

한류 등의 민간교류가 갖는 적극적 의미

2006년 11월 28일

공로명

동아시아 시대에 한일간의 문화교류를 생각하는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시에 자기의 전문 영역도 아닌 문화의 분야에 대하여 언급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1994년 주일한국대사로 있을 때, 한국 언론과의 한 간담회 자리에서 해방으로부터 50주년 한일국교정상화 30주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이제는 일본의 대중문화에 대한 문호를 여는 문제를 검토 할 때가 되었다는 발언을 해서 커다란 논의를 유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의 문제제기는 일파만파로 도하의 각 신문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일본 대중문화의 한국 사회 내에서의 현 주소를 보도하면서 거의 모든 신문이 사설에서 그 시비를 논하였습니다.

보수경향이 강한 동아,조선은 시기상조론을 펴면서 신중한 자세를 보였고, 중앙일보와 한국일보 등은 “일본대중문화에 적극대응”하기 위하여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고 하면서 시장개방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강구할 때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본 대중문화 논의가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본 정부와 여당은 즉각 당정협의를 통하여 저의 발언을 외무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하며, 현단계에서 일본 문화 수입개방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조기진화에 나선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그 전해인 1993년 11월 6~7일 경주에서 개최된 한일정상 회담 후 호소카와 수상이 한국 TV 앞에서 일본식민통치시대의 창씨개명 등을 강제한 것을 포함한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하여 사죄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한국민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준 바 있었고, 또 그 해 3월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방일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 한국언론에서는 나의 발언이 김영삼 대통령의 방일을 앞 둔 계산된 각본에 의한 발언이 아니냐는 의심도 가졌습니다. 후일 여성언론인으로서 처음으로 일간신문사 사장이 된 한국일보의 張明秀 여사는 그녀의 컬럼(94년 2월 3일자)에서 “김 대통령의 방일 선물을 위한 시나리오라는 의심이 겹쳐서 더욱 시끄럽다”고 지적하고, “일본대중문화의 수입에 대하여서도 시기상조론이 아직 우세한데 언제까지나 시기상조론에 머물 수는 없다. 하루빨리 이를 공론화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일본대중문화개방으로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을 문화계 인사들은 오히려 대중문화개방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하는 쪽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 취재에 응했던 申鉉澤 한국음반협회 회장, “칠갑산”,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등으로 유명한 작곡가 조운파(趙雲坡) 씨, 영화 서편제의 제작자인 李泰元 씨, 영화감독 박광수 씨 등은 일본대중문화 개방을 강제로 막아 지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문화개방을 위한 대비를 바라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1994년 당시 한국사회에서 일본대중문화의 개방논의가 갖는 민감성은 오늘날 일본 내에서 핵개발문제를 논의해 보자는 제언이 갖는 민감성에 비유된다고 이야기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문제의 저변에는 다 같이 각각의 국민감정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일본대중문화개방 문제가 뜨거운 감자시 되어 온 것은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한 국민

감정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일본에서의 核開發 問題は 바로 그 핵무기의 유일한 被爆国이라는 일본의 국민감정이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본의 대중문화는 1998년부터 순차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하여 지상파에 의한 가요, 버라이어티쇼 방연을 제외한 전부가 해금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빗장이 완전히 풀렸다고 얘기 할 수는 없겠으나 12년 전의 논쟁으로부터는 격세지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2년 전에는 피해의식에서 일본대중문화개방에 방어적 입장에 있던 한국 국민들이 오늘날 한국의 대중문화가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한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본 내에 “한류”라고 불리는 문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등은 한일간의 대중문화교류에 새로운 장을 열게 하였습니다.

제가 관계하는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는 작년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한일간의 사회문화 문제를 다루는 세션도 있었습니다.

일본측에서 이 부분을 커버했던 小倉紀蔵교수(京都大助教授)는 “근대 이후 일본이 아시아의 선두에 서서 서구의 가치를 수용하고, 한국은 주로 일본으로부터 이것을 배워, 근대화, 산업화로 매진했으나, 이러한 흐름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 것이 1990년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일본 내 변화는 “한국을 보라(Look Korea)” 즉 “한국에 배우라”라는 흐름이라고 하고, 그러한 흐름의 배경에 있는 것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들어간 일본사회 내에서의 지나간 “모던”시대에 대한 회고(懷古)가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한류가 단순히 한국 드라마나 배우에 대한 일시적 열광이 아니라 일본사회의 커다란 전환점을 가르키는 현상”이라는 견해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본 내의 한류붐의 원인이 무엇이던 간에 한국 대중문화가 근래 동아시아 제국을 향하여 발신되고 있습니다. 한류의 컨텐츠 속에 일본인의 신금에 와 닿는 것이 있고, 중국민족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동남아인의 흥미를 끄는 그 무엇이 있기에 지금 韓流의 바람이 일고 잇는 것 같습니다. 그 무엇에 대하여 한국의 한 철학교수(대진대 이상훈 교수)는 “한국의 대중문화는 사실상 다국적 보헤미안 문화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그 설명의 타당성 여부에 상관없이 한국인들은 한국의 대중예술을 즐겨주는 아시아인에게 커다란 공감대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족간에서 공감할 수 있는 문화의 교류는 현대의 산업사회에서는 상품, 물류의 활성화를 촉진할 뿐 만 아니라, 이러한 상품에 따라 오는 문화도 자연스럽게 전파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의 전래, 확산은 공감대의 확대를 통하여 감정적 공동체까지 형성시키는 환경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소프트파워”의 문화론을 펴 온 조셉 나이 교수는 “대중문화를 가볍게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대중문화는 개인주의·소비자의 선택으로 정치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에 대한 이미지와 메시지 등을 의식하지 않는 형태로 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간 한일 양국 간의 교류와 의식문제를 쫓고 있는 일본 시즈오카 현립 대학의 고바리 스스무(小針 進)교수는 2005년도 8월의 제13차 한일포럼회의에서 “멀티 트랙시대의 일한교류에 필요한 인식과 환경”이라는 글에서 국가와 국가간 관계의 진전에는 민간교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한일간에서는 정치·외교 관계의 악화가 민간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안고 있다 경고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예로 양국간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한국측에 의한 교류·행사의 중지, 연기요청이 있거나, 일본측의 관광

여행의 과민한 취소 행위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小針교수가 인용한 재미로운 수치가 있습니다.

작년 2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기념일” 제정이 도화선이 되어 관계가 악화된 후인 그 해 7.22~24간 서울신문과 일본동경신문(東京新聞)이 공동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상대방에 관한 친근감에서 27.9% 만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한국인이 상대방 국가가 자기나라에 필요하다고 보는가라고 물은 데 대하여서는 “그렇다”고 53.5%가 회답하였으며, 일본인은 54.1%가 긍정적 회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양국민 공히 과반수 이상이 상대방이 필요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국민민의 인식에 비추어서도 양국민민의 교류를 저해하는 행정적 조치는 금후 취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최근의 여론조사 수치가 있습니다. 금년 8월 7일 발표된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의 공동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신뢰할 수 없다”고 회답한 일본인은 51%였으며, “한국에 나쁜 인상”을 갖는 사람도 51%로서 전년대비 17%와 9% 각각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양신문사가 공동조사를 시작한 199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일본인의 험한감정이 높아진 것은 정치·외교관계가 악화되었던 탓으로 보이며 이것은 그 원인이 제거될 때에는 다시 호전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2006년 11월 14일자 한국의 중앙일보는 프랑스 파리에서 조그마한 오케스트라를 창단한 한·일 유학생의 이야기를 게재하여 눈을 끌었습니다. 이 기사 제목은 “한·일 갈등 ... 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젊은 연주자들이 두 나라의 화합을 염원하며 “파리아시안챔

버오케스트라”를 창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럽에서 직업 연주자로 활동하거나 음악원에 재학중인 8명의 한국인과 7명의 일본인 또는 일본계 프랑스인이라는데, 창단 아이디어는 지휘자인 김예훈 씨의 일본인 친구 미와 카미야 씨가 처음 냈으며, 한일양국의 정치갈등이 화제가 되자 “이런 답답한 현실의 벽을 음악을 통하여 극복해 보자”고 제안한 게 출발이 되어 10월31일 파리의 한 침례교회에서 첫 연주회를 가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일 한국인 사회의 ‘민단신문’이 올해 10월 25일 보도한 ‘국민감정의 비정치화 기대’라는 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일류 주역은 소설이며, 서점 매상이 급격히 늘었고,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등의 도서관 대출 종합순위 20위 이내에 일본인 작가 작품이 8작품 들어 있다. 江国香織, 요시모토 바나나, 村上春樹, 綿矢り 등이 그 면면이다. 일본의 작품성이 시대를 뛰어넘는 것은 여성의 심경에 맞다’고 보도했습니다.

작년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아해 ‘한일 우정의 해’로 한일 양국에서 700여건의 문화적 이벤트가 기획되어 실시될 예정이었었습니다만, 연초부터 시마네현의 이른바 ‘다케시마 기념일’ 제정에 따라 양국 관계를 냉각시키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도 기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하에서도 지난해 9월 24일 서울 대학로라는 청년문화의 공간에서 아오모리현의 네부타를 포함한 양국의 35개 단체와 1500여명이 참가하는 한일양국 ‘축제’가 화려하게 개최되어 정치와 문화는 별개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금년에도 9월 23일과 24일 양일간 같은 대학로에서 ‘아키타 간등’ 행렬, 아오모리의 네부타, 츠가루의 사미센 연주, 오키나와의 류큐 오도리, 이와테의 오니 검무 등과 한국 각 지방의 여러 춤과 가면극 등이 경연되어 수만 명의 관객이 갈채를 보내며 즐긴 것은 한국 신문과 미디어에서 크게 보도되

었다.

지금 한일 양국 국민간의 교류는 작년 12月 말 현재 일본의 방한자수는 242만 명, 한국의 방일자수는 190만 명으로 합계 432만 명이 왕래했으며 2004년에는 403만 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전술한 小針 교수는 2004년 수치를 기준으로 하여 한국인 30名에 한 명이 일본을 방문하고 일본인 52名 중 한 명이 한국을 방문하는 꼴이 된다고 하고, 이것은 일본인 38명 중 한 명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수보다 적다고 비교했습니다. (중국인의 일본방문은 2,117명 중 1명)

이것으로 보면 앞으로 좀 더 많은 일본인이 한국을 방문하도록 우리는 매력적인 한국을 만드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일간에서 연간 4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왕래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4월 중국에서 대규모의 반일데모가 있을 후 田中明彦 교수와 岡本行夫 씨 간의 대담이 中央公論에 실렸는데 거기에서 岡本 씨는 “한국과는 연간 300만 명에서 400만 명의 왕래가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중국과는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때에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조적문제가 있으므로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역사에 對한 이해와 인식을 갖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일본과 중국 간의 인적교류는 2004年 말 현재 일본인의 중국방문자 333만 명에 대하여 중국인의 일본방문은 61만 명입니다.

국가간의 관계에서 민간부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만, 韓流 등 여타의 민간교류가 줄기차게 있어 정치적 또는 정부간의 관계가 악화되어 대립·갈등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러한 갈등을 흡수할 만한 체력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필요한 파트너라는 국민적인식 때문에 정치적 레벨에서도 문제를 합리적, 이성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저는 교섭이 중단상태에 놓여 있는 한·일FTA 교섭을 조속히 재개하여 2007년 중에는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고 싶습니다.

21세기를 향한 한일간의 문화교류증진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남은 것은 배타적 내셔널리즘을 어떻게 극복하고, 국제협조적 민족자긍심으로 승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것 입니다. 저는 1996년 한국 외교부 장관으로 베트남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1965~1975년대에 월남과 교전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일체 과거문제를 언급하거나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측에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과거의 역사적 상처를 안고 있는 동아시아에서도 과거의 가해자는 가일층 겸허하고 피해자는 관용한 마음을 갖고 서로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오늘날의 韓流나 日流는 이러한 면에서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끝

韓流など、民間交流の積極的な意味

2006年 11月 28日

孔 魯明

東アジア時代に韓日間の文化交流を考えるセミナーで基調講演をさせていただくことになり、光栄に存じます。同時に、自分の専門領域でもない文化の分野について申し上げることになり、大変恐縮に思います。

私は1994年、駐日韓国大使として在任中に行われた韓国マスコミとの懇談会で、解放から50周年、韓日国交正常化30周年を迎え、今や日本の大衆文化への門戸を開く問題を検討すべき時期であるという旨の発言をしたことで大きな論争を巻き起こしたことがあります。

私の問題提起は一波が万波を呼び、都下の各新聞はいずれも大きな紙面を割いて韓国社会での日本大衆文化の現状を報じ、ほぼすべての新聞が社説でその是非を論じていました。

保守色の強い東亜日報と朝鮮日報は時期尚早論を主張する慎重な姿勢を見せたのに対し、中央日報や韓国日報などは「日本大衆文化に積極的に対応」するため「正攻法」で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市場開放に向けた具体的な対策を講ずるべきとの意見を開陳しています。

このように日本大衆文化をめぐる論議が広がっていくと、政府と与党は直ちに政府・与党協議を開き、私の発言について韓国外務部の公式立場ではないとし、現段階では日本文化の輸入開放など検討していない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することで事態の早期收拾を図りました。

当時の状況は、前年の1993年11月6～7日韓国慶州で開催された韓日首脳会談後、当時の細川首相が韓国のテレビの前で植民統治時代に創氏改名などを強制したことを含む、日本の植民統治に対し謝罪する発言をしたことで韓国民に良い印象を与えており、同年3月には当時のキム・ヨンサム大統領の訪日も予定されていました。

したがってこのような状況認識もあり、韓国マスコミには私の発言がキム・ヨンサム大統領の訪日に先立ってお膳立てされたシナリオによる発言ではないかと疑われていました。後日女性ジャーナリストとしては初めて日刊紙の社長となる韓国日報の張明秀女史は、彼女のコラム(94年2月3日付)で、「金大統領の訪日の手土産のためのシナリオではないかという疑念が膨らみ一層騒がしい。」と指摘した上で、「日本大衆文化の輸入に対しても時期尚早論がまだ大勢を占めているが、いつまでも時期尚早論を繰り返すことはできない。一日も早くこれを議論化して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ていました。

当時、日本大衆文化開放で直接・間接的に影響を受けるはずの文化関係者は、むしろ大衆文化開放は避けられないのではないかとする立場に立っていたように思えます。マスコミの取材に応じた申鉉沢(シン・ヒョンテク)韓国レコード協会会長、「七甲山」、「妻に捧げる歌」などで有名な作曲家の趙雲坡(チョ・ウンパ)さん、映画『風の丘を越えて—西便制』の製作者である李泰元(イ・テウオン)さん、映画監督の朴光洙(パク・カンス)さんなどは日本大衆文化開放は強制的に阻止できるものではないという立場を表明し、文化開放に備えるべきであるとの意見を示していました。

1994年当時の韓国社会で日本大衆文化の開放論議に対する敏感な反応は、今の日本国内で巻き起こっている核開発論議への敏感な反応に喩え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何故ならこれらの問題の根底にはそれぞれ国民感情が潜んでい

るからです。韓国で日本大衆文化の開放問題が極めて扱いづらい問題になってきたのは、日本の殖民統治に対する国民感情が強く残っているためであり、一方日本における核開発問題は、まさにその核兵器による唯一の被爆国としての日本国民の感情が強く存在するためではないでしょうか。

日本の大衆文化は1998年から順次開放され始め、地上波における大衆歌謡、バラエティーショーの放送を除いてすべて解禁されています。まだ完全に解禁されたとは言えなくとも、12年前の論争を考えれば時代の移り変わりを感じてしまいます。12年前は被害意識から日本大衆文化の開放に防御的な姿勢をとっていた韓国国民に、今日韓国の大衆文化がアジアの国々で「韓流」ブームを起していることを想像すらできたでしょうか。

特にここ数年来日本国内に「韓流」といわれる文化現象が起きていることなどにより、韓日間の大衆文化交流に新しいページが開か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私が関係している翰林(ハンリム)大学校日本学研究所が昨年主催した韓日国交正常化40周年を記念する国際シンポジウムでは、韓日間の社会文化問題を扱うセッションも双方の意見交流を図りました。

日本側でこのセッションをカバーしていただいた小倉紀蔵教授(京都大学助教授)は、「近代以降日本はアジアの先頭に立って西欧の価値を受け入れ、韓国は主に日本からこれを学ぶことで近代化、産業化に邁進したが、このような流れに大きな変化が生じたのが1990年代」と述べています。そして、彼はこのような日本国内の変化について「韓国を見よ(Look Korea)」、すなわち「韓国に学ぼう」という流れだとし、そのような流れの背景にあるのは、ポストモダン時代に入っている日本社会内で過ぎ去った「モダン」時代への懐古があると指摘した上で、したがって「韓流が単に韓国ドラマや俳優に対する一時的なブームではなく、日本社会の大きなターニングポイントを示す現象」であ

るとの見解を示しました。日本国内の韓流ブームの原因はさておき、近ごろ韓国の大衆文化が東アジア諸国に向けて発信されています。韓流のコンテンツの中に日本人の心の琴線に触れる何かがあり、中国民族の涙を誘う何かがあり、また東南アジア人の興味をひく何かがあるため今の韓流ブームが起きているように思えます。その「何か」に対して韓国のある哲学教授(大真大学、イ・サンフン教授)は、「韓国の大衆文化は事実上多国籍なボヘミアン文化だから」と説明していますが、その説明が妥当であるかどうかは別として、韓国人たちは韓国の大衆芸能を楽しんでくれるアジア人と大きな共感帯を感じていることは否めません。

このように民族間で共感できる文化の交流は、現代の産業社会で商品、物流の活性化を促進させるだけではなく、これらの商品が伝える文化も自然に発信しています。そしてこのような文化の伝来、拡散は共感帯の拡大を通じて感情的コミュニティーをも形成する環境を作ってしまうのです。かつて「ソフトパワー」の文化論を打ち出したジョセフ・ナイ教授は「大衆文化を軽く見るのは正しくない。大衆文化は個人主義・消費者の選択によって、政治的に重大な影響を及ぼす価値観に対するイメージやメッセージなどを、意識しない形で発信することが多いためである」としています。

韓日両国間の交流と意識問題を追ってきた静岡県立大学の小針進教授は、2005年8月の第13回韓日フォーラムの「マルチトラック時代の日韓交流に求められる認識と環境」という発表文の中で、国家と国家間関係の進展には民間交流の役割が何より重要であるとの見解があるが、韓日間では政治・外交関係の悪化が民間交流に影響を及ぼす構造となっていると警告しています。彼はその例として両国間の関係が悪化した時、韓国側からは交流・行事の中止や延期の要請があったり、日本側からは観光旅行の過敏なまでのキャンセルなどが

あるとしています。

ここに小針教授が引用した興味深いデータを紹介します。

昨年2月島根県のいわゆる「竹島記念日」の制定が口火になって関係が悪化した後の同年7月22日～24日の間ソウル新聞と東京新聞が共同で行った世論調査では、相手に対する親近感では27.9%のみ肯定的な反応を見せた韓国人ですが、相手国が自国に必要だと見るかという質問に対しては「そうだ」と回答した人が53.5%にのぼり、一方の日本人も54.1%が肯定的な回答をしています。これは両国民の過半数以上が相手が必要な国であると認識していることを意味するものです。

このような両国国民の認識に照らしてみても、今後両国国民の交流を阻害するような行政的措置が取られてはならないと思います。

最近の世論調査の結果ですが、今年8月7日発表された韓国日報と読売新聞の共同調査によると、「韓国は信頼できない」と答えた日本人が51%、「韓国に対して悪い印象」を持っている人も51%で、それぞれ前年比17%と9%増えています。これは両紙が共同調査を始めた1995年以来最も高い数字だったということです。

日本人の嫌韓感情が高くなったのは政治・外交関係の悪化によるものと見られます。逆にその原因が取り除かれれば再び好転する可能性もあると言えるでしょう。

ここにあるエピソードを紹介します。

2006年11月14日付韓国の中央日報は、フランス・パリで小規模なオーケストラを立ち上げた韓日両国の留学生に関する記事を掲載して目を引きました。見出しは「韓日葛藤など私たちには分かりません」というもので、韓国と日本の若い演奏者たちが両国の和合を念願して「パリ・アジア・チェンバ

ーオーケストラ」を作ったというのです。ヨーロッパでプロの演奏家として活動している人や音楽院に在学している人など8人の韓国人と7人の日本人、日系フランス人で構成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が、コンダクターであるキム・イエフンさんの友人である日本人の三輪カミヤさんがオーケストラ立ち上げのアイデアを出したそうです。韓日両国の政治葛藤が話題になると「音楽を通じてこのような息苦しい現実の壁を乗り越えて見よう」と提案したのが契機となり、10月31日パリのあるバプテスト教会で初のコンサートを開いたという内容でした。

在日韓国人社会の「民団新聞」が今年10月25日報道した「国民感情の非政治化期待」という記事によれば「韓国における日流の主演は小説であり、書店での売り上げが急伸しているほか、ソウル大、高麗大、西江大などの図書館で貸し出す総合順位20位以内に日本人作家の作品が8冊も入っている。江国香織、吉本バナナ、村上春樹、綿矢りさといった面々だ。日本の作品性が時代を担う若い女性の心情にフィットした。」と報道します。

去年は韓日国交正常化40周年を迎えて「韓日友情の年」ということで韓日両国で700余件の文化的イベントが企画され実施される予定でありましたが歳の初めから島根県のいわゆる「竹島記念日」の制定によって両国関係がギクシャクする事件が起ったことは皆様のご記憶にあることと思います。

しかしそういう中でも昨年の9月24日ソウルの大学路という文化青年の町で青森県のロブタを含むネブタを含む両国の35団体と1500余名が参加する韓日両国の「お祭り」が華やかに開催され政治という文化は別だということを示しました。

今年も9月23日と24日の両日、同じ大学路で「秋田竿燈」行列、青森のネブタ、津軽の三味線演奏、沖縄の琉球踊り、岩手の鬼剣舞いなどと韓国の各

地方の色々な踊りと仮面劇などが競演され、数万人の観衆が喝采を送り、楽しんだことは韓国の新聞やメディアで大きく報道されました。

現在両国国民間の交流は昨年１２月末現在、日本から韓国への旅行者数は２４２万人、韓国から日本への旅行者数は１９０万人と合計４３２万人が往来しております。ちなみに２００４年は４０３万人の往来がありました。

これに対し前述した小針教授は、２００４年の数値を基準にすると、韓国人３０人のうち一人が日本を訪れ、日本人５２人のうち一人が韓国を訪れている計算になるとした上で、これは日本人３８人のうち一人が中国を訪問しているのに比べ少ないとしています（中国人の日本訪問は２，１１７人の中一人）。

このことから今後より多くの日本人に韓国に来ていただけるよう、より魅力的な韓国を作るための努力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

韓日間で年間４００万人を超える国民が往来しているということは重要な意味があります。昨年４月中国で大規模な反日デモがあった後、田中明彦教授と岡本行夫（外交評論家）さんの対談が中央公論に掲載されましたが、その中で岡本さんは「韓国と日本は年間３００万人から４００万人の往来があるため問題ないが、中国と日本はこのまま放置すると重大な問題になりかねない構造的問題を抱えており、共同研究などを通じて歴史に対する理解と認識を持つための努力を傾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旨の発言をしています。ちなみに日本と中国の人的交流は２００４年末現在、中国への日本人訪問者数が３３３万人になのに対し、日本への中国人訪問者数は６１万人です。

国家間の関係で民間部分の役割が重要であると触れましたが、韓流などを含めその他の民間交流がたゆみなくに行われているため、政治的または政府間の関係が悪化し対立・葛藤することがあっても、そうした葛藤を吸収できる体力があれば、互いに必要なパートナーであるという国民的認識もあり政治レベル

でも問題を合理的かつ理性的に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圧力を感じるようになるでしょう。

このような観点でも私は中断している韓日 F T A 交渉を早急に再開し、2007 年中の妥結を図ることが望ましいと提言して止まないものです。

21 世紀に向けた韓日間の文化交流増進において依然として重要な要素として残っている問題は、いかにして排他的ナショナリズムを克服し、それを国際協力的な民族の誇りに昇華させることができるかだと思います。私は1996 年韓国外務長官としてベトナムを訪問したことがあります。ご存知の通り韓国は1965～1975 年代にベトナムと交戦状態にありました。しかしベトナムは一切過去の問題を言及したり、取り上げることがありませんでした。このことは韓国の我々に深い印象を与えました。過去の歴史の傷痕を背負っている東アジアにおいても過去の加害者はいっそう謙虚な姿勢をとり、被害者は寛容の心を持って互いに接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と思います。今の「韓流」や「日流」はそのような面で肯定的な貢献をしていると確信します。終り

한일문화교류의 의미와 문제점

日韓文化交流の意味と問題点

◆ 오구라 가즈오 일본국제교류기금 이사장
小倉和夫 国際交流基金理事長

国際交流基金

理事長 小倉 和夫

1 日本と韓国との間の認識ギャップの多角化

日韓間の相互認識の問題は、今や、国際社会、特に日本と韓国の周辺諸国や、米国も含めた関係の深い国々との関係と、あるいはそれらの国々についての認識と、深く関連している。たとえば、中国に対しての日本人と韓国人の「好感度」（「アティテュード」）は相当違っているし、アメリカに対する「好感度」（「アティテュード」）にも、日韓間の相違は観察される。

こうした日本と韓国との間の認識のギャップの多角化（マルチ・ダイメンション化）には、その背景にいくつかの理由がある。

この多角化現象を踏まえて日韓関係の将来を考える場合には、次の2つの点に留意することが重要であろう。

（1）短期的に見て、日本の対韓感情が非常に悪化し、嫌韓感情が増大していること。

（2）長期的に見て、日本と韓国との間の「アティテュード」が、この10年間、変動はあったものの結局は殆ど変わっていないこと、すなわち、日韓相互交流の拡大により「インヴォルヴメント」は増えたにもかかわらず「アティテュード」は良くなっていないこと。

2 「インヴォルヴメント」と「アティテュード」との関係についての

調査結果

3 今後の課題

今後の課題としては、以下が考えられる。

- (1) 市民団体間交流の拡充に努めること。
- (2) 青少年等いわば「白紙状態」の人々による交流を促進し、韓国の人々が日本を嫌う「悪循環」に取り組むこと。
- (3) 韓国の日本文学研究者はじめ日本研究者が、日本研究を超えた広い分野での研究者と交流していくこと。

以上

국제교류기금

이사장 오구라 카즈오

1 일본과 한국 사이의 인식 차이의 다각화

한일간 상호인식 문제는 이제 국제사회 특히, 일본과 한국 주변국가와 미국을 포함해 깊은 관련이 있는 국가와의 관계와 그 국가들에 대한 인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중국에 대한 일본인과 한국인의 ‘호감도’ (‘어티튜드’)는 상당히 차이가 있으며, 미국에 대한 ‘호감도’ (‘어티튜드’)에도 한일간 차이가 보인다.

이러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인식 차이의 다각화(멀티 다이멘션화)에는 그 배경에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이 다각화 현상을 파악하고 한일 관계의 장래를 생각할 경우 다음의 2 가지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1) 단기적으로 볼 때 일본의 대한 감정이 매우 악화되어 험한 감정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

(2)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과 일본 사이의 ‘어티튜드’ 가 최근 10 년간 변동이 있었지만 결국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점. 즉, 한일 상호교류의 확대에 따라 ‘인볼브먼트’ 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티튜드’ 는 좋아지지 않았다는 점.

2 ‘인볼브먼트’와 ‘어티튜드’와의 관계에 대한 조사결과

3 향후 과제

향후 과제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 (1) 시민단체간 교류확대에 노력할 것.
- (2) 청소년 등 이른바 ‘백지상태’의 사람들에 의한 교류를 촉진하여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하는 ‘악순환’에 대처할 것.
- (3) 한국의 일본문학연구자를 비롯해 일본연구자가 일본연구를 넘어
폭넓은 분야에서의 연구자와 교류를 해 나갈 것.

이상

제 1 주제
第1テーマ

한일문화교류의 역사
日韓文化交流の歴史

- ◎ 이지원 한림대학교 교수
 イ・チウォン 翰林大学教授

- ◎ 하야시 나츠오 도야마대학 조교수
 林夏生 富山大学助教授

발 표 I
発 表 I

한일문화교류의 역사와 현황

日韓文化交流の歴史と現況

◎ 이지원 한림대학교 교수
イ・チウオン 翰林大学教授

한일문화교류의 역사와 경향¹⁾

이지원 (한림대학교)

1. 논의의 범위와 초점

요청받은 제목은 본래 ‘한일문화교류의 역사와 현황’인데, 너무나도 방대한 주제이다. 문화교류라는 개념은 현대의 국제관계의 산물이나, 문화라는 개념 자체는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괄하며, 또한 역사와 현황이란 과거와 현재를 모두 포괄한다. 한국과 일본이란 대상 역시, 가장 좁게 잡으면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의 대한민국과 일본을 지칭하겠으나 넓게 잡으면 고대 이래의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까지를 범위로 한다.²⁾ 여기서는 한일문화교류를 커다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조망하되, 몇몇 인상적인 사례들을 통해 그 주요한 경향을 파악하고, 이 시대의 문화교류의 역할에 대해 전망해본다.

2. 역사를 통해 본 한일문화교류

한국과 일본은 바다를 사이에 둔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이다. 무력을 동반한 갈등도 있었지만 임진왜란 및 20세기 전반의 일제통치를 제외하면 사실은 평화적인 교류의 시기가 훨씬 길었다는 점에서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웃한 나라간에 호혜적인 교류와 이해 못지 않게 경쟁이나 분쟁, 고정관념과 편견이 많은 것이 인간 역사의 보편적인 경험이기도 하다. 그래서 한일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을 것이다.

또 한가지, 경제나 정치는 재화나 권력을 대상으로 한 이익 다툼의 분야이지만, 문화라고 하면 무언가 부드럽고, 즐거운 무갈등의 영역으로 표상되는, 혹은 차이와 갈등을 넘어서서 이질적인 요소들을 공존시키고 통합해내는 효과를 갖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만이 전부는 아니며, 오히려 경제나 정치 분야 이상으로 타협불가능한 충돌의 장이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닌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일간의 역사를 돌이켜볼때도 이러한 점은 확인된다. 전란(戰亂)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대립의 경험을 제외하더라도 우열다툼의 경향, 문화적인 영역에서의 갈등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1) 전근대의 사례 : 조선통신사와 유교적 우열관계

전통사회에서 한일간의 우호선린적 문화교류의 대표적인 심볼로 곧잘 거론되는 조선통신사의 사례를 살펴보자.

조선통신사는 막부의 요청에 의해 일본측의 최대한의 우대를 받고 간 경우였음에도 불구하고

1) 행사발표용으로 작성한 미완성 논문이므로 필자의 동의없는 인용은 삼가주시지요.

2) 이 글에서 ‘한일’이라는 표현은 이중적으로 사용된다. 즉 넓게는 역사 이래 한반도와 일본열도 지역 양쪽을 지칭하는 동시에, 작게는 1965년 국교수립을 맺은 이후의 대한민국과 일본을 가리킨다.

하고, 상호 예절상의 격식문제를 둘러싸고 긴장된 절충을 벌여야 할 경우도 많았다. 사행의 도중에서 각번(各藩)의 관원들과의 만남, 주고받는 선물, 각종의 의례의 진행 또는 대접받는 음식의 종류 등등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가 문제였다(고병익, 2005, 92-93).³⁾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격식의 문제보다도 타문화를 보는데 있어서 당시의 유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문화적 이질감은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사행의 행렬을 구경나온 군중들 속에서 남녀가 서로 상열(相悅)하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는 것, 도시의 창루(娼樓)에서 기녀(妓女)들이 얼굴 붉히는 교태를 부리면서 호객하는 모습, 사촌간에도 남녀가 혼인을 한다든가 또는 형이 죽으면 아우가 그 형수를 처로 삼는다는 하는 것에 대해 유교적 예절과 윤리를 체화한 선비들의 관점에서는 “음예지행(淫穢之行) 변동금수(便同禽獸)”(신유한, 1719=1979)라고 표현될 수 밖에 없었다.

또 고려와 달리 불교를 억압하고 주자학(朱子學)이 우위를 누리는 체제에서 볼 때 일본인들의 종교세계는, 전국에 신사(神社), 불사(佛寺)가 수없이 깔려있고, 사람들이 갖가지 귀신을 많이 숭상하는 것으로 비추어졌고, 가족의례나 국가의례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여져 ‘금수지역(禽獸之域)’이라고 극언하기도 하였다.⁴⁾

또한 일본에 대한 호칭은 전통적으로 ‘왜’(倭)가 사용되었는데, 조선에서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더욱 강한 증오, 모멸의 뜻이 담겨지게 되었고, 통신사들도 이를 고수하였는데 여기에는 일본의 풍습들이 유교적 예의범절에 어긋난다는 가치판단도 강하게 작용하였다. 사행의 기록에 일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일은 거의 전무하며, 왜인(倭人), 왜선(倭船), 왜관(倭館), 왜학(倭學), 차왜(差倭)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미 통신사행이 일본에 들어갈 적에 사신이 사행 역원들에게 저들을 함부로 멸시, 조소하지 말라고 주의하기도 하고⁵⁾, 대마도의 유명한 유학자인 아메노모리 호오슈우(雨森芳州)가 신유한에게 왜인이라 부르지 말고 일본인이라 부르도록 해달라는 항의를 하기도 하였으나⁶⁾, 비칭(卑稱)은 여전했던 것이다.⁷⁾

물론 이 당시의 사람들도 일본에 대해 단순히 부정적 인식만을 했던 것은 아니어서, 일본을 기행하면서, 일본의 관사(官舍), 신궁, 사원의 건물이 훌륭하고 화려하며, 민가도 누층(累層)을 이루고 깨끗하다는 것을 거듭 말하고 있고, 사원이나 저택의 아름다운 정원에는 이름모를 아름다운 ‘기화요초’(琪花瑶草)들이 잘 가꾸어져 있다고 감탄하고 있다. 더러운 것은 곧 밭에 묻어버리니 더운 여름에도 파리와 모기가 드물다고 놀라며, 사람이 들어가 누울 수 있는 모기장을 치

3) 하나의 사례로 기해년(1719)의 통신사행에서 제술관(製述官)으로 갔던 신유한(申維翰)은 사행 첫머리인 대마도의 부중(府中)에서 그 도주의 초청을 받았을 적에 도주와 서로 어떤 예를 해야 한다는 전례를 믿을 수 없다 하여 그런 예를 할 수 없다고 고집하자 마침내 도주는 나오지 않고 그도 돌아오고 만 일이 있다(『海遊錄』 기해년 6월 31일조. 신유한. 1979 : 42-45, 48-51).

4) 가령 광해9년(1617)의 사행에 종사관으로 갔던 이경직(李景植)이 교토에 있을 적에 천황의 아버지가 41세 때에 전위(傳位)하고 있다가 마침 어젯밤에 49세로 죽었는데 거애(擧哀)하는 절차가 없고 관직자들도 한번 가서 조문하고 분향할 뿐이며 관백(閑白)도 또한 찾아가는 예의가 없고 다만 궁중에서 하룻동안 복(服)을 입을 뿐이라 하니 그 ‘금수지역(禽獸之域)’임을 이것으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扶桑錄』 8월27일조.).

5) 趙職. 『海槎日記』 筵話8月初3日初. 고병익. 2005. 95-96 재인용. 조엄은 1764년 에도 막부의 제10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하루(德川家治)의 쇼군 취임을 축하하는 통신사로 일본에 갔을 때 고구마 종자를 가지고 와서 한국 내에서 최초로 재배하게한 인물이기도 하다.

6) 『海遊錄』 附見聞雜錄.

7) 이러한 항의를 직접 받았던 신유한은, 강항(姜沆)의 『간양록(看羊錄)』의 표현을 이어받아, 자신의 기행문 『海遊錄』에서도 일본사람들을 가리켜 중인(衆人), 제인(諸人)이라고 해도 될 것을 거의 언제나 중왜(衆倭), 제왜(諸倭), ‘군왜’(群倭)라는 호칭을 계속 사용한다. 이는 군견(群犬)이나 군우(群牛)와 같이 짐승으로 간주하여 부른 표현으로, 『海遊錄』을 읽은 일본인 독자들의 놀라움을 자아냈었다고 한다(司馬遼太郎, 『長安から北京まで』 1976 : 113. 고병익. 2005 : 96 재인용).

는 것, 거리에 공중목욕탕이 있어 돈내고 들어가는 것, 민가에도 변소 옆에 목욕탕이 있어서 사 후에 씻도록 하는 것 등 청결함도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또 조선통신사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 오사카, 교토, 에도 등의 대도시에서 수많은 구경꾼이 길 양측에서 구경하는데, 많을 경우 몇십만으로 추산되는 사람이 운집했음에도 모두 침묵하여 떠드는 자가 없는 것, 인삼과 비단 등 공사예단(公私禮單)을 에도로 탁송했는데 하나도 유실함이 없는 것에서 기율과 질서가 뛰어나다고 탄복하고 있으며, 도량형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집의 미닫이나 돛자리도 모두 규격화되어 있는 점 등 일본문화의 우수한 점에 대해 감탄하기도 했다.⁸⁾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조선에서는 유교문화의 발달 정도를 고정기준으로 삼아, 전근대 동아시아 세계제국의 위계질서 내에서의 우월성을 확인하거나 상대를 비하하면서, 극단적으로는 인간과 ‘오랑캐’ 혹은 ‘금수’(禽獸)라는 인식까지 등장하는 등 <‘문명’ 대 ‘야만’>의 틀을 취했고,⁹⁾ 일본에서는 나름대로 훌륭한 건물 등을 관람시켜 일본의 부와 무위(武威)와 기예(技藝)를 대내외적으로 과시¹⁰⁾하거나 ‘문화적열등의식’ 대신 임진왜란을 통해 확인된 ‘군사적우월의식’을 통해 맞서고자 했던 것¹¹⁾이 당시의 분위기였다.

2) 근대의 사례 : 일본의 제국주의화와 근대적 우열관계

구미 열강에 의해 세계의 대부분의 지역이 식민지화되는 추세 속에서 매우 드물게도 일본은 독립의 보존과 자력에 의한 근대화에 성공하였고, 스스로가 제국주의화하였다. 근대세계 체제를 주도한 구미를 본받기 위해 ‘탈아입구(脫亞入歐)’의 방향을 걸으면서 다른 아시아국가에 대해 근대문명의 중계자·전파자이자 지배자의 위치를 다져나가게 되었다. 한일간의 문화적 관계 역시 이러한 시대적 전환을 맞아 크게 바뀌었다. 전근대적 교류에서 근대적 교류로 바뀌면서, ‘문명’ 대 ‘야만’의 내용과 위치도 바뀌게 되었다. 유교문명의 면에서 ‘선진적’임을 자부하고 소중화(小中華)의 우월감을 누리던 조선을 대신하여, 서구근대문명을 앞서 수용하고 소화한 일본이 우위에 서게 된다.

병자수호조약 이후, 조선에서 왜(倭)라는 호칭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일본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이러한 양국간 관계의 전환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근대적 ‘문명개화’의 척도에서 일본이 바라본 조선은 오히려 ‘야만’으로 비춰지게 되면서, 근세의 한일관계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역전되게 된다.

특히 일본은 청나라와의 전쟁에 이르는 과정과 전쟁 그 자체를 ‘문명담론’으로 정당화했다. 문명의 경주에서 앞선 일본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가 정의하는 ‘반개(半開)’사태에 머물러 있는 이웃국가들을 문명의 경지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일본은 문명이고, 청나라와 조선은 야만이라는 구도가 설정되었고, 청일전쟁은 “세계문명을 위한 싸움”, 즉 <문명 대 야만>의 전쟁으로 규정되었다.¹²⁾

가령, 메이지시기 일본인들의 조선인에 대한 이미지를 보면, 초기(1880년대 중반)에는 조

8) 고병익. 2005 : 103-107 참조

9) 유교적 기준 내에서의 하나 우열의 틀을 넘어 유교문명을 공유하고자 하는 견해도 보였다. 원중거. 2006 참조.

10) 고병익. 2005 : 99-103 참조

11) 한배호. 1974 : 18 참조.

12) “直ちに北京を衝く可し,” 『時事新報』 1894.8.5. 『福沢諭吉全集』 xiv, 500쪽 ; 한상일·한정선, 2006 : 84 재인용.

선인을 직접 본 일본인은 극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일본인의 변형, 중국풍의 의상 등 실물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그려졌으나, 1890년대 들어서, 특히 청일전쟁 이후에는 더럽고 게으르고 우둔하고 무기력하다는 이미지로 표상되면서 ‘뒤떨어진’ 문명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이러한 이미지의 일차적 원천은 조선에 대한 여행기였는데, 여행기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추출해낼 수 있는 조선인의 이미지는 더럽고 게으르고 무기력하며, 부정부패에 시달리는 불쌍한 인간들이라는 것이었다. 거리에 넘쳐흐르는 인분과 그로 인한 악취, 주로 주막에서 목격되는 주모의 불결한 손놀림과 더러운 부엌은 어느 여행기에서도 발견되는 상투적인 문구였다. 또 길게는 석자나 되는 긴 담뱃대는 게으름의 상징이었으며, 하릴없이 길가에서 빈둥대거나 낮잠자는 모습은 조선인의 무기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가장 하등한 생활을 하는 자는 타구(唾具)와 변기(요강)를 같이 쓴다. 그 불결함이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¹³⁾

“아무리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가리지 않는 국풍(國風)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미개국임을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¹⁴⁾

“(조선인들은) 아직 면밀한 주의를 요하는 문명의 이기를 다룰 정도로 지능이 발달해 있지 않다. 원래 불결은 저능, 무신경, 우둔한 데서 발생하는 것이다”¹⁵⁾

이러한 해석은 조선에 대한 차별적 이미지를 대대적으로 만들어내는 동시에 문명국으로서의 일본을 정당화하고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었던 것이다.¹⁶⁾

이후 한반도를 식민지화하고 통치한 것은 정치군사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이러한 근대적 문명관에 입각한 우열관계의 산물이기도 했다. 따라서 식민통치 기간 동안의 문화활동 및 교류행위 역시 이러한 우열감을 일본과 조선 양측에 재생산하는 경향을 띠 수 밖에 없었다.¹⁷⁾

그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차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하고, 조선은 35년간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시기인 1945년 12월에 이루어진 한 조사이다. 북경 거주 일본인 385명 대상으로 미국 국무부 조사분석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일본국민은 다른 극동의 국민보다 뛰어나다>에 대해 긍정 86%, <일본민족은 세계의 다른 어떤 민족보다 뛰어나다>에 대해 긍정 41%, 부정 49%, 그리고 <조선은 적어도 20년간은 독립을 할만한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을 것이다>에 대해 긍정 77%, 부정 14%의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吉田, 2004 : 65). 이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목표한 ‘미개’한 이웃에 대한 ‘문명’ 전파의 결과가 실질적인 ‘미개’의 ‘문명화’ 및 대등한 관계의 형성이 아니라, <‘문명’ 대 ‘야만’>의 확대재생산 및 자기도취라는 실로 아이러니한 것임을 보여주는 응답이라 할 수 있으며, 또는 그러한 ‘문명’ 전파의 방식(즉 당시의 문화교류의 방식)의 본질을 엿보게 하는 응답이기도 할 것이다.

13) 米山人, ‘朝鮮人の風俗略解’ 『風俗画報』 77(1894.9.10), 6쪽 ; 박양신, 2005, 320 재인용

14) 福岡袖浦, ‘兩班酒宴の圖解’ 『風俗画報』 99(1895.9.10), 6쪽 ; 박양신, 2005, 320 재인용

15) 『朝鮮漫畫』 79쪽 ; 박양신, 2005, 324 재인용

16) 이는 서양에서 구축된 ‘야만’ 담론의 내용을 빼닮은 것이었고, 삽화나 화보, 사진을 통해 대중적으로 보급되었다. 박양신, 2005, 327.

17) 여기서 벗어나는 대표적인 예가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 등일 것이다. 그러나 야나기 역시 ‘현재’보다는 ‘전통문화’에서 조선의 가치를 발견하고 상찬하는 것, ‘문화적 독립’의 의의와 동시에 ‘정치적 독립’의 무용성을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3) 현대의 사례 : ‘반일’과 ‘무관심’의 ‘엇갈림’

2차대전 이후 독립한 한국과, ‘전후개혁’ 및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거쳐 새로 탄생한 일본에게는, 이전 시기를 지배했던 ‘우열관계’에 입각한 비대칭적 문화교류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반세기 가량은,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문화적인 접점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엇갈림’의 시기가 이어졌다.

(1) 한국 : 그 동안의 멸시에 대한 반발과 부분적인 일본문화 수용

① 국가적 반일 -- 문화영역에도 투영

대중문화는 금지, 스포츠 교류에도 영향.

a. 사례 : 1954년 스위스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

예선전은 ‘홈 & 어웨이’ 방식으로 치러야 했고, 그렇다면 일본 선수들이 한국에 입국해야 했다. 그러나 반일감정은 물론, 일본과의 국교도 없었고, 더구나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본인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없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일간의 경기는 성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한국 선수가 일본에 가는 것조차도 기본나 빠하던 분위기였다고 한다. “스포츠와 정치는 별개다”라는 논리가 이승만 당시 대통령에게 통하지는 않았다. 일본의 재일동포들의 사기 진작등의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앞세워 재일체육회의 읍소가 받아들여진 결과 한국 대표팀은 일본에 갈 수 있었다. 결국은 일본에서 두 경기 모두 어웨이로 치뤄야 했다. 이 때 “일본에게 지면 현해탄(대한해협)에 몸을 던져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말이 떨어졌다. 당시 이유형 대표팀 감독은 놀랐지만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겠다”는 대답을 했다고 한다. 선수들은 “반드시 이기고 말겠다”는 부담을 가지게 되었고 이때부터 현재까지 한일전의 한켠에선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부담으로 남아 있게 된다(양원석, 2004).

b. 사례 : 레슬러 김일(일본명 오오키 킨타로 大木金太郎)의 회고 (1970년대에 대한 회상)

“난 (안토니오 이노키와 자이언트 바바) 두 사람에게 많은 빚을 졌다. 굳이 개런티만의 문제가 아니다. 두 사람은 한국서 경기하면서 참으로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지금은 반일 감정이 덜하지만 두 사람이 한국에서 경기를 치를 때만 해도 반일 감정이 극심했다. 두 사람은 ”오오키 선배, 한국서 경기하면 제가 한국을 침략하고 식민지화시켰던 장본인으로 낙인 찍히는 기분“이라고 말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이노키에게 ”왜 밥을 먹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는 ”한국 사람들에게 욕을 너무 많이 먹어 배가 고프지 않다“라는 뼈 있는 농담을 했다. 그랬다. 한국 팬들은 일본 선수들을 마치 마귀 보듯이 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반드시 꺾어 주기를 바랐다. 박치기 한 방에 바바나 이노키가 나자빠지면 팬들은 무척 통쾌해 했다. 팬들은 나의 박치기 한 방에 일제강점기로 인해 쌓였던 울분을 씻어 내렸던 것이다. 바바와 이노키는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만은 나의 희생양이 되었다...”¹⁸⁾

② 부분적인 일본문화 수용

1950년대의 아시아영화제 -- 도시락을 싸 들고 모인 노년들

1960년대말의 ‘블루라이트요코하마’, 동네의 전과상의 전축

1980년대의 ‘고이비토요’, 나가부치 츠요시(乾杯, RUN) 길거리 리어카매점(속칭 ‘길보드’) 널리 유통

그 밖에 도서잡지, 만화, TV애니메이션, 게임 등은 공식적, 비공식적 유통. ¹⁹⁾

그러나 1960년대 419세대, 63세대 -- 반일세대, 한글세대, ‘반일감정’이 개별적 문화교류의 필요보다 우위에 선 시대.

(2) 일본 : 한국(및 아시아)에 대한 무관심

① 무관심 혹은 멸시의 잔존

‘전후’ 시기를 거치면서 앞서와 같은 일본인 우월론과 같은 강한 제국의식은 약화되었으나, 한국 및 아시아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형태로 변형되어 존속. 물론 그 내부에는 의식적, 무의식적 멸시도 잔존 (재일조선한국인 차별 등의 형태로 표출).

가령, 1956년 8월13일자 『일본독서신문(日本読書新聞)』 제861호에서는 독자를 대상으로 ‘전쟁의 기억’에 관한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격상 ‘진보적’이라 평가될 법한 인텔리층 독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전쟁에 대한 평가의 “지배적인 견해는 ‘침략전쟁’관”이지만 전쟁책임 문제에 대한 관심은 국내의 책임추궁 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181개의 회답 중에서 “아시아 민족에 대한 침략책임을 언급한 것”은 2개에 불과(吉田, 2004 : 111)했다.

또 1965년의 국교수립시에도, (한국의 반대운동은) 한일 국교회복의 전제로 일본의 사죄·배상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일본은) 한일협정 비준에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 모두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이 결여²⁰⁾된 상태였다.

② 일부의 관심 / 대중적 매력의 결여

일부의 일본인들은 전근대적 ‘향수’의 대상, 혹은 ‘동양문화의 최후의 창고’²¹⁾라는 관점에서, 혹은 이웃나라를 알아야 한다는 책무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전통문화는 별도로 하더라도, 대중문화의 경우, 콘텐츠의 다양성과 매력면에서 한계가 컸다. 한 일본의 영화평론가에 의하면 “80년대에 일본에 소개된 한국영화에서 남우주연은 죄다 안성기”였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²²⁾ 문화상품의 단순함, 도식성, 독재 하의 문화적 규제

18) 나의 삶 나의 도전 <제1화 ‘박치기왕’ 김일> 96회분, 『일간스포츠』 2006년 9월22일.

19) 공식금지된 것은, 상업적 개봉영화, TV프로그램(드라마, 쇼 등 오락물), 일본어가창, 일본어연극 등이었다.

20) 松尾, 1993 ; 吉田, 2004 : 130 재인용.

21) 草柳, 1974 : 47.

22) 한국영화제작자 및 평론가협회 주최 심포지움, 2003?.

등으로 인해, 소프트파워를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클 수 밖에 없었다.

요컨대, 식민통치가 끝난 20세기의 후반기는, 이전의 '우열관계', '지배-피지배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으나, 일단 과거사 및 상대국에 대한 반응이 한국에서는 적극적인 반일감정으로 표출되었고, 일본에서는 회피/무관심으로 표출되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경제협력과 정치군사적 연대는 이루어졌지만 문화교류는 정치나 경제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고, 한국측의 해외여행자유화²³⁾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인적 교류도 제한될 수 밖에 없었으며, 상대국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의 면에서도 제약이 컸다. 전근대사회와 달리 현대사회의 문화교류에서는 문화상품의 비중이 매우 커졌으나, 일본대중문화나 문화상품을 정책적으로 수출하려는 일본측의 의지가 강한 편은 아니었고²⁴⁾, 한국측도 외부의 문물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제도적 장벽이 있었으며, 한국의 대중문화나 문화상품은 국외에서 호응을 받을만한 다양성과 매력을 결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중적인 차원에서 양국의 문화적,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는 힘들었다. 한마디로 '엇갈림'의 시대였다.

3. 최근의 한일문화교류 : 차이의 향유, 공감, 공유

민주화와 해외여행자유화 등을 통해 전 시대의 제약조건들이 사라지고, 90년대의 탈냉전과 세계화 및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국제문화교류는 양적, 질적으로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종래와 달리 정부 차원의 교류를 넘어선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는 등 '교류의 다차원화', 또 동아시아 차원에서도 이미 확산되어온 일본대중문화 외에도 '한류'가 가세하고, 국가간 합작품도 늘어나는 등 '문화발신지/발신자의 다양화/혼성화' -- 가 진전되면서 '문화'는 단지 정치경제적 시스템의 '장식물'이 아니라, 정치군사적 갈등과 경제적 경쟁을 넘어선 새로운 공유자산으로, 또 '문화교류'는 여러 집단간의 분열과 대립을 완화·해소할 수 있는 처방으로 새롭게 의미부여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변화는 언어 및 상징 차원의 변화 혹은 일부의 주관적 희망사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타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타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감수성이 계발되는 등의 현실적 진전에 기초하고 있다(이지원, 2005.) 한일간 문화교류 역시 양적, 질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1) 한일문화교류의 양적, 질적 발전

양적인 면의 추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관광통계를 보자면,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단기적인 기록은 있으나 양국을 방문하는 인적 교류는 꾸준히 증대하여 연간 400만명 교류수준에 올라왔다. 이는 육로교통이 갖추어지지 않는 국가간의 교류로는 세계에서 매우 빈번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3) 한국은 1989년부터 이루어졌다. 일본은 1964년.

24) 2차대전 이후 일본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강력하게 편입되면서 아시아와의 관계는 일단 단절되었으며, 국제교류를 재개하게 된 단계에서도 일본의 아시아 외교는 주요 침략지였던 동북아 지역을 피해 동남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과거 일본제국주의 지배를 연상시키는 문화적 측면보다는 경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문화적 소극성은 일본 국내적 측면에서도 나타났다. 2차대전 이전의 지나친 국가개입의 폐해에 대한 반작용으로 문화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약화되었고, 문화산업에 대한 정책도 UNESCO의 보고서에 '순수자유주의 전략'으로 분류될만큼 민간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는 방향으로 나아갔다(이지원, 2005)

<한국으로의 일본인 입국자>

연도	입국자 수 (명)	성장률(%)
2005	2,439,811	-0.13
2004	2,443,070	35.5
2003 (SARS)	1,802,171	-22.3
2002	2,320,837	-2.4
2001	2,377,321	-3.8
2000	2,472,054	13.2
1999	2,184,121	11.8
1998	1,954,416	16.6
1997	1,676,434	

<일본으로의 한국인 출국자>

연도	출국자 수 (명)	성장률(%)
2005	1,739,425	10.8
2004	1,569,175	9.9
2003	1,435,959	9.3
2002	1,266,116	8.3
2001	1,169,620	6.2
2000	1,100,939	4.5
1999	1,053,862	28.2
1998 (금융위기)	822,358	-27.0
1997	1,126,873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이러한 인적교류의 증대와 더불어 교류의 주체도 다양화되고, 또 각종 문물의 교류도 증대되었으나(상세내역은 생략),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질적 측면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과거의 역사와 대비되는 최근의 한일문화교류의 특징을 거론해보자.

첫째, 역사 이래 최초로 교류의 폭과 기회가 거의 제약없이 열렸다. 대중적인 교통통신의 발달과 세계화에 따른 현실적, 제도적 국경이 낮아진 것은 물론, 최근의 정보화와 더불어 외국어를 알지 못해도, 그 나라에 가지 않아도, 그 나라에 아는 사람이 없어도 의사소통을 하고,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²⁵⁾ (상품구매도 마찬가지로 - 인터넷구매 및 경매대행사 사이트의 사례)

둘째, 문화상대주의적인 인식 및 감각이 상당히 확산되어 일반교양화됨으로써, 차이에 입

25) 정보화 이전과 이후의 국가간 교류의 성격은 크게 바뀐다.

각한 편견이나 배제, 우열 구도를 형성하려는 경향이 크게 약화되었다.

세째, 양국의 이미지에 있어서 문화산업에 의한 대중문화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하게 증대되었다. 한 세대 이전까지 각국의 이미지를 이끌었던 ‘전통문화’ -- 가령 일본의 경우라면 꽃꽂이, 게이샤, 사무라이, 다도, 가부키, 온천, 한국의 경우라면 갯 쓰고 도포를 입은 선비, 유교적 도덕, 판소리, 김치, 불고기 등 -- 대신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POP, 게임 등의 대중문화가 중심동력을 이루게 되었다.

네째, 한일간의 사회발전정도 및 세대간의 차이도 크게 좁혀졌다. 올림픽 개최년도의 차이(1964년 동경올림픽 및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보듯이 한일간에는 20-30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되기도 했으나, 한국측의 경제성장과 민주화, 문화적 개방, 정보화 및 전자제품시장에서의 약진에 힘입어 도시지역의 생활상은 크게 다를 바 없어졌다. 이는 사회의 식이나 문화상품의 소비와 관련된 취향의 면에서도 감지된다. 한국에서 TV를 중심으로 한 영상문화나 브랜드상품을 중심으로 한 소비문화의 세례를 대대적으로 받기 시작한 것은 베이비붐세대(1960년대 중반 전후 출생)이나 이들은 학생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세대이기도 하다. 그래서 일본의 동년배보다도 오히려 그 위의 ‘단카이세대’(1947-9년생, 1차베이비붐세대)의 감각이 통하는 면이 많다. 그러나 그 이후 80년대에 컬러TV 및 비디오, 음악CD 및 TV게임과 더불어 10대 성장기를 보낸 세대의 감각은 상당히 달라지며, 서울올림픽과 민주화를 거쳐 90년대 이후에 PC통신이나 웹사이트, 온라인게임과 더불어 성장한 세대들의 감각은 한국내의 윗세대보다 일본의 젊은 세대쪽에 훨씬 가까운 경향을 띠는 듯 하다. 결코 염가가 아닌,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와 관련된 각종 피규어상품에 매력을 느끼고 실제 구매하는 경향은, 이전에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현상이기도 하다.

다섯째, 한국측의 일본대중문화개방 및 일본에서의 ‘한류’붐을 계기로, 한일 모두 다량의 문화콘텐츠를 공급, 소비하고, 향유하는 관계가 되었다.²⁶⁾ 여기서는 공통의 매력적인 대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 혹은 차이의 유희가 중심이며, 자신 혹은 상대에 대해 각각 우월 혹은 열등의식을 갖는 면은 약하다. 적어도 문화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과거의 양국관계를 지배했던 심리적 비대칭성은 상당히 약화되고, 대등하고 개방적인 태도가 전면에 떠오르게 되었다.²⁷⁾

정보화 이전	정보화 이후
기술적·법제도적 제한	과학기술적 혁신과 규제 완화
국가간 문화교류 및 의사소통의 제한	국가간 문화교류 및 의사소통의 확대
소수, 엘리트주의적, 일시적, 부분적	대중적, 일상적, 다면적, 자율적, 무작위적, 비대면적, 비공식적, 자연발생적, 비정부적, 분산적

(이지원, 2006)

26) 물론 현대의 문화콘텐츠의 발전의 역사, 종류와 양 자체는 일본쪽이 압도적이다. 여기서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역사적 맥락에서 본 최근의 문화교류의 성격이다.

27) 가령 한국에서 축구한일전의 경우 전 시기의 ‘사생결단’적 관점에서 이제는 “(스포츠라는 것이) 질 수도 있지”라는 식으로 바뀌었고, 격투기의 경우에도 선수 개인의 대결이 부각되고 상대적으로 국가대항의 성격은 후

따라서 현 시기 양국문화교류는, 단지 문화상품, 문화산업의 경제적 수익성 증대라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역사 이래 드물게, 국가적 및 대중적 차원에서 우열관계나 경계/적대에서 벗어나, 의례적, 형식적 차원(‘다테마에’)에서가 아니라 상대방 및 그 문화문물에 대해 자연스럽게 매력을 느끼고, 그럼으로써 또한 상대를 대등하게 인정하고 존중하게 하는 기반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共感 -> 交遊, 共有 -> 共遊, 共友)

2) 남아있는 장애물

과거의 오랜 우열경쟁 및 적대에 대한 기억의 개입,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쟁점들, 새로운 내셔널리즘의 각축 구도 속에서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자아도취적 문화우월론. 이 자체는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한 최근의 문화교류 외부의 것이지만,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내면화되어 있어 별 것도 아닌 소재를 논의하다가도 순식간에 돌출한다.

a. 사례 1 네이버 인조이저팬의 퀴즈 -- “일본의 편의점에는 있고, 한국의 편의점에는 없는 것은?” -- ‘우열다툼’의 구도 돌출 (한국인 주도)

b. 사례 2 야후저팬게시판에서의 프리미어리거 박지성에 대한 논의 -- 갑자기 과거사로 돌출 (일본인 주도)

4. 앞으로의 전망 -- 다문화공존이나, 우열다툼이나?

한일양국관계의 역사를 돌이켜볼때, 적어도 문화분야에서는, 우열다툼의 차별적 구도나 적대와 무관심의 엇갈림에서 벗어나 상호존중-우호관계로 전환되었으며, 앞으로 더 확대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남은 것은 이를 더욱 안정적으로 공고히 하고, 마치 DNA에 내장되어 내려오는 유전병마냥 수시로 돌출하는 우열다툼 및 적대/무시 측면을 줄여나가는 것, 이를 통해 한일 양국, 나아가 동아시아의 공존공생의 기반을 확대해가는 것이다. 평화와 우호가 위협받지 않고, 완전하고도 확고한, 일상적 현실이 되는 것, 이를 위해 문화교류는 기여해야 하고, 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되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전 시기의 무관심에서 벗어나 스포츠에서 드라마, 영화에 이르기까지 기회있을때마다 한국의 정보를 쫓거나 직접 방문하는 애호가층이 형성되었고, 또 확산되고 있다.

<참고문헌>

- 고병익. 2005. “‘군왜(群倭)’와 琪花瑤草, 한일문화교류기금 편, 『되돌아본 한일관계사』, 景仁文化社.
- 신유한. 1979. 장상섭 역. 『海遊錄』, 正音社.
- 강 향. 2005. 이을호 역. 『간양록』, 서해문집.
- 박양신. 2005. “明治시대(1868~1912) 일본 삽화에 나타난 조선인 이미지”, 『정신문화연구』 2005 겨울호 제28권 제4호(통권 101호).
- 원중거. 2006. 김경숙 역. 『조선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 乘槎錄』, 소명출판.
- 이지원. 2005. “‘소프트파워’론과 일본의 ‘문화전략’”, 翰林大学校 日本学研究所 『翰林日本学』 제10집.
- 이지원. 2006. “한일간 새로운 문화접촉의 의의와 과제”, 제14차한일포럼(비공개회의).
- 요시다 유타카 2004 『일본인의 전쟁관』 역사비평사 (吉田裕, 1995 『日本人の戦争観』 岩波書店)
- 한배호. 1974. “韓國人の 日本観” 『韓日間の 相好理解』 亞細亞政策研究院.
- 한상일·한정선. 2006. 『일본, 만화로 제국을 그리다 - 조선병탄과 시선의 정치』, 일조각.
- 草柳大蔵. 1974. “日本人の韓国観” 『韓日間の 相好理解』 亞細亞政策研究院.

<신문 및 인터넷자료>

- 나의 삶 나의 도전 <제1화 ‘박치기왕’ 김일> 96회분, 『일간스포츠』 2006년 9월22일.
- 양원석. 2004. “명승부 - 한일전”, Red Devil(축구국가대표팀서포터즈클럽)웹진 칼럼
<http://www.reddevil.or.kr/webzine>
- 네이버인조이재팬 <http://enjoyjapan.naver.com/>
- 야후저팬게시판 <http://messages.yahoo.co.jp/index.html>

日韓文化交流の歴史と傾向¹⁾

イ・ジウォン（翰林大学）

1、議論の範囲と焦点

依頼を受けたタイトルは、本来「日韓文化交流の歴史と現況」だったが、あまりにも膨大なテーマであった。文化交流という概念は現代の国際関係の産物だが、文化という概念は人間の生活に関する全てのものを包括する。また歴史と現況とは、過去と現在を全て包括するものである。韓国と日本という対象も、最も狭く捉えれば1965年の国交正常化以降の大韓民国と日本を指すが、広く捉えれば古代以来の朝鮮半島と日本との関係までを範疇とする²⁾。本稿では、日韓文化交流を大きな歴史的な流れの中で展望するが、いくつかの印象的な事例を通じて主な傾向を把握し、現時代の文化交流の役割について展望する。

2、歴史を通じて見た日韓文化交流

韓国と日本は、海を隔てた最も近い隣国だ。武力を伴った対立もあったが、壬辰倭乱（文禄・慶長の役）と20世紀前半の日本による殖民統治を除けば、実際には平和な交流期間がはるかに長かったという点で、「近くて近い国」という解釈も可能だ。しかし隣接した国の間で、互惠的な交流と理解に劣らず、競争や紛争、固定観念と偏見が多いのは、人間の歴史の普遍的な経験でもある。そのため、日韓関係についても「近くて遠い国」という話が生まれたのだろう。

また経済や政治は、財貨や権力を対象にして利益争いをする分野だが、文化といえど何か軟らかく、楽しくて対立のない領域と考えられる。あるいは、違いと対立を乗り越えて、異質な要素を共存させて統合する効果を持つ側面がある。しかし、このような機能だけが全てではなく、むしろ経済や政治分野以上に妥協のできない衝突の場になりうる二面性を持つという点を認識する必要がある。

日韓両国の歴史を振り返っても、こうした点を確認できる。戦乱のような極端な形の対立を除いても、優劣争いの傾向、文化的な領域での対立の様相を見出すことができる。

1) 前近代の事例：朝鮮通信使と儒教的優劣関係

1) 行事発表用に作成された未完成の論文であるため、筆者の同意なしに引用することは控えてください。

2) 本稿で「日韓」という表現は二重に使用される。すなわち、広くは有史以来の朝鮮半島と日本列島の双方を指すと同時に、狭くは1965年の国交正常化以降の大韓民国と日本を指す。

伝統社会で日韓の友好善隣的な文化交流の代表的なシンボルとしてたびたび議論される朝鮮通信使の事例を見てみよう。

朝鮮通信使は幕府の要請により、日本側の最大限の待遇を受けて行われた例で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互いに礼節上の格式の問題をめぐって緊張した折衝を行うことも多かった。往来の途中で各藩の役人と会うこと、相互の贈り物、各種儀礼の進行、接待を受ける飲食物の種類などについて互いの意見が合わない場合が問題であった（コ・ビョンイク、2005, 92-93）³⁾。しかし、このようなささいな格式の問題よりも、他文化を見ると、当時の儒教的世界観に基づいた文化的な異質感がさらに鮮明に現れた。

使節の行列を見物している群衆の中で、男女が互いに愛情表現をしても全く恥じるそぶりがないこと。都市の娼楼で妓女が恥ずかしい姿で嬌態を見せて客引きする姿。いとこ同士でも男女が結婚し、兄が死ねば弟がその嫁を妻とすること。こうしたことに対して、儒教的礼節と倫理を体現したソンビ（学者）の観点では「淫穢之行、便同禽獸」（申維翰, 1719=1979）と表現するしかなかった。

そして、高麗とは異なり、仏教を抑圧して朱子学が優位を占めていた当時の体制から見ると、日本人の宗教世界は、全国に神社や仏寺が無数にあり、人々が各種の霊や鬼を非常にあがめることから、家族や国家の儀礼も水準が低いとみなされ、「禽獸之域」と極言されることもあった⁴⁾。

また、日本の呼称は伝統的に「倭」が使われたが、朝鮮では壬辰倭乱（文禄・慶長の役）を経たことで一層強い憎悪・侮蔑の意が込められるようになり、通信使もこうした表現を貫いた。そこには、日本の風習が儒教的な礼儀作法から外れるという価値判断も強く働いた。使節の記録に日本という表現が登場することはほぼ皆無で、倭人、倭船、倭館、倭学、差倭などと表記されている。前もって通信使が日本に入るときに使節の通訳員に日本人をむやみに蔑視・嘲笑しないように注意し⁵⁾、対馬の有名な儒学者、雨森芳州が申維翰に倭人と呼ばずに日本人と呼ぶようにしてほしいと抗議もしたが⁶⁾、卑称は依然として続いていた⁷⁾。

3) 1つの事例として、己亥年（1719）の通信使で製述官（典礼文作成官）として訪れた申維翰は、通信使の最初の目的地である対馬の府中で領主の招待を受けたとき、領主とどのように礼をするのかという前例を信じることができないと言い、そのように礼を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固執したため、ついに領主は現れず彼も帰ってしまったという出来事がある。（『海遊録』己亥年6月31日條、申維翰、1979:42-45, 48-51）

4) 例えば、光海9年（1617）の通信使で従事官として訪れた李景植が京都にいたとき、41歳で位を譲った天皇の父が前夜49歳で死去したが、挙哀（発喪）もせず、官職者も一度訪れて弔問し焼香しただけであり、関白も訪ねて行く礼儀がなかった宮中で1日喪に服するだけだったため、その「禽獸之域」ぶりは、こうしたことから分かったと言った。（『扶桑録』8月27日條。）

5) 趙曦『海槎日記』筵話8月初3日初、コ・ビョンイク、2005, 95-96 再引用。趙曦は1764年に江戸幕府の10代將軍・徳川家治の將軍就任を祝う通信使として日本を訪れ、サツマイモの種を持ち帰って韓国で初めて栽培を始めた人物でもある。

6) 『海遊録』附見聞雜錄。

7) 申維翰はこのような抗議を受けたが、姜沆の『看羊録』の表現を引き継ぎ、本人の紀行文『海遊録』でも日本の

もちろん当時の人々も、日本に対して単に否定的な認識だけを持っていたのではなく、日本を紀行して日本の官舎、神宮、寺院の建物が素晴らしく華麗で、民家も累層構造で清潔だと繰り返し話しており、寺院や邸宅の美しい庭園には名も知れぬ「琪花瑶草（美しい草花）」が育てられていると感嘆している。汚いものはすぐに畑に埋めてしまうので、暑い夏でもハエや蚊が少ないと驚き、人が入って横になれる蚊帳を張ること、通りに公衆浴場があつて金を払って入ること、民家にも便所のそばに浴場があつて用を済ませた後で洗うことなど、清潔さにも深い印象を受けている。また、朝鮮通信使一行が通り過ぎるのを見るために大阪、京都、江戸などの大都市では多くの見物者が道の両側で見物したが、多くの場合、何十万と推測される人々が殺到しても皆が沈黙して騒ぐ者がいないこと、高麗人参や絹などの「公私礼単（公的・私的な進物）」を江戸に託送したが、失われたものが一つもないことから、規律と秩序が素晴らしいと感服している。そして、度量衡が全国的に統一されており、家の障子や畳も全て規格化されていることなど、日本文化の優れてた点について感嘆もした⁸⁾。

しかし全般的に、朝鮮では儒教文化の発達を固定基準として前近代東アジア世界帝国の位階秩序の中での優越性を確認したり相手を見下したりして、極端な場合には、人間と「蛮夷」あるいは「禽獣」という認識まで登場するなど「文明対野蛮」という枠を用いた⁹⁾。日本では、日本なりに立派な建物などを観覧させて、日本の富と武威と技芸を対内外的に誇示¹⁰⁾したり、「文化的劣等意識」の代わりに壬辰倭乱（文禄・慶長の役）によって確認された「軍事的優越意識」で対抗しようとした¹¹⁾。これが、当時の雰囲気であった。

2) 近代の事例：日本の帝国主義化と近代的優劣関係

欧米列強によって世界の大部分の地域が植民地化される中、非常に珍しい例として日本は独立の維持と自力による近代化に成功し、自らが帝国主義化した。近代の世界体制を主導した欧米にならうため「脱亜入欧」という方向に進み、他のアジア諸国に対しては近代文明の中継者・伝播者であり支配者としての位置を固めるようになった。日韓の文化的関係も、このような時代の転換を迎えて大きく変わった。前近代的交流から近代的交流に変わり、「文明対野蛮」という内容と位置付けも変わった。儒教文明において「先進的」であることを自負し、小中華の優越感を享受してきた朝鮮

人々を指して衆人、諸人と言える内容について、ほぼ常に衆倭、諸倭、群倭という呼称を使い続ける。これは群犬や群牛のように獣とみなして呼称した表現で、『海遊録』を読んだ日本人の読者を驚かせたと言う。（司馬遼太郎、『長安から北京まで』1976:113. コ・ビョンイク, 2005:96 再引用）

8) コ・ビョンイク, 2005 : 103-107 参照

9) 儒教的基準の中ではあるが、優劣の枠を越えて儒教文明を共有しようとする見解も見られた。ウォン・ジュンゴ, 2006 参照.

10) コ・ビョンイク, 2005 : 99-103 参照

11) ハン・ベホ, 1974 : 18 参照.

に代わって、西欧近代文明を先に受け入れて吸収した日本が優位に立つことになったのだ。

丙子修好交条約（江華条約）以降、朝鮮で倭という呼称を公式になくして日本に転換したのは、こうした両国関係の転換を象徴するものであり、近代的「文明開化」の尺度で日本から見た朝鮮がむしろ「野蛮」に映り、近世の日韓関係とは性格が完全に逆転した。

特に日本は、清との戦争に至る過程と戦争自体を「文明談論」で正当化した。文明の競走で先んじた日本は、福沢諭吉が定義する「半開」の状態にとどまっていた隣国を文明の境地に導くためには戦争も辞さないということだった。すなわち日本は文明であり、清と朝鮮は野蛮という構図が設定され、日清戦争は「世界文明のための戦い」すなわち「文明対野蛮」の戦争と規定されたのだ¹²⁾。

例えば、明治の日本人の朝鮮人に対するイメージを見ると、初期（1880年代中盤）には朝鮮人を見た日本人はごく少数に過ぎなかったため、日本人の変形、中国風の衣装など実物とはかけ離れた姿が描かれた。しかし1890年代に入り、特に日清戦争以降は、汚く怠け者で愚かで無気力というイメージで象徴され、「遅れた」文明の人々という意味を伝えるようになる。このようなイメージの一次的な根拠は、朝鮮の旅行記だった。旅行記の中から共通して抽出される朝鮮人のイメージは、汚くて怠け者で無気力、不正腐敗に苦しむ哀れな人間というものだった。道にあふれる人糞とその悪臭、主に居酒屋で目撃される女主人の不潔な手と汚れた台所は、どの旅行記にも見られる決まり文句であった。また、長いものでは3尺にもなる長いキセルは、怠け者の象徴であり、することもなく道端でだらだらと過ごしたり昼寝をする姿は、朝鮮人の無気力さを表すと説明された。

「…最も下等な生活をする者は、唾具（痰つぼ）と便器（尿瓶）を一緒に使う。その不潔さは、とうてい言葉では表せない」¹³⁾

「いくら清潔なものと汚いものを区別しない国風とはいっても、彼らが未開国であることを嘆かざるをえない」¹⁴⁾

「（朝鮮人は）まだ綿密な注意を要する文明の利器を扱うほど知能が発達していない。もともと不潔さは、低能、無神経、愚鈍さから発生するのだ」¹⁵⁾

このような解釈は、朝鮮に対する差別的なイメージを大々的に作り出すと同時に、文明国としての日本を正当化して自負を持たせた¹⁶⁾。

12) “直ちに北京を衝く可し,” 『時事新報』 1894. 8. 5. 『福沢諭吉全集』xiv, 500ページ ; ハン・サンイル、ハン・ジョンソン, 2006 : 84 再引用.

13) 米山人, ‘朝鮮人の風俗略解’ 『風俗画報』77 (1894. 9. 10) , 6ページ ; パク・ヤンシン, 2005, 320 再引用

14) 福岡袖浦, ‘両班酒宴の図解’ 『風俗画報』99 (1895. 9. 10) , 6ページ ; パク・ヤンシン, 2005, 320 再引用

15) 『朝鮮漫画』 79ページ ; パク・ヤンシン, 2005, 324 再引用

以後、朝鮮半島を植民地化して統治したのは、政治・軍事のおよび経済的な利害関係だけでなく、このような近代的文明観に立った優劣関係の産物でもあった。したがって、植民統治期間の文化活動・交流行為も、このような優劣感を日本と朝鮮双方で再生産する傾向を帯びざるをえなかった¹⁷⁾。

その結果を象徴的に物語っているのが、第2次世界大戦で日本が敗戦し、朝鮮が35年間の植民統治から脱した時期である1945年12月に行われた調査だ。北京在住日本人385人を対象に米国国務省調査分析局が実施したアンケート調査で、「日本国民は他の極東の国民より優れている」という問いに対して肯定が86%、「日本民族は世界のあらゆる民族より優れている」という問いに対して肯定が41%、否定が49%、そして「朝鮮は、少なくとも20年間は独立するほどの準備が整わないだろう」という問いに対して肯定が77%、否定が14%という回答が得られた（吉田, 2004:65）。これは、福沢諭吉が目標にした「未開」の隣人に対する「文明」の伝播の結果が、実質的な「未開」の「文明化」および対等な関係の形成でなく、「文明対野蛮」の拡大・再生産および自己陶醉という実に皮肉なものであることを物語る回答とすることができる。また、そうした「文明」伝播の方式（すなわち当時の文化交流の方式）の本質をうかがい知ることのできる回答とも言える。

3) 現代の事例：「反日」と「無関心」の「すれ違い」

第2次世界大戦以降に独立した韓国と、「戦後改革」および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を経て新しく誕生した日本には、それ以前の時期を支配していた「優劣関係」に基づく非対称的な文化交流から脱却し、新しい関係を構築する機会が与えられる可能性もあった。しかし少なくとも半世紀ほどは、そうした機会が与えられないまま、文化的な接点と共感を形成できない「すれ違い」の時期が続いた。

(1) 韓国：それまでの蔑視に対する反発と部分的な日本文化の受け入れ

①国家的反日—文化の領域にも反映

大衆文化は禁止。スポーツ交流にも影響。

a. 事例：1954年スイスワールドカップ・アジア地域予選

予選は「ホーム&アウェー」方式で行われたため、日本選手は韓国に入国しなければ

16) これは、西洋で構築された「野蛮」談論と酷似した内容であり、挿絵や画報、写真によって大衆的に普及した。バク・ヤンシン, 2005, 327.

17) こうした例から外れる代表的なものが、柳宗悦などであろう。しかし、柳宗悦も「現在」より「伝統文化」に朝鮮の価値を見出して賞賛し、「文化的独立」の意義と同時に「政治的独立」の無用性を語ったという点で限界もうかがえる。

ばならなかった。しかし、反日感情に加えて、日本との国交もなかった。その上、李承晩大統領は日本人の入国を禁止していたため、日本人が韓国に入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こうした状況なら、日本と韓国の試合は成り立たない。韓国選手が日本に行くだけでも不愉快に思う雰囲気だったと言う。「スポーツと政治は別だ」という論理が、当時の李承晩大統領には通じなかったのだ。在日韓国人の士気を高めるなど、様々な肯定的な影響を前面に掲げ、在日体育会の泣訴が受け入れられた結果、韓国代表チームは日本に行くことができた。結局、日本との2試合は、全てアウェーで行うしかなかった。このとき「日本に負ければ、玄海灘（大韓海峡）に身を投げろ」という李承晩大統領の言葉が伝えられた。当時のイ・ユヒョン代表チーム監督は、驚いたが「必ず勝って戻る」と返事したと言う。選手は「必ず勝ってみせる」という負担を感じ、このときから現在まで日韓戦のどこかに「他の国はともかく、日本には無条件で勝た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負担が残っている（ヤン・ウォンソク、2004）。

b. 事例：レスラー、金一（日本名、大木金太郎）の回顧（1970年代の回想）

「私は（アントニオ猪木とジャイアント馬場の）2人に多くの借りがある。ギャランティーだけの問題ではない。2人は韓国で試合をして、本当に多くの精神的な苦痛を味わった。今は反日感情が少ないが、2人が韓国で試合をしたときは、反日感情が深刻だった。2人は『大木先輩。韓国で試合をすると、自分が韓国を侵略して植民地化した張本人と烙印を押される気分だ』と言って、首を横に振ったこともある。一度はこうも言った。猪木に『なぜ、ご飯を食べないんだ？』と言うと、彼は『韓国の人の罵声をあまりにもたくさん浴びて、おなかがいっぱいだ』とトゲのある冗談を言った。そうなのだ。韓国のファンは、日本の選手をまるで悪魔でも見るように接した。そして、私が必ず彼らを負かすことを望んだ。頭突き一発で馬場や猪木がひっくり返ると、ファンはとても痛快に思った。ファンは、私の頭突き一発で、日本の強制支配で積もった鬱憤を晴らしていたのだ。馬場と猪木は、そうした点で、韓国でだけは私の犠牲になった…」¹⁸⁾

②部分的な日本文化の受け入れ

1950年代のアジア映画祭――弁当を持って集まった老人。

1960年代末の「ブルーライト横浜」――近所の電気店の電蓄。

1980年代の「恋人よ」、長渕剛（乾杯、RUN）――露天（路上のリヤカー、俗称「キル（道）ボード」）で広く流通¹⁹⁾。

18) 私の人生、私の挑戦〈第1話「頭突き王」金一〉96回分、『日刊スポーツ』2006年9月22日。

19) 公式に禁止されたものは、商業的封切り映画、テレビ番組（ドラマ、ショーなどの娯楽物）、日本語歌唱、日本語演劇などだった。

その他に、図書・雑誌、漫画、テレビアニメーション、ゲームなどは、公式的・非公式的に流通。

しかし、1960年代の419世代（1960年4月19日に頂点に達した学生による反腐敗・反政府運動に参加した世代）、63世代（1963年に日韓国交正常化に反対した世代）――反日世代、ハングル世代。「反日感情」が個別的な文化交流の必要よりも優位に立った時代。

（2）日本：韓国（およびアジア）への無関心

①無関心あるいは蔑視の残存

「戦後」の時期を経て、前述した日本人の優越論のような強い帝国意識は弱まったが、韓国およびアジアへの無関心という形に姿を変えて存続している。もちろん、その内部には意識的・無意識的な蔑視も残存している（在日朝鮮韓国人差別などの形で表出）。

例えば、1956年8月13日付の『日本読書新聞』第861号では、読者を対象に「戦争の記憶」に関する大々的なアンケート調査を行った。性格上、「進歩的」と評価されるインテリ層の読者が多かったにもかかわらず、過去の戦争に対する評価の「支配的な見解は『侵略戦争』観」だったが、戦争の責任問題への関心は日本国内の責任追及問題に集中しており、181の回答の中で「アジア民族への侵略責任に言及したもの」は2つに過ぎなかった（吉田, 2004:111）。

また1965年の国交樹立時にも、（韓国の反対運動は）日韓の国交回復の前提として日本の謝罪・賠償が先に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内容だったが、（日本は）日韓基本条約の批准に賛成する側も反対する側も、過去の植民支配に対する反省が欠如²⁰⁾した状態であった。

②一部の関心、大衆的魅力的欠如

一部の日本人は前近代的「郷愁」の対象、あるいは「東洋文化の最後の倉庫」²¹⁾という観点から、あるいは隣国を知る必要があるという責務から、韓国文化に関心を傾けた。しかし伝統文化は別としても、大衆文化の場合、コンテンツの多様性と魅力の面で限界が大きかった。ある日本の映画評論家によれば、「80年代に日本に紹介された韓国映画の主演男優は、全てアン・ソング」だったとの話があるほどだ²²⁾。文化商品の単純さ、図式性、独裁下の文化的規制などによって、ソフトパワーを発揮するに

20) 松尾, 1993 ; 吉田, 2004 : 130 再引用.

21) 草柳, 1974 : 47.

22) 韓国映画製作者および評論家協会主催シンポジウム, 2003?.

は限界が大きかったと言わざるをえない。

要するに、植民統治が終わった20世紀の後半は、以前の「優劣関係」、「支配・被支配関係」から脱する機会だったが、過去の歴史と相手国に対する反応が、韓国では積極的な反日感情として表出し、日本では回避・無関心として表出したのである。こうした流れの中で、1965年の国交正常化以降、経済協力と政治・軍事的連帯は形成されたが、文化交流は政治や経済関係に比べて相対的に軽視された。また、韓国の海外旅行自由化²³⁾が行われるまでは人的交流も制限されるしかなく、相手国の情報を得るメディア環境についても制約が大きかった。前近代社会とは異なり、現代社会の文化交流では文化商品の役割が非常に大きくなったが、日本の大衆文化や文化商品を政策的に輸出しようという日本側の意志は強くなく²⁴⁾、韓国も外部の文物を全面的に受け入れるには制度的な障壁があった。そして、韓国の大衆文化や文化商品は、国外で好評を博するほどの多様性と魅力を欠いていた。したがって、大衆的なレベルで両国の文化的・情緒的な共感が形成されるのは難しかった。一言で言うと、「すれ違い」の時代であった。

3、最近の日韓文化交流：違いの享有、共感、共有

民主化と海外旅行自由化などによって前時代の制約がなくなり、90年代のポスト冷戦、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情報化が進んだことで、国際文化交流は量的・質的に大きく発展した。それまでとは違い、政府レベルの交流を越えた民間交流が活発になるなど「交流の多次元化」、また東アジアレベルですでに広がっていた日本大衆文化に「韓流」が加わり、国家間の共同制作作品も増えるなど「文化の発信地・発信者の多様化・混成化」が進んだ。それによって、「文化」は単に政治・経済的システムの「装飾物」ではなく、政治・軍事的確執と経済的競争を越えた新しい共有資産として、また「文化交流」は様々な集団の分裂と対立を緩和・解消する処方として、新しい意味付けがされている。このような意味の変化は、言語および象徴レベルの変化、あるいは一部の主観的希望事項に限定された変化ではなく、実質的に他者への関心が大きくなり、他文化を理解して受け入れる感受性が啓発されるなどの現実的進展に基づいている（イ・ジウオン、2005.）。日韓の文化交流も、量的・質的に飛躍的に発展した。

1) 日韓文化交流の量的・質的発展

23) 韓国は1989年に実施された。日本は1964年。

24) 第2次世界大戦以降、日本は米国中心の国際秩序に強力に編入され、アジアとの関係はいったん断絶した。国際交流を再開した段階でも、日本のアジア外交は、主な侵略地だった北東アジア地域を避けて、東南アジアを中心に展開し、過去の日本の帝国主義支配を連想させる文化的側面よりも経済に焦点を合わせた。このような文化的消極性は、日本の国内でも現れた。第2次世界大戦以前の行き過ぎた国家介入の弊害への反動から、文化分野への政府の介入は弱まり、文化産業に対する政策もUNESCOの報告書に「純粹自由主義戦略」と分類されるほど民間市場の自主性に任せる方向に進んだ。（イ・ジウオン、2005）

量的な面の推移を一目で知ることができる観光統計を見ると、様々な要因によって短期的な起伏はあるが、両国を訪れる人的交流は着実に増え、年間400万人というレベルになっている。これは陸路交通のない国同士の交流としては、世界でも非常に多いレベルだと言えるだろう。

＜韓国への日本人入国者＞

年度	入国者数（人）	成長率（%）
2005	2,439,811	-0.13
2004	2,443,070	35.5
2003（新型肺炎）	1,802,171	-22.3
2002	2,320,837	-2.4
2001	2,377,321	-3.8
2000	2,472,054	13.2
1999	2,184,121	11.8
1998	1,954,416	16.6
1997	1,676,434	

＜日本への韓国人出国者＞

年度	出国者数（人）	成長率（%）
2005	1,739,425	10.8
2004	1,569,175	9.9
2003	1,435,959	9.3
2002	1,266,116	8.3
2001	1,169,620	6.2
2000	1,100,939	4.5
1999	1,053,862	28.2
1998（アジア通貨危機）	822,358	-27.0
1997	1,126,873	

資料出所：韓国観光公社「韓国観光統計」

このような人的交流の拡大と共に交流の主体も多様化し、各種文物の交流も増加したが（詳細な内訳は省略）、さらに重要なのは質的な面であろう。

このような点で、過去の歴史と比べることができる最近の日韓文化交流の特徴を取り上げてみたい。

第一に、有史以来初めて交流の幅と機会が、制約のほとんどない状態で開かれている。大衆的な交通・通信の発達と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によって現実的・制度的な国境が希薄になっただけでなく、最近の情報化と共に外国語を知らなくても、その国に行かなくても、その国に知人がいなくても、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して交流できるようになった²⁵⁾。(商品購入も同じ-インターネット購入および競売代行サイトの事例)

第二に、文化相対主義的な認識および感覚が非常に広がり、一般教養化されたことで、違いに基づいた偏見や排除、優劣の構図の形成という傾向が大いに弱まった。

第三に、両国のイメージにおいて、文化産業による大衆文化商品の占める割合が急速に増加した。一世代前の各国のイメージを導いた「伝統文化」--例えば、日本の場合は、生け花、芸者、侍、茶道、歌舞伎、温泉。韓国の場合は、笠をかぶって礼服を着たソンビ(学者)、儒教的道徳、パンソリ(民俗楽)、キムチ、焼き肉など--に代わって、映画、漫画、アニメーション、POP音楽、ゲームなどの大衆文化が中心的な原動力になっている。

第四に、日韓の社会発展の程度および世代間の差も非常に縮まった。オリンピック開催年度の差(1964年東京オリンピック、1988年ソウルオリンピック)からも分かるように、日韓の間には20~30年程度の差があるとも言われたが、韓国の経済成長と民主化、文化的開放、情報化、電気製品市場での躍進に後押しされ、都市地域での生活は大きな違いがなくなった。これは社会意識や文化商品の消費に関する嗜好の面でも見られる。韓国でテレビを中心にした映像文化やブランド商品を中心とする消費文化の洗礼を大々的に受け始めたのはベビーブーム世代(1960年代中盤生まれ)だが、彼らは学生運動をはじめとする社会運動世代でもある。そのため、日本の同年輩よりもむしろその上の「団塊世代」(1947~9年生まれ、第1次ベビーブーム世代)と感覚的に通じる部分が多い。しかしその後、80年代にカラーテレビ、ビデオ、音楽CD、テレビゲームと共に10代の成長期を過ごした世代の感覚は大きく変わった。そして、ソウルオリンピックと民主化を経て、90年代以降にパソコン通信やウェブサイト、オンラインゲームと共に成長した世代の感覚は、韓国の上の世代よりも日本の若い世代には

25) 情報化以前と以後で、国家間の交流の性格は大きく変わった。

情報化以前	情報化以後
技術的・法制度的な制限	科学技術的革新と規制緩和
国家間の文化交流・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制限	国家間の文化交流・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拡大
少数、エリート主義的、一時的、部分的	大衆的、日常的、多面的、 自主的、無作為的、非対面的、非公式的、 自然発生的、非政府的、分散的

(イ・ジウオン、2006)

るかに近い特徴を帯びる。決して安くないアニメーションや漫画の各種フィギュア商品に魅力を感じて実際に購入するのは、以前にはほとんど見られなかった現象でもある。

第五に、韓国の日本大衆文化開放および日本での「韓流」ブームを契機に、日韓両国は多量の文化コンテンツを供給・消費し、享有する関係になった²⁶⁾。ここでは、共通の魅力的な対象に対する共感の形成、あるいは違いの遊戯が中心であり、自分あるいは相手に対して優越や劣等の意識を持つことは少ない。少なくとも文化的な領域においては、過去の両国関係を支配していた心理的な非対称性は非常に弱まり、対等で開放的な態度が前面に現れるようになった²⁷⁾。

したがって、現時期の両国の文化交流は、単に文化商品・文化産業の経済的収益性の増加という点でだけでなく、有史以来まれなほど、国家的・大衆的レベルで優劣関係や境界・敵対から脱却し、儀礼的・形式的レベル（建前）ではなく、相手とその文化・文物に対して自然に魅力を感じ、それによって相手を対等に認めて尊重する基盤を構築しているという点で、その意義に注目する価値がある。（共感 → 交遊、共有 → 共遊、共友）

2) 残りの障害物

過去の長きに渡る優劣競争および敵対の記憶の介入、忘れたところに繰り返される争点、新しいナショナリズムの角逐構図の中で静かに頭をもたげる自己陶酔的な文化優越論。これら自体は、大衆文化を中心にした最近の文化交流の外にあるものだが、無意識的なレベルで内面化されており、何でもない素材について議論をしても瞬時に出現する。

a. 事例1：ネイバーエンジョイジャパンのクイズ―「日本の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にはあって、韓国の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にはないものは？」―「優劣の争い」の構図の出現（韓国人が主導）。

b. 事例2：ヤフージャパンの掲示板でのプレミアリーグ、パク・チソン選手に関する議論―突然、過去の歴史が出現（日本人が主導）。

26) もちろん現代の文化コンテンツの発展の歴史、種類や量は、日本が圧倒的だ。ここで焦点にするのは、歴史的な意味で見た最近の文化交流の性格だ。

27) 例えば、韓国でサッカーの日韓戦は、前時期の「生死をかけた」ような観点から、今は「（スポーツは）負けることもある」というふうになり、格闘技も選手個人の対決が焦点となって、相対的に国家対抗という性格は後退した。また日本は、前時期の無関心から脱して、スポーツからドラマ、映画まで、機会があるごとに韓国の情報を追いかけたり韓国を訪れたりする愛好家層が形成され広がっている。

4、今後の展望—多文化共存か、優劣争いか

日韓関係の歴史を振り返ると、少なくとも文化の分野では、優劣争いの差別的な構図や敵対・無関心のすれ違いから脱却して、相互尊重・友好関係に転換し、今後さらに拡大する可能性が十分にある。残っているのは、これをさらに安定的・強固にし、まるでDNAに秘められて伝えられる遺伝病のように随時出現する優劣争いおよび敵対・無視を減らしていくことである。これを通じて、日韓両国ひいては東アジアの共存・共生の基盤を拡大していくのだ。平和と友好が脅かされることなく、完全で確固たる日常的現実になること、このために文化交流は貢献しなければならず、貢献するはずである。

<参考文献>

- コ・ビョンイク. 2005. " '群倭' と琪花瑶草, 韓日文化交流基金編, 『振り返って見た韓日関係史』, 景仁文化社.
- 申維翰. 1979. チャン・サンソプ訳. 『海遊録』, 正音社.
- カン・ハン. 2005. イ・ウルホ訳. 『看羊録』, ソヘ文集.
- パク・ヤンシン. 2005. "明治時代(1868~1912)の日本の挿絵に現れた朝鮮人のイメージ", 『精神文化研究』 2005冬号第28巻第4号(通巻101号).
- ウォン・ジュンゴ. 2006. キム・ギョンスク訳. 『朝鮮後期の知識人、日本と出会う乗槎録』, ソミョン出版.
- イ・ジウォン. 2005. " 'ソフトパワー' 論と日本の '文化戦略' ", 翰林大学日本学研究所『翰林日本学』第10集.
- イ・ジウォン. 2006. "韓日間の新しい文化接触の意義と課題", 第14回韓日フォーラム(非公開会議).
- 吉田裕 2004 『日本人の戦争観』歴史批評社(吉田裕, 1995 『日本人の戦争観』岩波書店)
- ハン・ベホ. 1974. "韓国人の日本観" 『韓日間の相互理解』 亜細亜政策研究院.
- ハン・サンイル、ハン・ジョンソン. 2006. 『日本、漫画で帝国を描く-朝鮮併呑と視線の政治』, 一潮閣.
- 草柳大蔵. 1974. "日本人の韓国観" 『韓日間の相互理解』 亜細亜政策研究院.

<新聞およびインターネット資料>

- 私の人生、私の挑戦 <第1話「頭突き王」金一> 96回分, 『日刊スポーツ』2006年9月22日.
- ヤン・ウォンソク. 2004. "名勝負-韓日戦", Red Devil (サッカー国家代表チーム・サポーターズクラブ) ウェブマガジン・コラム <http://www.reddevil.or.kr/webzine>
- ネイバーエンジョイジャパン <http://enjoyjapan.naver.com/>
- ヤフージャパン掲示板 <http://messages.yahoo.co.jp/index.html>

발 표 Ⅱ
発 表 Ⅱ

한국의 일본문화수용, 일본의 한국문화수용

韓国の日本文化受容、日本の韓国文化受容

◎ 하야시 나츠오 도야마대학 조교수
林夏生 富山大学助教授

제 2 주제
第2テーマ

한일 문화수용의 현황
日韓文化受容の現況

- ◎ 이창현 국민대학교 교수
 イ・チャンヒョン 国民大学教授

- ◎ 하야시 카오리 동경대학교 대학원 정보학환 조교수
 林香里 東京大学大学院情報学環助教授

발 표 I
發 表 I

東아시아 시대, 韓日간 문화교류의 현황과 상호인식

- 韓流 전후와 韓日간 비교 -

東アジア時代、日韓文化交流の現況と相互認識

- 韓流前後と日韓比較 -

◎ 이창현

국민대학교 교수

イ・チャンヒョン

国民大学教授

東아시아 시대, 韓日間 문화교류의 현황과 상호인식
-韓流 전후와 韓日間 비교-

이창현(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1. 東아시아, 文化交流, 그리고 탈근대성

동아시아 근대화과정에서 서구문화의 수용은 동아시아 사회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왔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메이지(明治)유신 이후, 아시아의 '後進的'인 문화를 서구의 '先進的' 문화로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를 통해 '脫亞入歐'를 지향하는 근대 일본의 정체성을 만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한국, 중국 등과 함께 동아시아 고유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이것을 부정하면서 서양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강상중, 1997). 서구문화의 수용은 서구사회를 단선적 발전모형의 목표로 삼으며 이를 모방하려는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중요한 문화적 토대가 되었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 사람들은 '前近代的 農民'에서 서구사회의 '近代的 市民'으로 거듭나고자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할리우드 문화산업을 바탕으로 문화와 미디어를 통한 세계지배(문화제국주의, 미디어제국주의)체제를 이룩했으며, 冷戰體制 속에서 문화는 이념적 색채를 강하게 띠게 되면서 블록화 되었다. 해방이후 한국은, 理想的 차원에서 中國과의 文化交流가 금기시되었고, 政治的 차원에서 植民 宗主國이었던 日本과의 文化交流 역시 금기시되었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의 문화교류 대상 국가는 주로 美國이었다. 한국에서는 이 시기 일본과의 문화교류가 전면적으로 금기시 되었지만, 비공식적으로 미국 이외의 국가 중 가장 중요한 문화적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 역시 일본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문화가 서구문화를 가장 잘 모방한 문화라고 할 때 한국의 국제문화교류는 서구적 문화(이른바 선진문화)의 수용으로 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난 세기 西歐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용해왔던 동아시아 문화수용을 '近代的文化交流'(the modern cultural flow)'의 틀로 설명해볼 수 있다. 근대적 문화교류와 그 수용은 궁극적으로 西歐中心主義(강정인, 2004)를 유지시키는 문화적인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자율성(cultural autonomy)을 약화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유선영(1997)은 한국에 있어서 서구문화의 수용이 아메리카나이즈드 모더니티(americanized modernity)를 형성시켰고 이것이 서구우월주의와 자신에 대한 인종적 열등감, 그리고 자기전통의 부정으로 이어지는 문화인식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20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국제문화교류의 구조에는 큰 변화가 나타난다.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중국이 개방과 개혁의 길을 걷게 되고, 한국이 경

제성장을 통해서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동아시아가 서구문화의 일방수용에서 벗어나는 큰 변화를 보여준 것이다. 새롭게 나타난 변화의 양상은 무엇보다도 문화적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던 미국중심의 서구문화 지배체제가 도전을 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지난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까지 동아시아는 일본의 만화, 게임 그리고 대중가요 등이 급속히 확산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흐름은 日潮 (Japanese Wave)라고 불릴 수 있는 것으로, 초기에는 일본 스스로도 아시아 문화시장의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지만, 日本의 國家主導的 文化擴散의 의도와 맞물리면서 더욱 확대되었다(이와부치, 2004). 그런데, 1990년대 후반 이후, 日潮는 약화되었고 동일한 지역에 한국문화의 소비열풍, 즉 韓流 (Korean Wave)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한류는 중국, 몽골,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근대 서구문화의 수입창구였던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림 - 1> KBS 미니시리즈 겨울연가

그리고 최근 들어 한국과 일본에서는 華流 (Chinese Wave)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되고 있다. 이것은 서구의 것은 우등하고 자신과 주변의 문화는 열등하다는 발상에서 비롯되어 일방적으로 서구문화만을 쫓아왔던 동아시아의 근대적 문화흐름과는 상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시아 국가 간 문화수용의 기본틀은 "脫近代的文化 교류 (the post modern cultural flow)"의 틀로 파악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기존의 지배적 문화교류의 흐름을 대체하기 보다는 기존의 문화교류 흐름과 공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현황을 살펴보자면 과거의 근대적 서구 문화수용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탈근대적인 아시아 주변 문화수용의 패턴과 공존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과 일본에는 近代的文化交流과 脫近代的文化交流가 雜湯(또는 비빔밥)이 되어 함께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이창현, 2005).

<표 - 1> 東아시아 文化交流의 기본양식

近代의文化交流(脫亞入歐) 'the Modern' cultural flow	脫近代의文化交流(脫歐入亞) 'the Post-modern' cultural flow
西歐(미국) 單一中心指向	多中心指向
文化的 同質化	文化的 多樣化
文化的 位階(先進文化 vs. 後進文化)	文化的 平等
文化 進化論	文化的 多樣性
單線的 文化흐름	多元的 文化흐름
西洋文化가 아시아문화로 유입	아시아 文化圈 內에서의 흐름강화
一方的 커뮤니케이션	兩方적 커뮤니케이션
中心에서 周邊으로	周邊 間
被動的 受容者	積極的 受容者

(이창현, 2005)

현재, 한국의 방송 드라마는 아시아 일반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일본의 많은 수용자들은 겨울연가(Winter Sonata)와 같은 한국드라마를 즐겨 보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의 문화상품을 구매하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삼계탕이나 갈비 등 한국 음식을 즐긴다. 한편, 동경 신오쿠보에서는 한국문화상품을 판매하는 지역으로 탈바꿈 하면서 동경 내 韓國文化地帶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 脫亞入歐를 내세우며 서구적 근대화를 진행해왔던 지난 세기 일본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것이다. 오늘날 나타나는 脫歐入亞의 문화수용의 단초는(아직 전면적이지도, 일반적이지도 않지만) 서구문화의 수용에 따라 자신의 문화를 열등하게 느껴왔던 것에 대한 자성에서 비롯된다. 脫歐入亞의 문화현상은 새로운 아시아적 文化正體性(cultural identity)의 강화와 주변국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서 새로운 의미로 아시아적 문화흐름(asiatic cultural flow)(전규찬, 윤태진, 2005)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담당할 것이다.

II. 韓日間 문화교류 : 일본문화의 금지와 개방의 역사 그리고 그 후

韓日間 문화교류는 이제까지 雙方的이기 보다는 一方向的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일본 文化開放政策이 公式化되기 이전에도 일본문화는 저질적이고 음란한 ‘왜색문화’로 불려 지면서 수입이 금지되어왔다. 그러나 일본의 문화를 원하였던 사람들은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일본문화를 받아들이고자 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본문화상품의 암시장이 형성되었다. 상대적으로, 한국문화를 요구하는 일본 내의 사람들은 많지 않았으므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수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의 한국문화 수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국가적 차원의 교류 현상으로 살펴본다면 日本文化가 한국을 향해 一方向的으로 流入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와부치(2001)가 설명하고 있듯이 일본의 文化帝國主義의 야망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일본문화의 競爭力 때문에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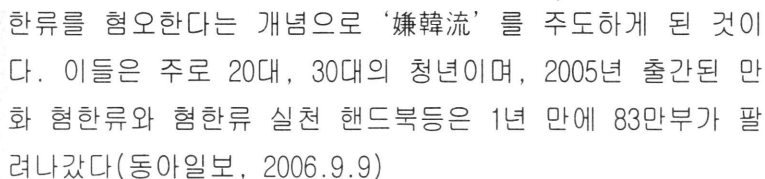
롯된 수요창출의 결과이든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한국에 유입된 외국 문화 중 일본문화가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였음을 의미한다.

일본대중문화의 수입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것은 김대중 정부의 일본대중문화 개방선언에 의해서이다. 대중문화 개방선언 직전, 한일양국 정상은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하여, 한일양국이 21세기의 확고한 선린우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정치, 안전보장, 경제 및 인적교류, 문화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보다 높은 차원의 균형 잡힌 협력관계로 나아갈 것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이제까지 일본문화개방이 4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1998년 10월, 일본의 영화와 비디오, 그리고 일본어판 출판만화·만화잡지의 수입을 허용하는 제1차 일본대중문화 개방이 발표되었고, 뒤이어 1999년 9월 제2차 개방에서는 일본의 대중가요 공연을, 2000년 6월 제3차 개방에서는 일본의 음반, 게임, 그리고 방송까지 개방하였다. 그리고 2004년 영화, 음반, 게임 등을 완전히 개방하는 4차 개방이 이루어졌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논란을 거듭해 오다가 30여 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일본 대중문화 개방선언은 그 동안 제한되어 왔던 양국 간 문화교류의 기본 틀을 새롭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일본문화 개방이후 한국사회에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본문화가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개방 이전에도 사실상 다양한 분야에서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일본문화가 들어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개방조치는 단지 일본문화의 수입이 보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의미만을 갖는다.

그런데 2002년 한일월드컵을 전후로 일본에 韓流 熱風이 불기 시작하였다. 비록 일본 사회에서 한국문화가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소비되는 하위문화의 양식이기는 하지만, 이른바 ‘일본에서의 한류열풍’이 나타난 것은 이제까지의 근대적 문화교류의 개념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현상이다.

일본에서의 한국문화수용은 NHK 등의 한국 드라마 방영에서 비롯되었다. 일본 사회에서 한국의 드라마는 중국에서와는 달리 새로운 선진도시의 모습을 담은 드라마의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전 일본과 닮은 예전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좋은 내용이 주된 것이다. 과거 西洋文化의 상징과도 같았던 클리프 리처드(1960년대)와 마이클잭슨(1980년대)에 열광했었던 일본 가정주부는 이제 韓國의 미남스타인 윤사마(배용준)를 더욱 편안히 받아들였던 것이다. 日本新聞에서는 이들을 Ovalien(Ova + Alien 외계인아줌마)으로 부르며 이들을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당당히 자신의 文化的 選好를 바꾸지 않았다. 일본에서 한류를 즐기는 가정주부들을 일본의 男性과 比較해보았을때, 이들은 西歐的 近代性的 規律과 服從의 기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집단이었다. 즉 여성은 近代的 成功의 目標를 향해 順治된 男性에 비해서 어쩌면 脫近代的인 文化受容의 패턴을 보여주는 前衛的 集團이라고 할 수 있다(이창현, 2005).

이와 같이 일본의 韓流는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류열풍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역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른바 ‘嫌韓流’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류가 일본사회에서 열풍처럼 번지면서 이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이



〈그림-2〉 형한류 만화책 표지 행사하기 보다는 주변적이고 他者화된 성격을 띤 문화적 자원으로 수용되는 유사-혼성화의 단계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22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연구이기 때문에 대학생 전체의 구체적인 문화수용과 인식의 특성을 살펴보지는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적 수용 과정에서 젊은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일본대학생의 한국 문화수용은 어떻게 나타날 것이며, 한국대학생의 일본 문화수용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韓日대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韓流과 맞물려 최근 동아시아의 문화교류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韓日간의 문화교류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동아시아 문화교류에 대한 연구는 산업적인 분석이나 문헌연구(조한혜정, 2003)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몇몇 연구만이 문화 수용적 측면(김현미, 2003, 윤경원·나미수, 2005)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 역시 문화교류의 양적인 측면과 사회·문화인식의 측면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거나 韓日간 문화수용현상을 체계적으로 비교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일본문화개방과 한류열풍이후, 韓日대 학생들이 과연 어느 정도 상대방의 미디어 문화를 수용하고 있는지, 또한 상대방의 사

회, 문화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국가 간, 시기별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양국 간의 인식 차이와 시기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복잡한 통계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기술적인 통계로 현황을 비교해보았다. 구체적으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한일대학생은 상대방 미디어·문화를 얼마나 접촉하는가? 또 자국 미디어·문화 이용과 대비해서 상대방 미디어·문화접촉의 비율은 어떠한가? 이는 2002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 했는가?

<연구문제-2> 한일대학생은 상대방 사회·문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는 2002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 했는가?

<연구문제-3> 한일대학생은 상대방에 대한 친밀도와 국가, 사람, 문화에 대한 선호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는 2002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 했는가?

연구에 사용된 1차 조사는 2002년 6월, 한국대학생 315명, 일본대학생 290명 등 총 60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어 2차 조사는 2006년 1월, 한국대학생 342명, 일본대학생 256명 등 총 59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응답자들은 한국과 일본에 소재하는 3개 대학의 대학생들로 구성되었다. 한국에서는 서울시내의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일본 역시 동경외곽을 포함한 지역의 대학에서 임의 표집을 하였다. 대체로 성별과 전공은 비슷하게 분포되었으나, 일본대학생의 경우, 한국대학생과 비교해서 나이가 비교적 어렸다. 미디어 이용에 따라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의 이용을 총 미디어 이용시간과 문화상품의 이용건수 등으로 나누어 보았고 추가적으로 이들의 사회문화 인식을 살펴보았다.

韓日간 미디어, 문화 수용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본 조사에서는 다양한 미디어 접촉유형을 포함해보았다. 첫째, 1일 미디어 이용량과 관련된 내용으로 TV, 신문, 인터넷, 게임 등을 이용한 시간을 측정하였다. 둘째, 연간 문화상품 이용횟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영화, 애니메이션, 서적, 만화책, 잡지, 콘서트/공연, 비디오/DVD등을 측정하였다. 셋째, 문화상품 보유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음반(CD/tape), MP3, 게임소프트웨어, 영화뮤직비디오의 DVD/비디오/ VCD 등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문화인식을 묻는 측정척도로는 강현두 외 3인(2000)의 연구에서 제시된 한국문화의 측정 척도 중 12개를 선정하여 척도로 이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설문지에 포함된 측정척도로는 재미있다, 외설적이다, 전통적이다, 기발하다, 잔인하다, 역동적이다, 유치하다, 상업적이다, 신명 난다, 엽기적이다, 유익하다, 자유롭다 등 이다. 마지막으로 韓日간 문화 교류의 증가방향과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IV. 韓日간 문화교류의 一方向的 特性

韓日간 미디어·문화상품의 흐름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이를 수용자의 수용차원에서 파악해보면 어떠할까? 2006년 조사 자료에 의하면, 한국대학생의 경우, 미디어이용에서 일본게임을 하루 11분, 연간 이용하는 문화상품의 수로는 만화책이 44권으로서 가장 많았다. 문화상품의 보유수로는 일본 음악 mp3파일이 35개, 일본 영화·동영상 파일이 16개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대학생의 경우, 전체적으로 한국 미디어 이용이 한국대학생의 일본문화이용과 비교하여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즉, 미디어 이용량에서 한국 TV를 하루 1.5분 시청하였고, 연간 이용하는 문화상품 역시 극히 제한적이며, 문화상품의 보유수로는 mp3 음악 파일이 5개로서 여타의 다른 미디어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 2> 한일대학생의 상대방 미디어·문화이용현황

2006년 상대방 미디어·문화이용		한국대학생의 일본문화이용 N=342				일본대학생의 한국문화이용 n=255			
		최소 값	최대값	평균 (5점만점)	표준편차	최소 값	최대값	평균 (5점만점)	표준편차
TV 이용량	분/일	.00	60.00	2.97	10.18	.00	60.00	1.50	8.05
신문 이용량	분/일	.00	10.00	.02	.54	.00	2.00	.01 ↓	.13
인터넷 이용량	분/일	.00	240.00	1.66	14.87	.00	60.00	.77 ↓	5.71
게임 이용량	분/일	.00	180.00	10.75	26.35	.00	240.00	1.47	15.77
영화 관람수	편/년	.00	50.00	1.89	3.61	.00	6.00	.57	1.10
애니메이션 관람수	편/년	.00	999.00	14.59 ↑	73.83	.00	3.00	.01 ↓	.20
서적 이용수	권/년	.00	30.00	1.80	3.73	.00	20.00	.14	1.31
만화책 이용수	권/년	.00	999.00	43.54	127.65	.00	4.00	.08	.40
잡지 이용수	권/년	.00	60.00	.85	3.82	.00	7.00	.03	.44
콘서트/공연 관람수	회/년	.00	50.00	.35 ↓	2.99	.00	2.00	.02	.18
비디오/DVD 관람수	편/년	.00	100.00	2.71	9.43	.00	56.00	.78 ↑	4.14
음반(CD/tape) 보유수	개	.00	100.00	1.99	6.94	.00	100.00	1.92 ↑	9.22
MP3 파일 보유수	개	.00	1000.00	34.86 ↑	137.51	.00	999.00	5.47 ↑	64.06
게임 타이틀 보유수	개	.00	999.00	9.10 ↑	77.52	.00	20.00	.24 ↑	1.68
영화 등 DVD 등 보유수	개	.00	300.00	3.05 ↑	17.82	.00	50.00	1.03 ↑	4.94
영화 등 동영상파일 보유수	개	.00	999.00	16.09 ↑	83.83	.00	300.00	1.38 ↑	18.87
상대방 미디어 이용의 상대적 비율 한국대학생 : 애니메이션관람횟수(225%), 만화책이용횟수(137%), 게임이용량(46%), 게임소프트웨어타이틀 보유수(56%) 일본대학생: 영화 관람 횟수(18%), 영화등 DVD 보유수(13%) 비디오/DVD 관람 횟수(10%) 2002년 대비 2006년 비교 : ↑ 100%이상 증가, ↓ 100%이상 감소									

이러한 결과는 한국대학생의 일본미디어·문화이용이 일본대학생의 한국 미디어·문화이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보여준다. 한국대학생들은 일본의 만화책과 애니메이션을 가장 많이 접착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되는 mp3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보유도 상당히 높다. 한국의 경우 파일공유사이트(소리바다, 짱공유 등의 사이트)가 발달하여 대학생들은 음반이나, DVD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 이들 내용을 공

유사이트를 통해 접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02년과 비교했을 때, 문화 상품의 보유수는 韓日대학생 모두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영화의 DVD나 동영상 그리고 음악CD나 MP3 등 이었다.

미디어 이용실태를 자국미디어 이용과 대비해 살펴보기 위해서 ‘상대적인 미디어 이용량’을 살펴보았다. 한국대학생들은 자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더 많이 일본미디어를 접하고 있다. 애니메이션이 225%였으며, 만화책이 136%에 달했다. 애니메이션과 만화책의 경우, 한국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보다 일본 미디어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게임소프트웨어와 게임이용량이 50%내외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자국의 미디어 이용 총량 대비 한국 미디어 이용량이 많게 나타난 경우는 없었으며, 그 이용 비율도 높지 않아, 영화 관람은 18%였고, 한국영화 DVD보유 수 및 관람횟수도 1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 대학생의 한국미디어수용이 한국 대학생들과 비교하여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위의 결과에서와 같이 일본대학생의 문화수용에 있어서 한국영화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 젊은 대학생들은 텔레비전보다는 영화를 통해서 한국문화를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V. 韓日간 사회문화인식의 특성

韓日대학생들은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이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래 <표 - 3>과 같다.

<표 - 3> 韓日대학생의 상대방 사회인식

2006년 상대방사회인식	한국인	평균 (5점만점)	표준편 차	일본인	평균 (5점만점)	표준편차
베끼기를 잘 한다.	342	2.96	1.09	253	2.67	1.23
소박하다.	342	3.36	.96	254	2.84	.89
예의바르다.	341	3.73	.93	255	3.20	.90
근면하다.	342	3.81	.76	256	3.89↑	.85
잔인하다.	342	3.95↑	.89	253	2.54	1.04
개방적이다.	342	3.94↑	1.02	256	2.50↓	.84
음란하다.	342	4.02↑	.88	255	2.34↓	1.04
진보적이다.	342	3.05	1.02	256	3.00	.93
신뢰할 수 없다.	342	3.17	1.04	255	2.47↓	1.00
우수하다.	342	3.51	.74	256	3.47	.83
질서의식이 높다.	341	3.96↑	.78	256	3.51	.98
스케일이 크다.	342	2.50↓	.94	256	2.50↓	.83
강정적이다.	342	2.64↓	.91	255	3.81↑	1.00
자존심이 강하다.	342	3.46	.93	256	3.77↑	1.00
성급하다.	342	2.45↓	.79	256	3.32	1.02
정열적이다.	342	2.58↓	.93	256	3.52↑	.98
2002년 대비 2006년 비교 ↓ 0.1이상 하락, ↑ 0.1이상 상승						

2006년 조사에 의하면 한국대학생들은 일본사회에 대해서 질서의식이 높다(3.96), 개방적이다(3.94)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항목 이외에도 음란하다(4.02), 잔인하다(3.95)등의 부정적 항목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반면 일본대학생은 한국사회에 대해서 근면하다는 평가와 함께, 감정적이다, 자존심이 강하다, 정열적이다 등의 항목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2002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韓日대학생들은 상대방 사회에 대한 전통적 인식에 대해서 강하게 동의하는 내용이 더욱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한국대학생은 일본사회가 ‘질서의식이 높다’, ‘개방적이다’라는 항목과 ‘음란하다’, ‘잔인하다’라는 항목에 대해서 동의하는 정도가 높아졌으며, 일본대학생은 한국사회가 ‘감정적이다’, ‘자존심이 강하다’, ‘정열적이다’라는 항목에 대해서 동의하는 정도가 높아졌다. 이 점은 2002년과 비교하여 韓日대학생의 상대방 사회에 대한 고정관념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 4> 한일대학생의 상대방 문화인식

2006년 상대문화인식	한국인	평균	표준편차	일본인	평균	표준편차
재미있다.	342	3.61	.89	256	2.89↓	.95
외설적이다.	342	4.07↓	.70	256	2.36	.89
전통적이다.	342	2.99	.91	255	3.21↓	.94
기발하다.	342	3.92↑	.84	256	2.54	.91
잔인하다.	342	3.98	.79	256	2.38	.95
역동적이다.	342	3.04	.96	256	2.59	.94
유치하다.	342	3.13↑	1.00	256	2.44↑	.91
상업적이다.	342	4.07↑	.82	256	2.94↑	.99
신명난다.	342	2.57	.89	256	2.98	.86
엽기적이다.	342	4.04	.82	256	2.48↑	.87
유익하다.	342	2.71↑	.89	255	2.81	.80
자유롭다.	342	3.90↑	.95	256	2.62↑	.86
2002년 대비 2006년 비교 ↓ 0.1이상 하락, ↑ 0.1이상 상승						

한국대학생의 일본문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외설적이다(4.07) 상업적이다(4.07), 엽기적이다(4.04)라는 항목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반면 일본대학생들은 한국문화에 대해서 전통적이다, 신명난다, 재미있다. 상업적이다 등의 항목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대학생의 일본 문화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구성되어있는 반면, 일본 대학생의 경우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2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대학생의 일본 문화에 대한 인식에서 외설적이라는 항목이 감소하고, 자유롭다, 기발하다, 유익하다 등의 긍정적인 요소가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일본대학생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에서는 전통적이다, 재미있다는 항목이 감소하고 상업적이다, 유치하다, 엽기적이다 등의 항목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대학생의 경우, 일본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조금씩 해소되는 반면, 일

본대학생은 오히려 긍정적 인식이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VI. 韓日 간 친밀감 및 선호도 비교

한일대학생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친밀감과 선호도를 갖고 있는 것일까? 한국대학생은 친밀감을 물어보는 측정 항목에서 일본을 가보고 싶다(4.33), 일본문화를 접해보고 싶다 (3.89),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3.84)는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일본대학생 역시 한국을 가보고 싶다(3.98), 한국문화를 접해보고 싶다(3.72)등의 항목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의 정도로 본다면 상대국가에 가보고 싶다는 항목에 있어서 한국대학생의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2002년과의 비교에서도 한국대학생들은 일본에 가보고 싶다,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는 항목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긍정적 태도를 보인 반면, 일본대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한국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항목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韓日대학생의 친밀감 비교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한국의 대학생이 상대적으로 일본에 가보고 싶다는 것과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는 것에 높은 응답을 하고 있는 반면, 일본대학생은 점수는 낮지만 한국인과 결혼하고 싶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표 - 5> 韓日 간 대학생의 친밀감 비교

2006 韓日 간 친밀감 비교	한국 대학생	평균	표준 편차	(일본 대학생)*	평균	표준 편차
일본인(한국인)과 결혼하고 싶다.	339	2.42	.99	256	2.60	1.00
일본사람(한국사람)과 만나보고 싶다.	339	3.53 ↓	.93	255	3.52 ↓	1.04
일본문화(한국문화)를 접해보고 싶다.	339	3.89	.81	255	3.72	1.02
일본어(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339	3.84 ↑	.87	256	3.29 ↓	1.20
일본(한국)을 가보고 싶다.	339	4.33 ↑	.73	256	3.98	1.12
2002년 대비 2006년 비교 ; ↑ 0.1 이상 증가, ↓ 0.1 이상 감소 * 일본대학생의 설문은 ()에 들어있는 것임						

한국대학생은 일본에 대한 선호도의 차원 중 일본문화(3.28) >일본사람(3.06) >일본국가(2.68)의 순서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한국대학생은 일본문화와 일본사람에 대한 선호도는 높지만, 일본국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낮다. 이것은 식민지 경험 등 역사적으로 형성된 일본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일본대학생의 경우는 선호도 차원 중 한국문화(3.20) ≒한국(3.19) ≒한국사람(3.18) 등 같은 항목에 대해서 비슷한 선호도를 보였다. 즉, 일본대학생의 경우, 한국의 문화와 국가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차별적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한국대학생들은 자신보다는 일반적인 한국 사람이 일본에 대한 친밀감이 낮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자신은 일본을 좋아하지만, 상대적으로 일반인은 그렇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반면 일본대학생들은 자신보다는

일반적인 일본사람이 한국 사람에 대한 친밀감이 낮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한국문화에 대한 친밀감은 오히려 높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2002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대학생은 일본국과 일본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반면 일본대학생은 변화가 없었다. 또한 일반인에 대한 인식추정 역시 한국대학생의 경우,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친밀감 추정치가 증가했지만, 일본대학생의 경우 일반인들의 한국인과 한국 문화에 대한 친밀감 추정치가 증가하지 않았다.

<표 - 6> 韓日대학생의 선호도 비교

韓日간 문화친밀감 비교	2006	한국 대학생	평균	표준 편차	(일본 대학생)	평균	표준 편차
나는 일본(한국)사람을 좋아한다.	339	3.06	.66	255	3.18	.79	
나는 일본국(한국)을 좋아한다.	339	2.68 ↑	.82	255	3.19	.87	
나는 일본문화(한국문화)를 좋아한다.	339	3.28 ↑	.79	255	3.20	.77	
한국(일본)사람들은 일본(한국)사람을 좋아한다.	339	2.43 ↑	.69	256	3.12 ↑	.82	
한국(일본)사람들은 일본국(한국)을 좋아한다.	339	2.05	.74	256	3.19	.83	
한국(일본)사람들은 일본문화(한국문화)를 좋아한다.	339	3.10	.80	256	3.42 ↑	.76	
일본사람(한국사람)들은 한국사람(일본사람)을 좋아한다.	342	3.00 ↑	.64	255	2.45	.87	
일본(한국) 사람들은 한국(일본국)을 좋아한다.	342	2.97 ↑	.65	255	2.35	.87	
일본(한국) 사람들은 한국(일본)문화를 좋아한다.	342	3.46 ↑	.69	255	2.97	.87	
2002년 대비 2006년 비교 : 1.0 이상 증가↑ 1.0 이상 감소↓ * 일본대학생의 설문은 ()에 들어있는 것임							

韓日대학생은 상대방의 선호도를 제대로 추정하고 있는 것일까? 상대방의 이해를 과대추정(over estimation)하는 것도, 과소추정(hypo estimation)하는 것도 상호이해를 위해 장애가 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 대학생들이 실제로 갖는 일본에 대한 선호도와 일본대학생의 한국에 대한 선호도 추정치를 비교해보았다. 이 결과, 한국대학생들은 일본대학생들이 실제 갖고 있는 한국 사람과 한국에 대한 선호도 비교에서 과소추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문화의 선호도를 과대추정을 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대학생의 경우도 한국인이 실제 갖고 있는 일본인과 일본, 일본국가에 대한 선호도를 과소추정을 하고 있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韓日대학생은 자신들보다는 일반인들이 상대방을 좀 더 부정적으로 볼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자신들을 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이제까지 한일관계가 ‘가깝고도 먼 이웃’ 이라고 불리었듯이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문화부문의 교류협력 강화는 사람과 국가의 선호도가 구분되는 긍정적인 부문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반인들이 한국과 한국인은 싫어해도 한국문화는 좋아할 것이라는 인식은 문화와 국가인식이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님을 나타내준

다. 한편 2002년과 비교하여 한국대학생의 일본 선호도가 증대되었고, 일본대학생의 한국문화 선호도 추정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일본보다는 한국에서 보다 명확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 7> 韓日간 문화교류의 전파증가와 수혜국 인식

2006년 문화교류 및 그 수혜국 인식	한국 대학생	평균	표준 편차	일본 대학생	평균	표준 편차
한국문화 일본전파 증가	342	5.54	1.07	253	4.64	1.43
일본문화 한국전파 증가	342	5.27	1.11	255	4.59	1.43
문화교류 일본측에 도움 많다.	342	5.14	1.07	252	4.82	1.54
문화교류 한국측에 도움 많다.	342	4.87 ↑	1.22	252	4.79	1.49
2002년 대비 2006년 비교: 1.0 이상의 상승 ↑						

한국대학생은 한국문화의 일본전파가 일본문화의 한국전파보다 증가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본대학생도 일본문화의 한국전파가 한국문화의 일본전파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대학생은 한일 문화교류가 한국 보다는 일본에 도움을 많이 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일본대학생들 또한 한일 문화교류가 오히려 일본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VII. 결론 :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韓流 등 최근 일고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문화교류는 서구문화가 일방적으로 유입되었던 이제까지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문화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文化霸權이 消滅됨을 뜻하는 것이든, 아니면 아시아적 문화 共同體의 再發見을 뜻하는 것이든 새로운 현상임에는 틀림없겠다. 이러한 현상은 순수한 동아시아문화의 재현을 이룩하기 보다는 전통적인 동아시아문화와 현재의 서구화된 아시아문화의 雜湯을 만들어 내어 어쩌면 脫近代的이거나 前近代的 또는 非近代的인(post/pre/non) 독특한 文化를 만들어낼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의 '韓流'는 단순히 文化的 近接性이나 文化的 類似性에 근거하여 기계적으로 설명할 부분은 아닌듯하다. 이것은 분명 西歐的 近代化와 이에 따른 西歐文化의 一方的 流入이 진행되었던 지난 100여년의 역사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이제껏 帝國主義 戰爭과 理念的 葛藤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간의 문화 흐름이 원활하지 못했던 지난 時代의 갈등을 뛰어 넘는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를 알리는 序曲이기도 하다.

近代國家가 형성되기 以前에 우리는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게 中國과 日本, 그리고 韓國간에 文化交流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한, 중, 일이 함께 공유 하고 있는 佛教, 漢字, 儒敎등의 문화적 전통이 바로 그러한 교류의 결과였고, 이것이 현재 동아시아 共同體를 結束하는 가장 소중한 文化的 資産인 것이다. 韓日간에는 문화적 동질성과 함께 또한 많은 갈등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즉, 오랜 식민통치의 역사가 있었고 현재에도 '독도 및

교과서'갈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나아가 북한과는 '핵실험과 미사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푸는데 문화교류가 상호이해를 제고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면 무엇보다 의미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의 결과가 함축하는 몇 가지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韓日대학생들의 미디어·문화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한국대학생에게 있어서 일본 문화는 아주 비중이 높은 문화콘텐츠이며, 개인적 차원에서 자국의 그것보다 더 많이 수용되는 부분 역시 존재한다.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만화책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 이는 재패니메이션(Japanimation)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일본대학생에게 있어서 한국문화의 수용은 자국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문화수용의 차원에서 한국대학생에게 있어서의 일본문화의 비중과 일본대학생에게 있어서의 한국문화의 비중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문화 개방 이전에도 그러했고, 일본에서의 한류열풍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둘째, 韓日대학생의 미디어·문화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신문과 방송 등 저널리즘 미디어(journalism media)는 이용량이 상당히 적은 반면,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그리고 영화와 음반 등 오락 미디어(entertainment media)의 이용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널리즘 미디어가 상대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많이 담고 있다고 한다면, 오락 미디어는 국가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韓日대학생의 문화교류 패턴의 변화는 과거의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를 변화시키거나 최소한 중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한일대학생의 미디어·문화 이용량을 2002년과 비교해보았을 때, 음악과 영화 콘텐츠의 수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음악과 영화 콘텐츠의 문화상품 보유수가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100%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mp3 음악파일은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었으며, 또한 가장 급격히 증가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한국대학생들에게는 일본영화 동영상 파일의 수용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 점은 韓日 모두 인터넷 기반이 갖추어지면서 다른 양식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의 수용이 많아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 韓日대학생의 사회·문화인식을 비교해보면, 한국대학생은 일본에 대해서 '근대 선진국가'와 '왜색저질문화의 나라'라는 이중적 시선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근대화과정에서 '선진발전국가'로서의 일본사회에 대한 인식과, 일본문화를 공식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저질왜색문화'의 담론이 아직도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대학생의 한국사회인식에는 역동적으로 발전하려는 국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국가라는 이미지가 함께 담겨있다. 2002년과 비교해보았을 때, 한일양국의 전형적인 사회문화인식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한국대학생의 일본인식에서 질서의식이 높다 등의 긍정적 항목과 더불어 음란하다, 잔인하다는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난 것과 일본대학생의 한국인식에서 근면하다와 자존심이 강하다는 평가가 공히 높게 나타난 것이 그 예이다. 韓日간 문화교류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기보다는 미디어·문화 접촉에 한정되면

서, 미디어에 나타난 국가 이미지가 오히려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다는 가설의 검증이 필요하겠다.

다섯째, 韓日대학생의 일본친밀감을 비교해보면, 韓日대학생 모두 상대방 국가에 가보고 싶고 상대방 문화를 접해보고 싶다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한국대학생의 욕구가 일본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대학생의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는 한국인과 결혼하고 싶다는 항목이었다.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선진국가로서의 일본을 닮아보고자 하는 ‘근대적 시선’을 갖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일종의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여섯째, 한국대학생들은 일본에 대한 선호도 인식의 3차원 즉 문화, 사람, 국가에서의 인식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본다면 일본문화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일본국 선호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한국대학생이 일본국과 일본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과는 달리 일본문화는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즉 일본은 싫어도 일본문화는 좋아할 수 있다는 젊은이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서 향후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 韓日간 갈등이 높아져도 일본문화의 수용이 급격히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반면, 일본대학생의 경우는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차원별로 차별화되지 않았다.

일곱째, 韓日대학생들의 일반인들의 상대국 선호도 추정을 분석한 결과, 한국대학생은 모든 분야에서 일반인들이 자신보다 일본을 싫어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 내에 형성된 여론분위기가 일본에 적대적인 것으로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대학생의 경우, 일반인들의 인식추정에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만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으며, 문화부문에서는 자신들보다 일반인들이 더 좋아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일본 사회 내에서 뿌리 박혀 있는 ‘조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최근 일본 내 ‘한류열풍’이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상대방 국민들의 자국에 대한 인식 추정 역시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인식과 비교해서 인식추정치가 더욱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韓日간 상호이해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 발생은 미디어에서 기인되는 것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韓日간 이슈를 다루는 미디어가 상대국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아닐지 반성해봐야 한다.

韓日간 미디어·문화수용의 구조와 인식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아직도 韓日간에는 일방적인 문화흐름의 측면이 강하게 남아있으며, 상대방 문화와 사회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近代的 文化交流’의 양식이 상당부분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과 문화에 대한 차별적 평가 등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脫近代的 文化交流’의 양상이 부분적으로나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교류의 양식이 어떻게 정착되고 변화될지를 파악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미디어·문화수용에 대한 분석과 함께 韓日간 미디어에 담긴 상대방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상희, 강명구, 1986)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韓日 정부는 韓日간

문화교류의 폭을 결정하고 양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韓日간에는 외교적 긴장과 갈등의 이슈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문화의 교류가 축소되기도 했으며 때로는 확대되기도 했다. 정책적으로 전면적인 일본문화상품의 수입이 금지되기도 했으며, 개방의 수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도 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국가관리형 문화교류의 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미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유통이 일상화되어 있고, 일반시민들이 국가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독립적으로 문화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문화교류의 관리와 통제가 과거와 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앞으로 韓日간에는 정부 간 화해와 협력이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형태보다는 市民 간 문화교류의 성과로 정치적 긴장까지도 완화될 수 있는 국면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그것이야말로 ‘脫近代的 文化交流’의 핵심적 내용일 것이다.

< 참고문헌 >

- 이상희·강명구. 1986. 『한국청년의 일본에 대한 스테레오타이핑연구』 연구보고서
- 강상중. 1997.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서울: 이산.
- 강정인. 2004.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 :대우학술총서 564 서울: 아카넷.
- 강현두. 1985. 『일렉트로닉스시대의 대중문화』 서울: 현암사
- 박노자. 2005. 『한류, 자랑스럽기만 한가?』 한겨레신문, 6.20.
- 양은경. 2003. 『동아시아 트렌디 드라마에 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여름, pp. 197-220.
- 유선영. 1997. “황색식민지의 문화정체성:아메리카나이즈드 모더니티” . 언론과사회. 18. 81-122.
- 윤경원·나미수. 2005. 문화지역화와 미디어 수용자 하위문화:청소년들의 일본 대중문화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9권1호 pp.5-28.
- 윤경원·나미수. 2005. 일본청소년들의 한국대중문화 수용과 문화적 정체성. 한국방송학보. 19권1호 pp.7-46.
- 이동후. 2004. “한국 트렌디 드라마의 문화적 형성-탈국가적 문화 수용 양식을 중심으로” 조한혜정외4인. 『 ‘한류’ 와 아시아의 대중문화』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pp. 1-42.
- 이와부치 고이치. 2001. 『아시아를 잇는 대중문화』 서울: 또하나의문화
- _____. 2004. “일본대중문화의 이용가치-초국가주의와 사이아에 대한 탈식민적 욕망” 조한혜정외4인. 『 '한류' 와 아시아의 대중문화』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pp. 87-124.
- 이창현. 2005.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탈아입구’ 와 ‘탈구입아’ 의 잡탕(또는 비빔밥)과 문화공동체 형성의 방향,”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18집. pp. 365-376
- 조한혜정. 2002. 동/서양 정체성의 해체와 재구성:글로벌 지각 변동의 징후로 읽는 '한류열풍'. 한국문화인류학, 35(1). Pp. 3-40.
- 주진오. 2004. “19세기 후반 문명개화론의 형성과 전개” 연세대학교 국학대학원. 『서구문화의 수용과 근대개혁』 서울: 태학사.
- 함한희, 허인순. 2005. 『겨울연가와 나비 환타지-일본한류를 만나보다』 서울: 소화
- 허진. 2002. 『중국에서의 한류와 한국드라마의 수용』 한국방송학보. 16-1. pp. 496-527.

Gyu-Chan Jeon, Tae-Jin Yoon. Realizing the Korean Wave into an Asiatic Cultural Flow.

Lerner, D. (1963). *Toward a communication theory of modernization*. In L. Pye(Ed.), *Communications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NJ:Princeton University Press.

Straubhaar, J.(1991). Beyond Media Imperialism: Asymmetrical Inter-Dependence and Cultural Proximity.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8, 39-59.

Tomlinson, J.(1991). *Cultural Imperialism*(Baltimore:Johns Hopkins Press).

Robertson, R.(1995). Glocalization: Time-Space and Homogeneity-Heterogeneity. In M. Featherstone, S. Lash & R.

Robertson (Eds.), *Global Modernities* (pp. 22-44). London:Sage.

Lee, Changhyun (2003). The one way flow of cultural goods and it's social impact of consumption : A case study of Korea and Japan.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Econometrics of Cultural Goods" at Padova, ITALY April 2004.

Lee, Changhyun, Taejin Yoon, Seunghye Sohn(2002). Reception of the Korean Broadcasting in Yanbiun Chinese .paper presented in ICA Conference in Seoul.

Boyd-Barrett(1977). "Media Imperialism: towards and international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media system," in Curran et al.(eds).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London : Open University.

東アジア時代、日韓文化交流の現況と相互認識
-韓流前後と日韓比較-

イ・チャンヒョン(国民大学言論情報学部教授)

1. 東アジア、文化交流、そして脱近代性

東アジアの近代化過程において欧米文化の受け入れは、社会発展の重要な要素として働いてきた。福沢諭吉は明治維新以降、アジアの「後進的」な文化を欧米の「先進」的な文化へと変えるために努力してきており、それを通じて「脱亜入欧」を志向する近代日本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作り上げてきた。その過程で日本は、韓国、中国と共に東アジアの固有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作り上げることよりも、それを否定しながら、欧米を似せることに力を注いできた。(姜尙中、1997) 欧米文化の受容は、欧米社会を単線的な発展モデルを目指し、それを真似ようとしている東アジアの人々にとっては、とりわけ重要な文化の土台になり、それを通して東アジアの人々は「前近代的な農民」から欧米社会の「近代的な市民」へ生まれ変わろうとしていた。

第2次世界大戦以降、米国はハリウッドの文化産業を基礎として、文化とメディアを通じた世界支配(文化帝国主義、メディア帝国主義)体制を整え、冷戦体制の中では文化は理念の色が強くなりブロック化された。1945年以降、韓国は思想的な観点から中国との文化交流が禁止されており、政治的次元からでは植民地時代の宗主国であった日本との文化交流も禁止された。従って、第2次世界大戦以後、韓国の文化交流対象国は主に米国であった。韓国ではこの時期日本との文化交流は禁止されたが、非公式的には、米国以外では日本からの影響が最も大きかった。よって、日本の文化が欧米の文化を最もよく模倣した文化だとすれば、韓国の国際文化交流は欧米文化(いわゆる先進文化)の受容に限られたと言えよう。それまで欧米の文化を一方的に受け入れてきた東アジアにおける文化受容を「近代的文化交流(the modern cultural flow)」の枠の中で説明できる。近代的な文化交流とその受容は、究極的には欧米中心主義(カン・ジョンイン、2004)を維持させるための文化的な基盤として働いており、それは東アジア地域において自律性(cultural autonomy)を弱めた。これと関連して、ユ・ソンヨンは韓国における欧米文化の受容は「アメリカナイズ モダーニティ(americanized modernity)」の形成を促し、それは欧米優越主義と自己に対する人種的な劣等感、そして自己伝統の否定(1997)につながる文化認識をもたらしたと述べる。

しかし、20世紀末に入ってから東アジアを中心に国際文化交流の構造において大きな変化が現れる。冷戦体制が崩壊して中国が改革開放路線を歩み始め、韓国が経済成長を通じて文化産業の競争力を強化するにつれ、東アジアが欧米文化の一方的な受容から抜け出るような大

きな変化を見せてくる。新たに現れた変化の様子が何よりも意味しているのは、文化的なヘゲモニを握っていた米国中心の欧米文化による支配体制に対し、東アジアが挑戦に立ち上が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

去る1980年代と1990年代初め頃まで、東アジアにおいて日本のマンガやゲーム、ポップミュージックなどが急速に広まった時期であった。この流れは日潮(Japanese Wave)と呼ばれ、その初期においては、日本自らがアジアの文化市場の潜在力をしっかりと評価できずにいた状況の下で起きたが、やがて日本の国家主導的な文化拡散の意図と噛み合っ、さらに拡大された(岩渕、2004)。ところが、1990年代後半以降、「日潮」は弱まり、その代わり韓国文化の消費ブーム、つまり韓流(Korean Wave)が現れ始めた。「韓流」は中国、モンゴル、ベトナムなど東南アジアはもちろんのこと、近代欧米文化の窓口であった日本にまで影響を及ぼした。



図-1 KBS 連続ドラマ「冬のソナタ」

そして、最近韓国と日本では華流 (Chinese Wave)が再び浮かび上がる可能性が高いと言われている。それは欧米のものは優等で、自身と周辺文化は劣等であるという発想から始まって、一方的に欧米の文化に憧れてきた東アジアの近代的な文化の流れとは違う現象と言えよう。こうしたアジア国家間文化受容の基本になるのは「脱近代的な文化交流(the post modern cultural flow)」と把握することができよう。しかし、その流れは既存の支配的な文化交流の流れに代替するというよりは、既存の文化交流の流れと共存するものである。現在の韓国と日本の文化交流の現況を見ると、過去の近代的な欧米文化の受入れは完全になくなったというより、脱近代的なアジア周辺の文化受容のパターンと共存することになったと言える。つまり、韓国と日本には近代的な文化交流と、脱近代的な文化交流が雑湯(またはビビンパ)になって共に存在していると見るのが望ましい(イ・チャンヒョン、2005)。

<表-1> 東アジアにおける文化交流の基本様式

近代的文化交流(脱亜入欧) 'the Modern' cultural flow	脱近代的文化交流(脱欧入亜) 'the Post-modern' cultural flow
欧米(米国)単一中心指向	多中心指向
文化的同質化	文化的多様化
文化的位階(先進文化 vs. 後進文化)	文化的平等
文化 進化論	文化の多様性
単線的 文化流れ	多元的 文化流れ
欧米文化がアジア文化へ流入	アジア文化圏の中での流れの強化
一方的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	双方向的コミュニケーション
中心から周辺へ	周辺間
被動的な受容者	積極的な受容者

(イ・チャンヒョン、2005)

現在、韓国の放送ドラマはアジア一般に広まり、特に、日本の多くの視聴者は「冬のソナタ」のような韓国ドラマを見て楽しんでおり、彼らは韓国の文化商品を買ひ、より積極的な視聴者は韓国を直接訪れ、参鳥湯(サムゲタン)、カルビなど韓国の食べ物を楽しむ。一方、東京の新大久保は韓国の文化商品を販売している地域へとそのイメージが変わって、東京都内で韓国文化地帯としてその役割を担っている。これは過去「脱亜入欧」を掲げながら欧米型近代化を進めてきた過去の日本の姿とは程遠いものである。今日現れる「脱欧入亜」的文化受容のきっかけは(まだ全面的でも一般的でもないが)欧米文化を受け入れ、自己文化は劣等である、とみなしてきた感覚を捨ててゆく動きであった。。「脱欧入亜」の文化現象は新たなアジア的文化のアイデンティティ(cultural identity)の強化と、周辺国の文化の多様性を尊重する機能を担うことで、新たな意味でのアジア的文化の流れ(asiatic cultural flow)(チョン・キュウチャン、ユン・テジン、2005)を作り上げる役割を担当することになるだろう。

II. 日韓文化交流：日本文化の禁止と開放の歴史そしてその後

日韓文化交流はこれまで双方向的というよりも一方的に進められてきたと言えよう。1998年日本文化解放政策が公式化する以前にも、日本文化はレベルの低い淫乱な「倭色文化」と言われて輸入が禁止されてきた。しかし、日本の先進文化を待ち望んだ人々は非公式的なルートで日本文化を受け入れようとしたため、日本文化商品の裏市場が形成された。それと比較して、韓国文化を求める日本人は多くなかったため、公式的に輸入ができるにもかかわらず、日本での韓国文化の受け入れは極めて限られていた。国家的な次元から交流を調べてみると、日本文化が韓国に向けて一方的に入ってきたのではない。それは岩淵(2001)が説明しているように、日本の文化帝国主義的な欲望によるものであれ、日本文化の競争力から始まった需要

創出の結果であれ、その理由を問わず、日本文化は韓国に入ってきた重要な外国の文化のひとつだった。

日本の大衆文化の輸入が公式的に許可されたのは、金大中政府の日本大衆文化についての開放宣言によるものだった。大衆文化開放宣言の直前に日韓両国首脳は、1998年「21世紀の新たな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共同宣言」をし、日韓両国が21世紀の確固たる親善友好の協力関係を構築していくために、政治、安全保障、経済及び人的交流、文化交流など幅広い分野で、よりレベルの高いバランスのとれた協力関係へと進むことを明らかにした。これによって、韓国では日本の文化開放がこれまで4回にわたって実施されている。韓国政府は1998年10月、日本の映画とビデオ、そして日本語バージョンの出版マンガやマンガ雑誌の輸入を許可する、第1次日本大衆文化の開放を発表した。引き続き、1999年9月第2次開放では日本の大衆音楽を、2000年6月第3次開放では日本のレコード、ゲームそして放送まで開放した。それから2004年には映画、レコード、ゲームなどを完全に開放する4次開放が成し遂げられた。1965年日韓国交正常化以後論争を重ねてきたが、30余年が経てようやく実現した日本大衆文化に関する開放宣言は、制限されてきた両国間文化交流の基本となる枠を新たに作る重要なきっかけとなった。日本文化の開放以後、韓国社会にはほぼ全分野において、日本文化が公式的な窓口を通して、本格的に入ってきているのが現状である。開放以前にも事実上多様な分野において、非公式的なルートを通じて日本文化が入ってきたことから、こうした開放措置は単に日本文化の輸入がより公式的かつ全面的に施行されたという意味をもっているにすぎない。

ところで、2002年サッカーワールドカップ前後に日本に「韓流ブーム」が巻き起った。日本社会では韓国文化が専業主婦を中心として消費される下位文化の様式ではあるものの、いわゆる「日本での韓流ブーム」が現れたのは、今までの近代的な文化交流の概念では把握しがたいものだった。

日本における韓国文化の受入れは、NHKなどの韓国ドラマの放送から始まった。日本社会で韓国ドラマは、中国のものとは違って、新しい先進都市の様子を盛り込んだドラマの内容ではなく、以前の日本と似て懐かしさと呼び起こすいい内容が主なものであった。過去欧米の文化の象徴ともいわれたクリーフ・リチャード(1960年代)とマイケル・ジャクソン(1980年代)に熱狂した日本の専業主婦は、今や韓国のイケメンスターであるヨン様(ペ・ヨンジュン)を違和感なく受け入れ始めた。日本の新聞は彼らのことをOvalien(Ova + Alien 宇宙人おばさん)と呼びながら、彼らを批判的なまなざしで見たにもかかわらず、彼らは堂々と自分の文化的好みを変えなかった。日本で韓流を楽しむ専業主婦らは日本の男性に比べて、欧米的な近代性の規律と服従から比較的自由な集団であったためだ。すなわち、女性は近代的な成功という目標に順応せざるを得なかった男性に比べて、もしかすると脱近代的な文化受容のパターンを見せている前衛的な集団と言えよう(イ・チャンヒョン、2005)。

このように、日本の韓流は専業主婦を中心に大きな影響力を及ぼした。しかしその後、韓流ブームについて否定的な世論も現れた。いわゆる「嫌韓流」である。韓流が日本社会でブームとして広まり、これに対して批判的な人々が韓流を嫌悪する概念として「嫌韓流」が主導す



ることとなった。彼らの主な傾向は、20代、30代の青年であり、2005年出版されたマンガ「嫌韓流」と嫌韓流の実践ハンドブックなどは1年で83万部の売り上げを見せた(東亜日報、2006年9月9日)。

このように、韓流は日本人全体に均等に受け入れられたとするよりは、特定の集団を中心に受け入れられて、他の集団は反対しているという力動性の中にあると見られる。では一体、日本の大学生は韓国のメディア文化をどう受け入れているだろう。ユン・キョンウォン、ナ・ミス(2005)の研究では韓国文化は日本の青少年に対して文化的な影響力を強く及ぼしていると

いうよりは、周辺的かつ他者化された性格を帯びた文化的な資源として受け入れられる、類似-混成化の段階にあると言う。しかし、この研究が22名を対象にしたインタビュー研究であったため、大学生全体の具体的な文化受容と認識の特性を調べ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こうした文化的受容の過程の中で、若い世代を代弁する日本の大学生は韓国文化をどのように受け入れ、また一方、韓国の大学生は日本文化をどのように受け止めているだろうか。

Ⅲ. 日韓メディア文化の受容と相互認識：研究問題と方法論

韓流とかみ合って、最近東アジアの文化交流についての研究が増えているが、真の日韓の文化交流についての研究はそれほど多くない。東アジア文化交流についての研究は、産業的な分析や文献研究(チョハン・ヘジョン、2003)などが中心になっており、そのうちのいくつかのみが文化受容的な側面を(キム・ヒョンミ、2003、ユン・キョンウォン、2005)扱っている。しかし、彼らの研究も文化交流と量的側面と、社会文化認識においての側面を総体的に把握したり、日韓における文化受容の現象を体系的に比較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

本文では現在日韓で行われている文化交流の現象を、東アジアの文化交流の変化といった枠の中で体系的に把握してみたい。そのために両国を対象にした調査に基づき、日韓の文化受容と相互認識を把握してみよう。これまでの研究のほとんどは日韓の比較の枠を整えないまま国家単位で進められてきたため、日韓両国間の比較ができなかった。また、既存の研究は時期的な変化の意味を歴史的に把握できなかった。従って、この論文では2002年の調査と再び同一な分析の枠の中で2006年の調査を比較することで、2002年サッカーワールドカップ以前と、その後本格化した韓流ブームの進行過程で、日韓の文化交流と相互認識がどう変わってきたかを把握できるだろう。

先ほどの論議に基づき、本章では日本文化開放と韓流ブーム以後、日韓大学生はいったいどれほど相手国のメディア文化を受け入れているのか、また、相手国の社会

文化に対する認識はどう変わったのかを把握し、これを国家間、時期別に比較してみることとする。両国間の認識の違いと時期別変化を推移を調べるために、複雑な統計手法を使わず、技術的な統計で現況を比較してみた。具体的に設定した研究問題は以下の通りである。

<研究問題-1>

日韓大学生は相手国のメディア文化にどれほど触れているのか。また、自国のメディア文化の利用と比較して、相手国のメディア文化に触れる割合はどれほどなのか。これは2002年と比べてどう変わったのか。

<研究問題-2>

日韓国大学生は相手国の社会文化についてどう認識しているのか。これは2002年と比べてどう変わったのか。

<研究問題-3>

日韓大学生は相手国についての親密度と国家、人、文化についての好みをどう評価するのか。これは2002年と比べてどう変わったのか。

研究に使われた1次調査は、2002年6月、韓国の大学生315名、日本の大学生290名など計605名を対象に行われた。引き続いて2次調査は2006年1月、韓国の256名など計598名を対象に実施された。1次調査と2次調査の回答者は韓国と日本に所在する三つの大学の大学生で構成された。韓国ではソウル市内の大学を対象に実施されており、日本も東京周辺を含めた地域の大学から任意で選ばれた。大体において性別と専攻は差がなく分布されたが、日本の大学生の場合、韓国の大学生に比べて年齢が比較的低かった。メディアの利用によって、韓国と日本に対する認識がどう変わっていくのかを把握するために、日韓の大学生を対象に、メディアの利用を総メディアの利用時間と文化商品の利用件数などで分けたり、追加的に彼らの社会文化の認識を調べた。

日韓メディア、文化受容の程度を把握するために、本調査では多様なメディアへの多様な接触の仕方を対象にした。最初に1日メディアの利用量と関連する内容として、テレビ、新聞、インターネット、ゲームなどを利用した時間を測定した。第2に、年間文化商品の利用回数と関連する内容として、映画、アニメ、本、マンガ、雑誌、コンサート/公演、ビデオ/DVDなどを測定した。第3に、文化商品の保有数と関連する内容として、CD/カセットテープ、mp3、ゲームソフト、映画ミュージックビデオのDVD/ビデオ/VCDなどをいくつか持っているのかで測定した。文化認識を聞く測定尺度としては、カン・ヒョンドウ他3名(2000)の研究で提示した韓国文化の測定尺度の中から12の尺度を選び、利用した。最終的に、回答用紙に含まれた測定の尺度とし

ては、「おもしろい」、「わいせつである」、「伝統的である」、「残酷である」、「力動的である」、「幼稚である」、「商業的である」、「楽しい」、「猟奇的である」、「有益である」、「自由である」などだ。最後に、日韓文化交流の増加傾向と影響力を把握した。

IV. 日韓文化交流の一方向的な特徴

日韓メディア・文化商品の流れはどんな様子を見せているのだろうか。それを受容者の受容レベルから把握してみればどうだろうか。2006年の調査資料によると、韓国の大学生の場合、メディアの利用において日本のゲームを1日11分、年間で利用する文化商品の数としてはマンガが44冊で最も多かった。文化商品として持っている数は日本の音楽のmp3ファイルが35個、日本映画の動画が16個であった。一方、日本の大学生の場合、全体的に、韓国のメディアの利用が韓国の大学生の日本の文化の利用に比べて低いことがわかった。つまり、メディアの利用は韓国のテレビを1日1.5分見しており、年間で利用する文化商品も極めて制限されており、文化商品として持っている数はmp3音楽ファイルが5個で他のメディアより高かった。

<表2> 日韓大学生の相手国メディア・文化の利用現況

2006年 相手国メディア・文化利用		韓国の大学生の 日本文化利用 N=342				日本大学生の 韓国文化利用 n=255			
		最小 値	最大値	平均 (5点満点)	標準偏差	最小 値	最大値	平均 (5点満点)	標準偏差
TV 利用量	分/日	.00	60.00	2.97	10.18	.00	60.00	1.50	8.05
新聞利用量	分/日	.00	10.00	.02	.54	.00	2.00	.01 ↓	.13
インターネット利用量	分/日	.00	240.00	1.66	14.87	.00	60.00	.77 ↓	5.71
ゲーム利用量	分/日	.00	180.00	10.75	26.35	.00	240.00	1.47	15.77
映画鑑賞の回数	本/年	.00	50.00	1.89	3.61	.00	6.00	.57	1.10
アニメ鑑賞の回数	本/年	.00	999.00	14.59 ↑	73.83	.00	3.00	.01 ↓	.20
本の利用数	冊/年	.00	30.00	1.80	3.73	.00	20.00	.14	1.31
マンガの利用数	冊/年	.00	999.00	43.54	127.65	.00	4.00	.08	.40
雑誌の利用数	冊/年	.00	60.00	.85	3.82	.00	7.00	.03	.44
コンサート/公演 みる回数	回/年	.00	50.00	.35 ↓	2.99	.00	2.00	.02	.18
ビデオ/DVD 見る回数	回/年	.00	100.00	2.71	9.43	.00	56.00	.78 ↑	4.14
レコード(CD/tape) の保有数	枚	.00	100.00	1.99	6.94	.00	100.00	1.92 ↑	9.22
mp3ファイルの保有数	個	.00	1000.00	34.86 ↑	137.51	.00	999.00	5.47 ↑	64.06
ゲームソフト保有数	個	.00	999.00	9.10 ↑	77.52	.00	20.00	.24 ↑	1.68
映画などDVD保有数	個	.00	300.00	3.05 ↑	17.82	.00	50.00	1.03 ↑	4.94
映画など動画の保有数	個	.00	999.00	16.09 ↑	83.83	.00	300.00	1.38 ↑	18.87
相手国メディアの利用の相対的比率 韓国の大学生：アニメの見る回数(225%)、マンガの利用回数(137%)、ゲームの利用(46%)、 ゲームソフト保有数(56%) 日本の大学生：映画鑑賞の回数(18%)、映画などDVDの保有数(13%)、ビデオ/DVDを見る回数D観 覧(10%) 2002年対比2006年比較：↑ 100%以上増加、↓ 100%以上減少									

こうした結果は、韓国の大学生の日本メディア・文化利用が日本の大学生の韓国メディア・文化利用に比べ比較的多いことを示している。韓国の大学生は日本のマンガやアニメに最も触れており、インターネットを通じて共有されてmp3ファイルや動画ファイルも相当持っている。韓国の場合、ファイルの共有サイト(音の海、チャン共有などのサイト)が発達して、大学生はレコードやDVDを直接購入せず、それらの内容を共有サイトを通じて触れている状況などを考慮すべきであろう。2002年と比べて、文化商品の保有数は日韓の大学生とも増えたことがわかった。それらは主に映画のDVDや動画そして音楽CDやmp3だった。

メディアの利用実体を自国メディアの利用と対比して調べるために、「相対的なメディアの利用量」を調べてみた。韓国の大学生は自国のそれと比べて、もっと多くの日本のメディアに触れている。アニメーションが225%で、マンガが136%に至った。アニメーションとマンガの場合、韓国のメディアを利用するより日本のメディアを利用することが多か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それからゲームソフトとゲームの利用が50%前後を示している。一方、日本の場合、自国のメディアの利用と対比して、韓国のメディアの利用が多いというケースはなかった。また、その利用頻度もあまり高くなく、映画鑑賞は18%で、韓国映画のDVD保有数及び見た回数も10%であった。こうした結果は日本の大学生の韓国メディア受容が、韓国の大学生と比べて微々たるものであるのを見せている。ただし、上記の結果のように、日本の大学生の文化受容においては、韓国の映画が重要性を持っていることがわかる。若い大学生はテレビよりは映画を通じて、韓国文化を受け入れていることを裏付けている。

V. 日韓社会文化における認識の特徴

日韓の大学生は相手国の社会文化についてどんな認識を持っているのだろうか。

<表-3> 日韓の大学生の相手国の社会認識

2006年 相手国の社会認識	韓国人	平均 (5点満点)	標準偏 差	日本人	平均 (5点満点)	標準偏差
よくコピーする	342	2.96	1.09	253	2.67	1.23
素朴である	342	3.36	.96	254	2.84	.89
礼儀正しい	341	3.73	.93	255	3.20	.90
勤勉である	342	3.81	.76	256	3.89↑	.85
残酷である	342	3.95↑	.89	253	2.54	1.04
開放的である	342	3.94↑	1.02	256	2.50↓	.84
淫乱である	342	4.02↑	.88	255	2.34↓	1.04
進歩的である	342	3.05	1.02	256	3.00	.93
信頼できない	342	3.17	1.04	255	2.47↓	1.00
優秀だ	342	3.51	.74	256	3.47	.83
秩序意識が高い	341	3.96↑	.78	256	3.51	.98
スケールが大きい	342	2.50↓	.94	256	2.50↓	.83
感情的である	342	2.64↓	.91	255	3.81↑	1.00
プライドが高い	342	3.46	.93	256	3.77↑	1.00
せっかちだ	342	2.45↓	.79	256	3.32	1.02
情熱的だ	342	2.58↓	.93	256	3.52↑	.98
2002年対比2006年比較 ↓ 0.1以上下落、↑ 0.1以上上昇						

2006年の調査によれば、韓国の大学生は日本の社会に対して、「秩序意識が高い」(3.96)、「開放的だ」(3.94)と評価しているが、そうした肯定的な項目以外にも「淫乱である」(4.02)、「残酷だ」(3.95)などの否定的な項目にも高い点数を与えている。一方日本の大学生は韓国の社会について、「勤勉だ」という評価と共に、「感情的である」、「プライドが高い」、「情熱的だ」などの項目に高い点を与えている。

2002年と比べてみると、日韓の大学生は相手国の社会に対する伝統的な認識について強く同意する内容がさらに上昇したのが見られる。つまり、韓国の大学生は日本の社会が「秩序意識が高い」、「開放的だ」などの項目と「淫乱である」、「残酷だ」などの項目について同意する程度が多くなっており、日本の大学生は韓国の社会が「感情的である」、「プライドが高い」、「情熱的だ」などの項目に同意する頻度が多くなった。これは2002年と比べて、日韓の大学生の相手国の社会に対する固定観念がさらに強くなったことを示している。

＜表-4＞ 日韓の大学生の相手国の文化認識

2006年 相手文化の認識	韓国人	平均	標準偏差	日本人	平均	標準偏差
おもしろい	342	3.61	.89	256	2.89↓	.95
わいせつだ	342	4.07↓	.70	256	2.36	.89
伝統的だ	342	2.99	.91	255	3.21↓	.94
奇抜だ	342	3.92↑	.84	256	2.54	.91
残酷だ	342	3.98	.79	256	2.38	.95
力動的だ	342	3.04	.96	256	2.59	.94
幼稚だ	342	3.13↑	1.00	256	2.44↑	.91
商業的だ	342	4.07↑	.82	256	2.94↑	.99
興が湧く	342	2.57	.89	256	2.98	.86
獵奇的だ	342	4.04	.82	256	2.48↑	.87
有益だ	342	2.71↑	.89	255	2.81	.80
自由だ	342	3.90↑	.95	256	2.62↑	.86
2002年対比2006年比較 ↓ 0.1以上下落、 ↑ 0.1以上上昇						

韓国の大学生の日本文化に対する認識を調べてみると、「わいせつだ」(4.07)、「商業的だ」(4.07)、「獵奇的だ」(4.04)などの項目について点が高い。一方、日本の大学生は韓国文化について「伝統的だ」、「興が湧く」、「おもしろい」、「商業的だ」などの項目の点数が高い。こうした結果は、韓国の大学生の日本文化に対する認識は相当否定的である反面、日本の大学生の場合、韓国の文化に対する認識は肯定的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2002年と比べてみると、韓国の大学生の日本文化に対する認識で「わいせつだ」という項目は減少し、「自由である」、「奇抜だ」、「有益だ」という肯定的な要素が少しずつ増えたが、日本の大学生の韓国文化に対する認識では、「伝統的だ」、「おもしろい」という項目は減少し、「商業的だ」、「幼稚だ」、「獵奇的だ」、というところが増加している。これは韓国の大学生の場合、日本の文化に対する否定的な観念化が少しずつ変わっているが、日本の大学生はかえって肯定的な観念が縮小され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

VI. 日韓親近感及び好感度の比較

日韓の大学生は相手国についてどれほど親近感と好感度を持っているのだろうか。韓国の大学生は親近感を聞く測定尺度で、「日本に行きたい」(4.33)、「日本文化に触れてみたい」(3.89)、「日本語を習いたい」(3.84)などの項目に同意する頻度が多かった。日本の大学生も「韓国に行きたい」(3.98)、「韓国文化に触れてみたい」(3.72)などの項目が高い点で示された。しかし、回答の割合で見ると相手国に行きたいという項目においては韓国の大学生の回答がずっと高く出ている。2002年との比較でも韓国の大学生が「日本に行きたい」、「日本語が習いたい」という項目に比較的にもっと高い賛成の点数を与えている反面、日本の大学生の、「韓国語が習いたい」、「

韓国人に会いたい」という項目はむしろ減少したことがわかった。日韓の大学生の親近感の比較において最も目につくことは、韓国の大学生が比較的、「日本に行きたい」という項目と「日本語が習いたい」という項目で多く回答したが、日本の大学生は点数は低いものの、「韓国人と結婚したい」という認識が比較的に高く現れた。

<表-5> 日韓の大学生の親近感の比較

2006 日韓国の親近感の比較	韓国 大学生	平均	標準 偏差	(日本 大学生)*	平均	標準 偏差
日本人(韓国人)と結婚したい	339	2.42	.99	256	2.60	1.00
日本人(韓国人)に会いたい	339	3.53 ↓	.93	255	3.52 ↓	1.04
日本文化(韓国文化)に触れたい	339	3.89	.81	255	3.72	1.02
日本語(韓国語)が習いたい	339	3.84 ↑	.87	256	3.29 ↓	1.20
日本(韓国)に行きたい	339	4.33 ↑	.73	256	3.98	1.12
2002年対比2006年比較： ↑ 0.1 以上増加、 ↓ 0.1 以上減少 * 日本の大学生に対するアンケート()に入っている						

韓国の大学生は日本に対する「好感度」において、日本文化(3.28)>日本人(3.06)>日本国家(2.68)の順番で「好感度」が高くなっていた。つまり、韓国の大学生は日本文化と日本人に対する「好感度」は高いが、日本に対する認識は比較的に低い。それは植民地の経験など、歴史的に形成された日本に対する否定的な認識が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一方、日本の大学生は「文化の好感度」において、韓国の文化(3.20) ÷韓国(3.19) ÷韓国人(3.18)など同じ項目について似た「好感度」を見せた。つまり、日本の大学生の場合、韓国の文化と国家そして人々に差別的な認識を持っていない。

韓国の大学生は、一般的な韓国人が自分よりも日本に対する親近感が低いと推定している。つまり、自分は日本のことが好きだが、相対的に一般人はそうでないとの認識を持っていることである。日本の大学生は、一般的な日本人は自分よりも韓国人に対する親近感は低いと推定しているが、韓国の文化に対する親近感はむしろ高いとの認識を持っている。

2002年と比べて、韓国の大学生は日本と日本文化に対する韓国の大学生の「好感度」は高くなった。しかし、日本の大学生については変化がなかった。そして、一般人に対する認識推定では、韓国の大学生は日本人の韓国に対する親近感の推定値は高くなったが、日本の大学生の場合、一般人の韓国人と文化に対する親近感の推定値は高くならなかった。

<表 - 6> 日韓大学生の好感度の比較

日韓の文化における親近感の比較 2006	韓国 大学生	平均	標準 偏差	(日本 大学生)	平均	標準 偏差
私は日本(韓国)人が好きだ	339	3.06	.66	255	3.18	.79
私は日本(韓国)が好きだ	339	2.68 ↑	.82	255	3.19	.87
私は日本文化(韓国文化)が好きだ	339	3.28 ↑	.79	255	3.20	.77
韓国(日本)人は日本(韓国)人が好きだ	339	2.43 ↑	.69	256	3.12 ↑	.82
韓国(日本)人は日本(韓国)が好きだ	339	2.05	.74	256	3.19	.83
韓国(日本)人は日本文化(韓国文化)が好きだ	339	3.10	.80	256	3.42 ↑	.76
日本人(韓国人)は 韓国人(日本人)が好きだ	342	3.00 ↑	.64	255	2.45	.87
日本(韓国)人は韓国(日本)が好きだ	342	2.97 ↑	.65	255	2.35	.87
日本(韓国)人は 韓国(日本)文化が好きだ	342	3.46 ↑	.69	255	2.97	.87
2002年対比2006年比較： ↑ 0.1 以上増加、 ↓ 0.1 以上減少 * 日本の大学生に対するアンケート()に入っている						

日韓の大学生は相手国の「好感度」をきちんと推定しているのだろうか。相手国の利害を過大評価(over estimation)するのも、過小評価(hypo estimation)するのも相互の理解のためである。それを調べるために、韓国の大学生が実際に持っている日本に対する「好感度」と日本の大学生が韓国に対して持っている「好感度」の推定値を比較してみた。その結果、韓国の大学生は日本の大学生が実際に持っている韓国人と韓国に対する「好感度」の比較において過小推定し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ただし、韓国の文化に対する「好感度」は過大評価している。そして、日本の大学生の場合、韓国人が実際に持っている日本人と日本、日本国家に対する「好感度」を過小評価している。

これらを総合してみると、韓国の大学生は自分よりは一般人が自分よりは相手国をもっと否定的にみるとの認識を持っている。しかし、日本の大学生の場合、一般人が自分より韓国の文化を好むと考えている。また、日韓の大学生は大体において、相手国が自分らを否定的に評価しているとの認識を持っ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こうした認識はこれまでの日韓の関係が「近くて遠い国」と言われたように、多くの葛藤があったことから始まったとも言えよう。しかし、最近になって文化面での交流と協力の強化は、人と国の「好感度」と区分される肯定的な側面を作り出しているため、肯定的に評価できる。つまり、一般人が韓国と韓国人は嫌っても、韓国文化は好んでいるとの認識は、国家に対する文化認識が常に共に動いてはいないことを提示している。一方、2002年と比べて、韓国の大学生の日本に対する「好感度」は高くなり、日本の大学生の韓国文化に対する「好感度」の推定値は増加する傾向を見せており、それは日本よりは韓国でより明確に現れ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

<表-7> 日韓国の間の文化交流の伝播の増加と受惠国の認識

2006年文化交流及びその受惠国認識	韓国 大学生	平均	標準 偏差	日本 大学生	平均	標準 偏差
韓国日本伝播増加	342	5.54	1.07	253	4.64	1.43
日本文化韓国伝播増加	342	5.27	1.11	255	4.59	1.43
文化交流日本に役立つ	342	5.14	1.07	252	4.82	1.54
文化交流韓国に役立つ	342	4.87 ↑	1.22	252	4.79	1.49
2002年対比2006年比較: 1.0 以上の上昇 ↑						

韓国の大学生は韓国の文化の日本への伝播が、日本の文化の韓国への伝播より増えると認識しているが、日本の大学生も日本の文化の韓国への伝播が韓国の文化の日本への伝播よりもっと増加されると認識している。また、韓国の大学生は日韓の文化交流が韓国にとってよりは日本にとって役立つと認識している。また、日本の大学生も、日韓の文化交流が日本にとってより役立つと認識していた。

VII. 結論：何を考えるべきであろうか。

韓流など、最近巻き起った東アジアでの文化交流は、欧米文化が一方的に流入した今までの状況と比べて、新たな文化の流れとして理解できる。それがアジア的文化の共同体の再発見を意味するものであれ、新たな減少であることには間違いない。こうした現象はジ純粋な東アジア文化の再現を成し遂げることよりは、伝統的な東アジア文化と、現在の欧米化されたアジア文化の混在になり、これは脱近代的か前近代的、または非近代的な(post/pre/non)特独な文化を作り上げるだろう。

従って、東アジアにおける「韓流」は、単純に文化的近接性や文化的類似性に基づいて、機械的に説明する部分ではない。それは確かに欧米的近代化と、それによる欧米文化の一方的な流入が進められてきた、去る100余年の歴史に対する省察から始まった変化と言えよう。また、帝国主義戦争と理念的な葛藤によって分断され、互いの文化の流れが滑らかではなかった東アジアにおいて、この動きは、過去の時代の葛藤を乗り越えて、新たな時代への変化を知らせる序曲でもある。

近代国家が形成される前に我々は、今よりずっと自由に中国、日本そして韓国の間の文化交流をしていた。今、韓、中、日と一緒に共有している仏教、漢字、儒教などの文化的な伝統がまさにそうした交流の結果であり、それが現在東アジア共同体を結束する最も大切な文化的資産である。日韓の間には文化的な同質性と共に多くの葛藤要因の内在している。日韓の間には古くから植民地支配の歴史があり、現在にも韓国とは「独島及び教科書」の葛藤、北朝鮮とは「核実験とミサイル」などの葛藤を持っている。こうした葛藤を解消するうえで、文化交流が相互の理解を高める役割を果たせば、何より意味深いものとなるだろう。この論文の結果から得られるいくつかの意味を整理すると以下の通りである。

まず、日韓の大学生のメディア・文化の利用実体を調べてみると、韓国の大学生において

は、日本文化はとても比重の高い文化コンテンツとして、個人の次元から韓国のものより受容されている側面もある。日本のアニメーションとマンガがその例であるが、それはジャパニメーション(Japanimation)の力を示すのである。しかし、日本の大学生においては韓国の文化の受容は、日本のものに比べて微々たるものである。文化の受容の次元からみて、韓国の大学生における日本の文化の比重と、日本の大学生における韓国の文化の比重の差は大きい。こうした傾向は日本文化の開放以前もそうだったが、日本で韓流ブーム以後も変わっていない。

第2に、日韓の大学生のメディア・文化利用の実体を調べてみると、新聞と放送などジャーナリズムメディア(journalism media)の利用は相当少なく、アニメーションやマンガそして映画やレコードなど娯楽メディア(entertainment media)の利用は相当頻繁であることがわかった。ジャーナリズムメディアが比較的に国家のイメージを大いに盛り込んでいるとすれば、娯楽メディアは国家のイメージを直接に盛り込んでいない。それゆえに、日韓の大学生の文化交流パターンの変化は、過去の相手国に対するイメージを変化させたり、最小限に中立化することができると思われる。

第3に、日韓の大学生のメディア・文化の利用を2002年と比べてみると、音楽と映画コンテンツの受容が急激に増えたことがわかる。具体的に音楽と映画コンテンツの文化商品の保有数が、韓国と日本ともに100%以上急激に増加している。特に、音楽のうち、mp3ファイルを最も多く受け入れており、また、最も急激に増えている分野でもある。韓国の大学生には日本の映画の動画ファイルの受容の増加も目に付く。これは日韓ともにインターネットのインフラが整い、他の様式よりインターネットを通じて共有できるデジタルコンテンツの受容が多かったことを示唆している。

第4に、日韓の大学生の社会・文化認識を比べてみると、韓国の大学生は日本に対して、「近代先進国家」と「倭色低質文化の国」という二重の視線を持っている。つまり、近代化の過程において「先進発展国家」としての日本の社会に対する認識と、日本の文化を公式に統制するために作られた「倭色低質文化の国」の論調がいまだに共存しているのである。一方、日本の大学生の韓国の社会の認識には、「力動的に発展しようとしている国」、「感情的に反応している国」といったイメージが共にある。2002年に比べると、日韓両国の典型的な社会文化の認識はむしろ強化されていることは懸念される点である。韓国の大学生の日本に対する認識では「秩序意識が高い」、「淫乱だ」、「残酷」だという認識が強まり、日本の大学生の韓国に対する認識は「勤勉だ」、「プライドが高い」といった認識が高くなったのがその例である。日韓の文化交流が直接的な出会いを通じて生じるよりは、メディア・文化に触れることに限定されているため、メディアに現れた国家のイメージがかえって固定観念を強めかねないといった仮説の検証が必要だ。

第5に、日韓の大学生の日本の親近感を比較してみると、日韓の大学生ともに相手国に行きたくて、相手国の文化に触れたいことに同意しているが、韓国の大学生の希望の方が、日本の大学生に比べ比較的高い。日本の大学生の回答がもっと多かった項目は「韓国人と結婚したい」というのだ。韓国は日本に対して先進国家としての日本を真似ようとしている「近代的な視線」を持っているのに対して、日本は韓国に対して一種の「オリエンタリズム的な視線」

を持っているのではないと思われる。

第6に、韓国の大学生は日本に対する「好感度」の認識の3次元、つまり、文化、人、国での認識で差が出た。相対的に見ると、日本文化の「好感度」が最も高く、日本国が最も低かった。これは韓国の大学生が日本の国と人に対して否定的な評価をしたこととは裏腹に、日本の文化は好んでいることを反映している。つまり、日本のことは好きではなくても、日本の文化は好きだという若者の認識を反映するもので、今後政治的な変化によって、日韓の葛藤があっても、日本の文化に対する受け入れには急激的な変化はないだろうとの予測が可能である。一方、日本の大学生の場合は、韓国に対する「好感度」が次元別に差別化されていない。

第7に、日韓の大学生の、相手国についての一般人の「好感度」の推定を分析した結果、韓国の大学生はすべての分野において、一般人が自分達よりも日本のことを嫌っているだろうと推定している。これは韓国の中で形成された世論の雰囲気、日本に対して敵対的であるものと大学生が認識していることを裏付ける。日本の大学生の場合、一般人の認識推定では韓国人のみについては好んでいないと推定して、文化の部門においては、自分達より一般人の方がもっと好んでいるだろうと推定している。日本の社会の中で根強い「朝鮮人」に対する否定的な認識と、最近日本の中での「韓流ブーム」を反映したものである。一方、相手国の国民が自国に対する認識の推定も否定的である。現実的に否定的な認識を持っていることと比べて、認識の推定値ははるかに否定的に行っているのだ。それは日韓の相互理解の間に立ちかはかる、最も重要な要素であろう。こうした認識の違いの発生はメディアから起因されるのが多いと推定される。日韓の 이슈を取り扱うメディアが、相手国について否定的なイメージを形成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反省すべきである。

日韓のメディア・文化受容の構図は、認識の分析の結果を総合すれば、未だに日韓の間には一方的な文化の流れが残っており、相手国の文化と社会に対する固定観念があるということから、「近代的な文化交流」の様式に相当の部分が維持されていると言えよう。しかし、新たなメディアの出現と文化に対する差別的な評価など、過去とは違う新たな「脱近代的な文化交流」の様子が、部分的ではありながら現れ初めている。しかし、こうした文化交流の様式がどう定着し、変化していくのかを把握するためには、まだ時間が必要である。同時に、メディア・文化受容に対する分析とともに、日韓のメディアに盛り込まれている相手国に対するステレオタイプ(イ・サンヒ、カン・ミョング、1986) も一緒に研究する必要がある。これまで日韓政府は日韓文化交流の規模を決める役割を担ってきた。日韓の間には外交的な緊張と葛藤が常に存在しているため、これによって文化の交流が縮小されたり、時には拡大されたりした。政策的に日本の文化商品の輸入が禁止したり、開放の水準を調整したりしてきた。しかし、もはやそうした国家管理型文化交流の枠が十分に機能しない状況である。すでにインターネットを通じたコンテンツの流通が日常化している状況であり、一般の市民が国家や文化について自ら評価を下すことができるため、国家による文化交流の管理とコントロールが過去のように効率よくできない。今後の日韓国関係においては、政府間の和解と協力が文化交流を促すという形よりは、市民間の文化交流の成果によって政治的な緊張までも緩和できることを期待する。それこそが「脱近代的な文化交流」の核的な内容であろう。

< 参考文献 >

- イ・サンヒ、カン・ミョング 1986. 『韓国青年の日本に対するステレオタイプ研究』
- 姜尙中. 1997. 『オリエンタリズムの彼方へ』 ソウル:イサン
- カン・ジョンイン. 2004. 『欧米中心主義を越え』:デウ学術総書 564
ソウル:アカネット
- カン・ヒョンドウ. 1985. 『イレットロニクス時代の大衆文化』
ソウル:ヒョンナム社
- パク・のジャ. 2005. 『韓流、誇られるだけなのか』 ハンキョレ新聞、6月20日付
- ヤン・ウンキョン. 2003. 『東アジアトレンドドラマに対する研究』
韓国放送学報、夏、 pp. 197-220.
- ユ・ソンヨン. 1997. 『黄色植民地の文化アイデンティティ:アメリカナイズドモダ
ネティ』 言論と社会、18、 81-122.
- ユン・キョンウォン ナ・ミス. 2005. 『文化地域化とメディア受容者の下位文化:
青少年の日本大衆文化の受容に関する研究』 韓国言論学報. 49巻1号 pp.5-28.
- ユン・キョンウォン ナ・ミス. 2005. 『日本青少年の韓国大衆文化受容と文化的
アイデンティティ』 韓国放送学報. 19巻1号 pp.7-46.
- イ・ドンフ. 2004. 『韓国トレンドドラマの文化的形成—脱国家的文化よう受容
様式を中心に』
- チョハン・ヘジョン他4人. 『‘韓流’とアジアの大衆文化』
ソウル:延世大学出版部 pp. 1-42.
- 岩淵功一. 2001. 『アジアをつなぐポピュラー文化』 ソウル:トハナの文化
- _____. 2004. 『日本大衆文化の利用価値—超国家主義とサイアに対す
る脱植民的欲望』
- チョハン・ヘジョン他4人. 『‘韓流’とアジアの大衆文化』
ソウル:延世大学出版部 pp. 87-124.
- イ・チャンヒョン. 2005. 『東アジア文化交流の近代性と脱近代性:「脱亜入欧」
と「脱亜入欧」の雑湯(またはビビンパ)と文化共同体の形成の方向』
国民大学社会科学研究所社会科学研究第18集. pp. 365-376
- チョハン・ヘジョン. 2002. 『東/西洋のアイデンティティの解体と再構成:グロー
バル地核変動の兆候として読む韓流ブーム』. 韓国文化人類学, 35(1). Pp. 3-40.
- ジュ・ジンオ. 2004. 『19世紀後半文化開化論の形成と展開』
- 延世大学国学大学院. 『欧米文化の受容と近代改革』 ソウル:テハク社
- ハム・ハンヒ ホ・インスン. 2005. 『冬のソナタとチョウのファンタジー日本の
韓流に出会う』 ソウル:ソファ

ホ・ジン. 2002. 『中国での韓流と韓国ドラマの受容』
韓国放送学報 16-1. pp. 496-527.

Gyu-Chan Jeon, Tae-Jin Yoon. Realizing the Korean Wave into an Asiatic Cultural Flow.

Lerner, D. (1963). *Toward a communication theory of modernization*. In L. Pye(Ed.), *Communications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NJ:Princeton University Press.

Straubhaar, J.(1991). Beyond Media Imperialism: Asymmetrical Inter-Dependence and Cultural Proximity.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8, 39-59.

Tomlinson, J.(1991). *Cultural Imperialism*(Baltimore:Johns Hopkins Press).

Robertson, R.(1995). Glocalization: Time-Space and Homogeneity-Heterogeneity. In M. Featherstone, S. Lash & R.

Robertson (Eds.), *Global Modernities* (pp. 22-44). London:Sage.

Lee, Changhyun (2003). The one way flow of cultural goods and it's social impact of consumption : A case study of Korea and Japan.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Econometrics of Cultural Goods" at Padova, ITALY April 2004.

Lee, Changhyun, Taejin Yoon, Seunghye Sohn(2002). Reception of the Korean Broadcasting in Yanbiun Chinese .paper presented in ICA Conference in Seoul.

Boyd-Barrett(1977). "Media Imperialism: towards and international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media system," in Curran et al.(eds).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London : Open University.

발 표 Ⅱ
發 表 Ⅱ

일본 공공권에 있어 한류 붐의 위치

- 매스미디어 시스템에 있어 여성 오디언스의 문제점

日本の公共圏における「韓流ブーム」の位置

ーマスメディア・システムにおける女性オーディエンスの問題

◎ 하야시 카오리

林香里

동경대학교 대학원 정보학환 조교수

東京大学大学院情報学環助教授

日本の公共圏における「韓流ブーム」の位置

—マスメディア・システムにおける女性オーディエンスの問題

林香里

1. 「冬のソナタ」人気をふりかえって

日本では、2003 年から、中高年の女性たちの間で「冬のソナタ」をはじめとする「韓流ドラマ」がたいへんな人気を博した。その人気のほどは、日本だけでなく、世界を巻き込んだ論争を引き起こした。ブームが最盛期の 2004 年には、この「韓流ブーム」が日本と韓国の外交関係の改善につながることを期待する議論が多かった（たとえば”Soap Opera Diplomacy” In, Far Eastern Economic Review September 16, 2004.）。しかし、この期待は、その後、少しずつ裏切られていく。当たり前のことではあるが、日韓の二国間関係は、両国の歴史認識の違いやさまざまな現実の外交問題により、いまだに複雑であることにほとんど変化がない。むしろ、小泉政権時代は、竹島／独島問題や、靖国問題のために国家間の対話は閉ざされ、悪化した。また、それとは別に、一部のメディアやインターネット上では、「韓流ブーム」をきっかけに、「嫌韓流ブーム」というものも誕生した²。このブームは、『嫌韓流』というマンガの発売がきっかけとなっているが、このマンガでは、韓国に対する激しい嫌悪の感情があからさまに表出されている。「嫌韓流」現象は、とくに男性、しかも若年層の男性の間に広がっていると言われ、「韓流ブーム」の当初の期待とは逆行する現象である。

ところで、「韓流ブーム」について論じる論者たちのなかには、この現象をまったく別の視点から捉えた者もいた。すなわち、これを日本の女性たちの欲望や生活世界の問題として捉えたのだった。つまり、彼女たちが韓国の若い俳優にここまで熱を上げるのは、自分のパートナーである日本の男性に愛想を尽かしているからではないか、とか、日本の家庭に残る家父長制の無意識の抵抗現象ではないか、など。こちらの側の議論も、学界やマスメディアを巻き込んで盛り上がったのだった。

以上のような議論のうち、前者は韓流ブームを社会全体への影響、つまりマクロに捕らえた議論として、後者は韓流ブームを女性個人の生活における機能として、つまりミクロに捕らえた議論として把握することもできよう。しかし、さまざまな社会問題と同様、マクロな社会的効果と、ミクロな個人的欲望とは、実はさまざまな意味で深く関わりあっていると考えたほうがよい。では、女性たちの大衆娯楽へのパーソナルな嗜好は、社会や国家という非人格的単位と、どのように繋がっているのだろうか。

本論では、女性たちが生活世界のなかで個別に「韓流ドラマ」を娯楽として好んで視聴する行為が、社会的ブームとなったことによって、「韓流ドラマ」というジャンルが再帰的に社会における「女性的ジャンル」として確立していくプロセスとその社会的意味を取り上げたい。そのために、まず、歴史のなかで「女性の娯楽」がどのように語られてきたのか、「女の娯楽」

に向けられてきたまなざしを検討し（2 章）、つぎに日本におけるマスメディアと女性オーディエンスの関係について考える（3 章）。さいごに、こうした背景のなかで、現代の「韓流」というジャンルを考えたい（4 章）。最終的に本論が「韓国」という国が、今後日本においてどのような位置を占めることになるのだろうか」を予想する際のひとつの補助線になればと願う。

2. 女性の娯楽：「解放（liberation）」か「現実逃避（escapism）」か？

2004 年から 2005 年にかけて、私は「冬のソナタ」がなぜ日本の中高年女性において好まれたのか、彼女たちはこの番組のどこに楽しみを見出すのか、番組を見たあとに彼女たちは何をするのか、ということなどについてさまざまな観点から調査、分析した（林 2005/金 2004）。

今回、本論文でとくに取り上げたいのは、私たちが 2004 年に行なったアンケート調査でもっとも印象深かった点、つまり 93%の回答者が女性だったこと、ファンの平均年齢は 47.3 歳であったこと、そして、ドラマの鑑賞の仕方は、一人きりで、何度も繰り返し、という特徴がきわめて顕著であったということ、この 3 つのデータをめぐる社会的意味合いである。後者の視聴行動に関しては、アンケート回答者の約 7 割が一人で視聴したと回答し、さらに回答者の 8 割以上は全編 2・3 回以上繰り返し視聴したと答えていた。ここから、「冬のソナタ」というドラマは、日本の中高年の女性たちによって、一人で、しかも何度も繰り返し楽しまれていた、という像が浮かび上がってくる。さらに、多くのファンの手紙を読むと、彼女たちが「冬のソナタ」を見ている間だけは、育児や介護や夫の世話といったさまざまな責任をいったん置いて、「自分のためだけの個人的時間」を楽しむ、という姿も浮かび上がってきた。「一人で」「繰り返し」ドラマを視聴して空想のロマンスに胸を躍らすという楽しみ方は、欧米ではすでにソープ・オペラ（連続劇ドラマ）の視聴の研究（Modleski 1979; Ang 1985）やロマンス小説を読むことの研究（Radway 1991）などで言及され、分析されている。とくに、米国の社会学者 J.ラドウェイの著作では、女性たちが毎日一人きりで静かにロマンスの世界に浸って、普段の仕事から自由な空間（a free space）を楽しんでいることを、ファンに対する聞き書きによって明らかにしている（Radway 1991: 93）。

興味深いことに、女性たちはずいぶんと長い間、そして洋の東西を問わず、このジャンルの娯楽を「個人の解放」と結び付けながら、楽しんできた。これが「女性性」にどのように関わるものかどうか、という点は慎重な検証が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が、たとえば、明治から大正期にかけて女性たちの人気を集め、新聞や婦人雑誌で流行した「家庭小説」というジャンルもそうだった。明治期の終わりに、当時少しずつ誕生していたとされる「中産階級の女性たち」は、「イエ」の重責からのつかの間の心理的解放を得るために「家庭小説」を読んだという（金子ほか、1990; 飯田 1998; 前田 1973）。ここで、この日本の「家庭小説」がどのようなものだったかを見るために、その代表的な作品として挙げられる『己が罪』の内容を見てみよう。飯田祐子によるあらすじを引用する。

主人公は箕輪環という女性である。彼女は女学校時代、医学生にだまされ妊娠する。結婚が叶わぬことを悟った環は自殺を試みるが助けられ、生んだ子どもを里子に出して帰郷する。父の願いでそれまでの事情を隠したまま子爵桜戸隆弘と結婚。隆弘との結婚は穏やかなもので、正弘という子をもうけるが、秘密を抱えた環は安心を得ることがなかった。その後、腸チフスに罹った正弘の療養のため訪れた房州で、里子に出した子どもと再会するが、母と名乗ることのないまま、子ども二人は溺死してしまう。己の罪がすべての原因と覚悟を決めた環は、過去を隆弘に打ち明ける。父の必死の自決で離縁は逃れ、環は看護婦に、隆弘は海外へと別居するが、旅先で危篤に陥った隆弘を環が献身的に看護し、愛を確かめ合った二人は真の幸福を得ることになる。(飯田 1998: 51)

これは、現代の韓流ドラマに多く見られる筋書きである。「幼なじみ」「恋愛」「運命」「事故死」「親」「結婚」が展開するストーリーは、日本で人気を博した「冬のソナタ」をはじめ、「美しき日々」「天国の階段」など韓流ドラマの王道である。「冬のソナタ」のあらすじを見てみよう。

母と妹と3人で暮らすチョン・ユジン(ユジン)は明るい女子高生。幼なじみのキム・サンヒョクとは家族ぐるみの付き合いでまるで兄妹のよう。そんなある日、ユジンはソウルからの転校生カン・ジュンサンと恋に落ちた。しかし、突然の交通事故が2人を引き裂き、初恋には終止符が打たれる。

10年後、建築デザイナーとして活躍するユジンは、サンヒョクと婚約することに。そんなユジンの前に、ある日ジュンサンと瓜二つのイ・ミニョンが現われて、ユジンの心は揺れ動く。そんなとき、イ・ミニョンは交通事故に遭い、その衝撃から記憶が甦って、自分はカン・ジュンサンだということを知る。こうしてユジンとジュンサンは再会し、結ばれるかに見えたが、やがてジュンサンの出生の秘密が暴かれ、二人は腹違いの兄妹かもしれないという疑惑が訪れる。結局二人は別れることになり、ユジンはフランスへ留学する。ジュンサンは事故の後遺症で失明してしまうが、数年後に二人はジュンサンが設計した「不可能の家」で再会を果たして愛を確かめ合ったのだった。

あるいは、「美しき日々」のあらすじは、次のようなものである。

ヒロインで、レコード会社ビクトリーで働く孤児のヨンスは、孤児院で妹のように可愛がっていたセナの行方を捜していた。そんなとき、ヨンスは勤め先の上司であり、ビクトリーレコードの御曹司であるミンチョルと出会う。ミンチョルの家庭は裕福だったが、人間関係は複雑で、ミンチョルはとくに異父弟で

ある医大生のソングジェとのライバル意識が強かった。やがて、ミンチョルもソングジェもヨンスに思いを寄せるが、ようやくミンチョルとヨンスが幸せに結ばれるかに見えたときに、ヨンスの病が発覚する。ヨンスの病状は悪化し、ミンチョルたちは骨髄移植の可能性を求めて、骨髄検査の協力を広く呼びかける。さまざまな試みの後、ミンチョルは思いがけなく、日本の骨髄バンクから移植可能との連絡が入ったという知らせを受けて、二人は幸福を取り戻す。

「冬のソナタ」をはじめとするいわゆる「韓流ドラマ」が大人気を博したとき、多くの評者はこうした「古臭い」筋書きが日本女性の心を掴んだと評していた。小倉紀蔵は、韓流ドラマは、モダンな「ベタさ」、「純粋性」、「ロマンチックさ」を持ち合わせた「理念追求型」であるのに対して、価値多様化が進むポスト・モダンな日本では、もはやそういうタイプのドラマは姿を消してしまった。そのため、日本の中高年女性は、久しぶりにこのクラシックな理念追求型ドラマに出会って、なつかしくも新鮮な感情を抱いたのだと説明した。(小倉 2005: 226-227)。

女性が恋愛ドラマやロマンス小説を好むことは、「近代」という時代と緊密な関係にある。近代とは、身分制の廃止とともに自由な恋愛が理念として謳われ、ロマンチック・ラブによる婚姻の締結が理想の時代である一方で、親密圏では依然として家父長制が支配してきた時代である。パーソナルな関係では自由に自らの感情を表出し、幸福を追求し、愛することが理想として奨励されながらも、「結婚、家族、あるいは教育という諸制度をこの原理に基づかせることは、それとは別の事柄」(ルーマン 1982=2005: 199-200)となった。つまり、近代とは、多くの人間にとって、人間の関係性ごとに、場面ごとに、そして空間ごとにパーソナル/インパーソナルという関係性の理念や論理を調整することが要求される時代である。こうしたなかで、女性たちは、人間関係の不透明さの網目をくぐりながら、〈近代社会の理念〉〈近代社会の実態〉〈女性の規範〉の3つの相克を生きていく上で「焦点の定まらない不満(unfocused dissatisfaction)」や「漠然としたあこがれ(indistinct longings)」(Felski 1995: 90)を抱く。

不安定、不透明かつ流動的な一別の言い方で言えば「自由な」一人間関係のなかで、女性たちの多くは、「運命」というものに身を委ねなければならない主人公の生き方に自らを重ね合わせることによって逆説的に、ひとときの「解放」感を味わう。この点において最も示唆的なのは、Radwayの研究だ。調査した米国女性たちの間では、17世紀から18世紀を舞台にしたヒストリカル・ロマンスに最も人気が集中していた(Radway 1991: 121)。国民国家形成期の激動の明治期を生きた女性にとっても、現代の米国という資本主義近代国家に生きる女性たちにとっても、あるいは日本の高度経済成長を生きた女性たちにとっても、「運命」を決定されたヒロイン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追体験することが、娯楽となり、カタルシスとなっている。私は、2004年8月から2005年10月までの期間に、約500通の番組「冬のソナタ」へのファンレターを読んだ。そのなかには女性たちが、このドラマを見てひとときの解放感を味わっている様子が窺える。

私は 5 年間実母（八十三才）の介護をして来ました。去年四月何気なくテレビ（NHK）のチャンネルをまわした所、ヨン様がインタビューに答えていらっしやった画面が映っていました。思わずこの人は誰なのかしら？と見入ってしまいました。それから私は冬のソナタという韓国ドラマを知りました。以来冬のソナタのDVDを早速娘と買ってみました。母の介護で疲れた時、冬のソナタを見ると疲れも取れる様になり、すっかりヨン様ファンとなり、DVDも何十回と見て修理に出した程です。（女性、千葉県、60 才）

「冬のソナタ」は強力な私の心の栄養剤です。この栄養剤で介護の生活を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冬のソナタ」を製作して下さったユン・ソクホ監督、脚本家、音楽の方、声優の方々 それに主人公のヨン様、色々な表情に素晴らしいほほ笑み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チェ・ジウさんの透明な美しさにも拍手を送りたいと思います。（兵庫県、女性）

今まで仕事と子育てに追われ、つまらない生活だったのが一転、張り合いも出来ましたし、幸せを感じるんです。（東京都、女性、41 才）

ところで、こうした近代の女性と恋愛ロマンスに関して私が注目したいのは、ロマンスやソープオペラを見るというやり方で自己を解放するという女性たちに対する非常にネガティブな見方である。こうした「解放」は、多くの場合、「現実逃避」という言葉で語られてきた。

青野季吉は、1925 年に「婦人雑誌の通俗文学」（掲載紙未詳 大正 14 年 6 月初出、『転換期の文学』昭和 2 年 2 月所収）という論考で、こうした娯楽の享受の仕方について、次のような評価を下していたという。長くなるが、欧米のロマンス小説の効用、そして現代における韓流ドラマの視聴の批評と驚くほどの相似形をなしているので、前田愛の著作から引用する。

（・・・）そこでさう云ふ拘束力（男女関係の慣習や、女性の社会的活動に関する制度的習慣—筆者注）を最も多く受け易い中小ブルジョアジーの女性が、その諸多の要求を実際行動において満すとすれば、その拘束力と面と向って闘争し、それを断ち切らねばならぬ。（中略）しかし普通の女性はその勇敢さを持ち合わせてゐない、勇敢と見ゆるその行動を執るに都合のいい状態におかれてゐない。彼女等はやはりその拘束力には触れないで、安易な道によって、その内心の要求を満足して行くより外はない。（中略）この安易な道についての内心の要求の満足といふ欲求が、彼女等をして文学を愛好せしめる根本動機である。（中略）その破壊も、批評も、その自由の世界の創造も、決してラヂカルな色彩を持って居てはならぬ。それは情感的要素によって、内容に於いても表現に於いても、適度に緩和され、『詩化』されね

ばならぬ。(前田 1973: 210-211)

前田愛が引用した青野の「家庭小説」およびそれを読む女性たちへのクリティックは、今日の「韓流ドラマ人気」の文脈でもよく聞かれる「おばさんたちの安易な現実逃避」という線を踏襲している。「冬のソナタ」の批評では、ファンとほぼ同世代の女性作家岩井志麻子が「韓国スターに熱狂するおばさんたちの気持ち、よくわかりますよ」と断った上で、以下のような辛らつなコメントを述べている。

まあ少女マンガみたいなもんですね。(中略)「冬ソナ」も現実じゃないからいいんです。(中略) そうした夢の世界にどっぷりつかるとおばさんたちのことを「現実世界が幸せじゃないから」と言う人もいますよね。でもそれは逆じゃないかな。幸せだから、安心してミーハーになれる。ほんとに不幸だったら、出会い系とかでナマの男をつかまえるはずですよ。「冬ソナ」ブームは、幸福な主婦の象徴。(岩井 2005 39)

岩井は「冬ソナ」によって現実逃避をするファンは、日本に多数存在するふつうの「幸せなおばさん」だという。生活には困らない彼女たちが、かりそめに慰めを得る「冬のソナタ」—この意見にはファンからはいろいろな異論が出そうである。私がこれまでファンレターを分析したところによれば、ファンたちは「幸せなおばさん」というよりはむしろ、「堅実なおばさん」という言葉のほうが当てはまるように思う(林 2005: 28ff)。日々の家での責任をきっちりこなして日常生活を支障なく運営している彼女たちは、「ほかのところではきちんとやるべきことはやっているのだから、せめてこのぐらい」と考えて、「冬ソナ」やそのほかの韓流ドラマの DVD を買ったり、グッズを集めたり、韓国旅行に出かけたりする。つまり、その意味で「現実世界が堅実だから安心してミーハーになれる」と言えるように思う。

ロマンスを愉しむ女性たち自身の言葉では「自由な空間」や「解放」の獲得であっても、評論家たちの言葉では「現実逃避」となる。このような両者の間の言説のズレは、世界中のあらゆる場所でしぶとく長生きしている。先に引用したラドウェイも、女性たちのロマンス小説を読むという行動に対して基本的に理解を示しながらも、最終的には、著書のいちばん最後ではそれはあくまでも「代替的 (vacarious)」なものでしかない、ということを強調した。

我々のような社会変革にコミットする者たちが、こうした(ロマンス小説を読むという—林注) 最小限の、しかしそれにもかかわらず正当性のある抵抗の形を見過ごさぬように知ることはたいへん重要だと思われる。その起源やユートピア的あこがれを理解するだけでなく、そこにむけていかにうまく励ましを与え、実現につなげるかということ学ぶためにも模索していかななくてはならない。もし、それをしなければ、我々はすでに戦いに譲歩したことになる。つまり、少なくともロマンス小説の場合であれば、そういうものを読んで代替的愉しみを得るというようなことが必要なくなる

世界を創造することは不可能であるということを認めてしまうことになるのである。

(original quote) I think it absolutely essential that we who are committed to social change learn not to overlook this minimal but nonetheless legitimate form of protest. We should seek it out not only to understand its origins and its utopian longing but also to learn how best to encourage it and bring it to fruition. If we do not, we have already conceded the fight and, in the case of the romance at least, admitted the impossibility of creating a world where the vicarious pleasure supplied by its reading would be unnecessary. (Radway 1991: 222)

果たしてロマンスを読む楽しみをそのまま受け止め、認めることは、フェミニズムの敗北であろうか。ラドウェイの言うような女性たちの「代替的な楽しみ」という言葉の裏には、代替ではない、「ホンモノの楽しみ」というものがあるはずだということがつねに含意されている (Ang 1996: 104ff)。それはいったい何だろうか。

このように女性の娯楽について批判的な目を向けるのは、ラドウェイのようなフェミニストや青野のようなマルクス主義的文芸評論者だけではない。保守的な男性たちからも、ロマンスにうつつを抜かすぐらいなら、もっと「堅実な」母性愛や夫婦愛を大切にしろ、と言う声が聞こえきそうである。実際、男性読者中心の週刊誌の言説にはそのような論調が多く見受けられた (林 2005: 51ff)。「家庭小説」にせよ、ロマンス小説にせよ、「冬ソナ」にせよ、評論家たちは、それらを生活にはあまり不自由しない「中流」女性たちが気軽に手を伸す代替的娯楽であり、現実の日常生活を揺さぶるような「ホンモノ」でもなく、ゆえにどうしても必要な本質的なものではない、と見なしている。しかし、ほんとうにそうだろうか。

精神医学者の宮地尚子は、あらゆる女性たちにとって、「親密的領域」からは区別される「一人でいられる場所」「他者からの評価から逃れられる場所」「あるがままでいい場所」「安息・休養の場所」としての「個的領域」を意図的に確保していくことがたいへん重要だということを、DVを受けた女性たちの症例をもとに主張している (宮地 2005: 127ff)。この議論に習えば、恋愛ドラマやロマンス小説は、ある意味で女性たちが自分たちの生活を大きく変更することなく、他からの助けを得ずとも自分自身で気楽に用意できる「個的領域」空間なのではないだろうか。したがって、私が観察したような堅実な家庭の女性たちは、「このぐらいなら」と考えていっそう夢中になれ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個的領域」とは、必ずしも4つの壁に区切られた部屋である必要はない。女性にとってのひとつの意味空間だと見るべきだろう。娯楽は、そもそも、そういう意味での息抜き場をつくる。親密圏と個的領域との境界線が見えにくい家庭に居る女性たちにとって、何らかの別の意味空間の創出は、非常に大切である。現実の生活を脅かすようなものではないからと言って、あるいは、単なる娯楽だからと言って、そのことに否定的なまなざしを向ける必然性はない。多くの女性にとっては、この程度の娯楽を愉しむことで、生活が潤うならばそれは非常に積極的な意味をもつのである。

しかし、結局、女性たちを愉しませてきたロマンス小説や恋愛ドラマといった娯楽は、現実逃避という言葉によって表現されることで、それが単なる間に合わせのものであり、その愉しみは本質的なものではなく、浅薄でつまらないものだ、とされてきた。奇しくも、保守的な男性とフェミニストとは、ここに意見の一致を見ることになった。さらに、このような女性の娯楽への蔑みの意識は、メディアの作り手側にも伝わり、制作現場にも反映されることになる。どうせ本質的な楽しみでないならば、あまり時間をかけてつくる必要もない、と。ソープオペラの制作費が他の番組に較べて格段に低いのは、たんに昼間の番組だから、というだけではなからう。

これまでおおむね、女性の娯楽、とりわけ女性向け小説やドラマ研究については、なぜ女性たちがそこに「解放」や「自分の時間」という点にこだわるのか、あるいはなぜかくも多く、この女性がこの類の娯楽に愉しみを見出すのだろうか、という点を解明しようとする言説よりも、むしろ「女性人気」を得たジャンルについての批判的言説のほうが広く流通してきた。そして、そのことは、社会において再帰的にこの「女性の娯楽」というカテゴリーの平準化を推し進め、現代社会の娯楽の原動力であるマスメディアの世界にもさまざまな副次的効果を生むことになる。次章ではその点について見ていきたい。

3. 女性人気という「通俗化 (trivialization)」効果の歴史

ここまでは「女性の娯楽」をめぐる女性個人の側と社会の側との間の受け止め方におけるズレを見てきた。こうしたズレは、社会のなかで「女性用の娯楽」がつけられる過程にも反映されてきた。すなわち、一般的に、マスメディアにおける「女性用」とは、「女性レベルに間に合わせたレベルの低いもの」という意識が制作側に働いて制作されてきたということである。

一般的に、あるコンテンツが（中高年）女性によって支持されているとする言説は、単に「オーディエンス」の年齢や性別という特色を描出するために語られるだけではない。それはむしろ、「（中高年）女性に好かれている」という語りによって、人気の出たコンテンツの中身に価値評価を下す文脈に置くこうとする意図をもっていることが多い。つまり、より端的に言えば、マスメディアにおいて何かのジャンルが「（中高年）女性の間で人気が出た」とする言説は、そのコンテンツの「通俗性」を意味し、さらにいったんそのような「通俗性」を付与されたカテゴリーは、再帰的にいつそう自らの「通俗化」を進行させ、女性というジェンダーとは無関係の、匿名性の通俗性と大衆性を獲得していくという展開を見せるのである。そうした事例を見てみよう。

a. 家庭小説

まず、さきに挙げた明治 30 年代の「家庭小説」というジャンルに関する議論である。それは、「新聞連載小説」という形で、新聞というメディアを舞台にして広がった「文学」ジャンルであった。それは、「ほとんどすべて新聞記者によって、直接に自己の購買者を意識して書かれた新聞小説」（瀬沼 1969: 428）と言うとおり、ジャーナリストが書いた小説だった。今日の日本の文学史で、日本の「通俗小説」の原点として理解されるこの「家庭小説」という

ジャンルは、当初「新聞を読者家庭の日常に容易に入り込ませ、家庭との結びつきを強固にした接着剤」（金子 1990: 134）としての役割を付与された。（金子 1997: 136）。

他方で、文学界のほうも、「家庭小説」を当時不振に陥っていた文壇の打開策と見なしていた。当時の文壇は、深刻小説・悲惨小説というものが流行し、それらの道徳的水準が低いために「女学生に小説の閲読を禁ずべしなどといふ議論すら出ている」（瀬沼 1969: 422）状況だった。こうして、新聞と文学双方の利害が一致した「家族の団欒」という概念に目をつけて、「文学」の売り込みが開始された。当初は、この売り込みの作戦には、男性や女性という限定はなかった。内容的にも、「健全性」「道徳性」といった理念を看板にしたものであり、まだ萌芽期の「都市家庭」、および「中流階級」を狙ったものだった。なによりも、黎明期の「家庭小説」構想とは、必ずしも「非芸術性」を指すものではなかったという（金子 1997: 133）。

つまり、「家庭小説」は、登場した当初は、文学内部の一ジャンルであり、「文学」の外側、つまり文学的価値の低いジャンルとして考案されたものではなかった。しかし、にもかかわらず、「家庭小説」というジャンルが、「家庭向け」から「女性向け」と言う通念へと組み替えられていくにつれて、変化が訪れる。「女性たち」は、「非芸術性」の受け手として配置され、そのことがこの文学のジャンルに「通俗化（trivialization）」をもたらした。以降、「女性読者と通俗性は、家庭小説というジャンルの中できっちりと結び合わされて」（飯田 1998: 34）いく。

つまり、「家庭小説」は、「女性が読んでいる」という意味で「非芸術的文学」というジャンルを背負っていく一方、「読まれない文学」というカテゴリーを喚起する効果ももたらした。飯島祐子によれば、「読まれない文学」のほうは、やがて、女性たちにとっては「読めない文学」と理解され、女性以外が読む「芸術性ある正統派文学」として理解されていくのだった（飯田 1998: 66ff）。その後は、家庭小説は婦人雑誌に掲載され「女性に人気のジャンル」となる一方で、廉価の通俗読み物として新派演劇や新派悲劇の原動力となっていく（金子 1997: 154）。

「こういう流行は、たとえば『乳姉妹』の前編巻頭にのせられた写真版がしめすように、慈善音楽会に良家の子女による活人画をみせたり、また『渦巻』の巻頭にのせた写真版が教えるように、渦巻人形、渦巻染、渦巻織を初めとし、髪型、髪飾り、半襟、袋物にいたるまで、渦巻模様をつくりだし、百貨店とタイ・アップして宣伝・流行するまでにいたっている。」（瀬沼 1969: 428）女性に読まれるジャンルとしての家庭小説は、消費文化ともしっかりと手を結んでいっ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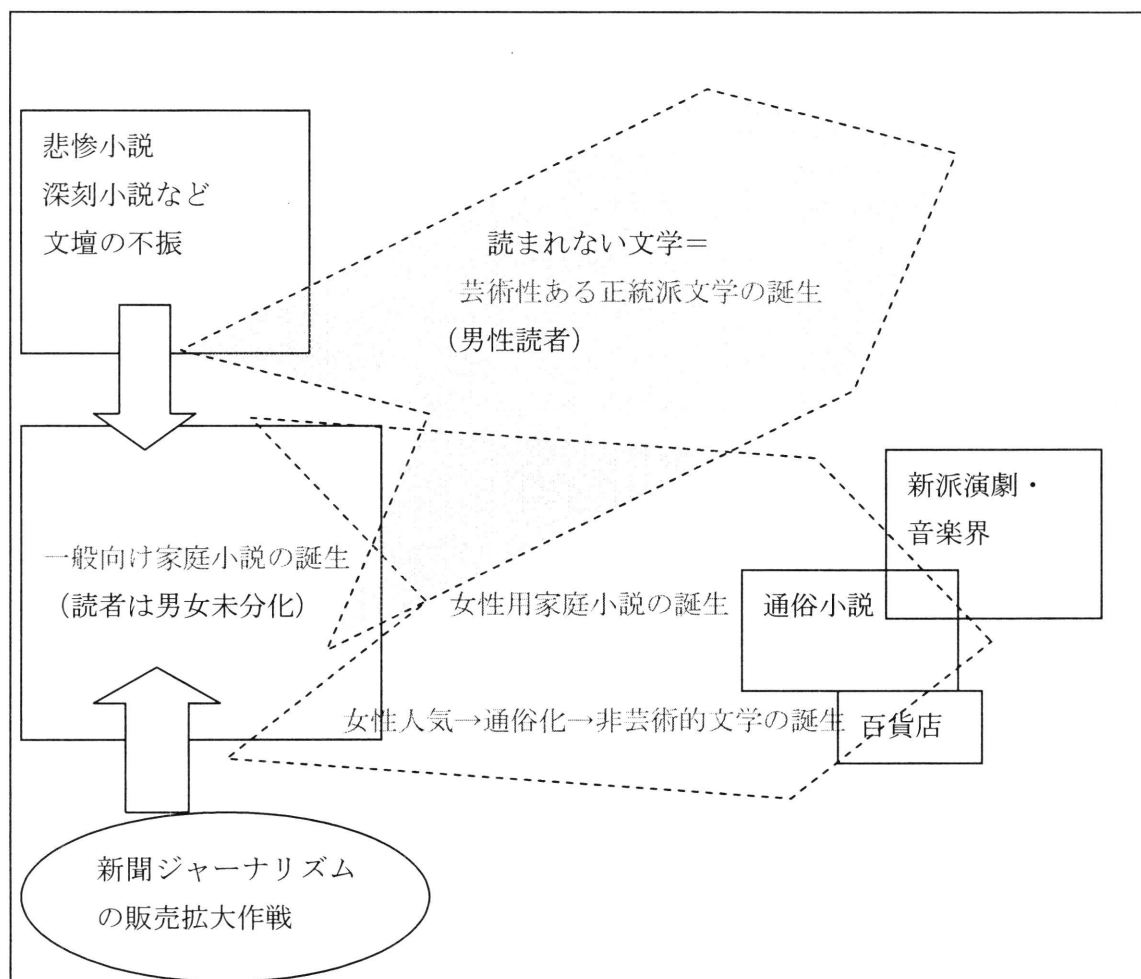


図1. 家庭小説の成立・発展の経緯

b. 家庭面

女性向けということを宣言することによって、特定のジャンルが再帰的に通俗化＝非芸術化＝陳腐化の流れをつくっていくというプロセスは、家庭小説の分野だけではない。ジャーナリズムにおいても同様の現象が確認できる。私は別の論考において「婦人欄」という新聞面の歴史と内容を分析した。「婦人欄」は、名前のとおり、女性読者用に作られた。しかし、それは女性読者への拡張が目的となって、発達した。それは、一方で、やがて「欄」から「面」へと発達し、いまでは毎日専用のページを持つまでに成長した。しかし、この発展の裏側では、男たちによる男のためのメディアであった新聞を通俗化させたページとして長く「ナベカマ欄」と疎まれ、蔑まれて「本流ジャーナリズム」とははっきりと区別されてきた。このように、新聞の発行部数を拡大するために女性読者をとりこもうとして、「婦人欄」を設ける動きは、日本だけではなく、すでに19世紀の終わりに英国でも確認されている（x x x x）。発端のほとんどは、市場拡大が目的であり、内容もそうした目的に合わせて決定された。

しかしながら、この欄は、成長の過程で、当初の新聞企業側（つまり男性側）の意図とは異なった多様な展開を見せてきた。まずなによりも、この欄ができたことによって新聞社に「婦人記者」が採用され、男性記者たちとは異なる視点からの報道を生み出していった。また、戦後まもなく、新聞の民主化運動と女性や労働者を中心に隆盛した「生活綴り方」運動が重なって、「女性が書く」という行為の普及をもたらした。とくに、朝日新聞は、全国の新聞の先駆けとなって、「ひととき」という女性読者専用のコラム欄を設けた。その後、こうした女性参加型のコラムは、日本のほとんどの全国紙と地方紙に広がった。この女性による新しい言論空間は、記者と女性読者との緊密な対話空間となり、投稿者たちは全国各地に自主的なネットワークを組織して社会運動とも関わっていった。さらに、女性専用の投稿欄は、いわゆる一般向けの「新聞投書欄」とは異なり、記者たちのニュースのネタとしても活用され、マスメディアとしては先駆的な双方向的草の根市民ジャーナリズムを実現させた。また、「婦人欄」は、70年代に初めてフェミニズムを日本に紹介した空間であり、さらに沖縄の問題や環境問題への取り組みなども独自の報道を展開してきた。読者と記者の比較的近い距離によって、新聞家庭面はジャーナリズムの本質的な役割を発揮してきたといえる（林 2003: 234ff）。

しかし、そういった功績を上げていったことは、いわゆる「本流ジャーナリズム」の編集側からはほとんど無視されてきた。こうしたジャーナリズムは、ほんの少し前まで「おんな用」であり、ジャーナリズムとは見なされなかった。また、このセクションで働くジャーナリストたちも、社内では二流、三流扱いだった。

ところが、80年代以降、新聞部数売り上げ減少の傾向が深刻になるにつれ、「家庭面」的文章は、「売り物」になるという認識が台頭してそのスタイルはありとあらゆるジャンルに広がっていった。新聞拡販戦略のなかで、政治、経済などの記事も、よりわかりやすく、誰もが親しみがもてる「生活面的なるもの」を追求するように方針が転換した。かつて、ジャーナリズムと見なされず、「ナベカマ欄」と言われて蔑まれてきたスタイルは、高度情報化時代のいま、その経済的効用が認知され、紙面全体に拡張されていく。

しかし、その一方で、かつて婦人欄・家庭面で隆盛を見た女性たちのユニークなネットワーク³や記者と読者の双方向交流などは、時代の流れとともに衰退、弱体化していっ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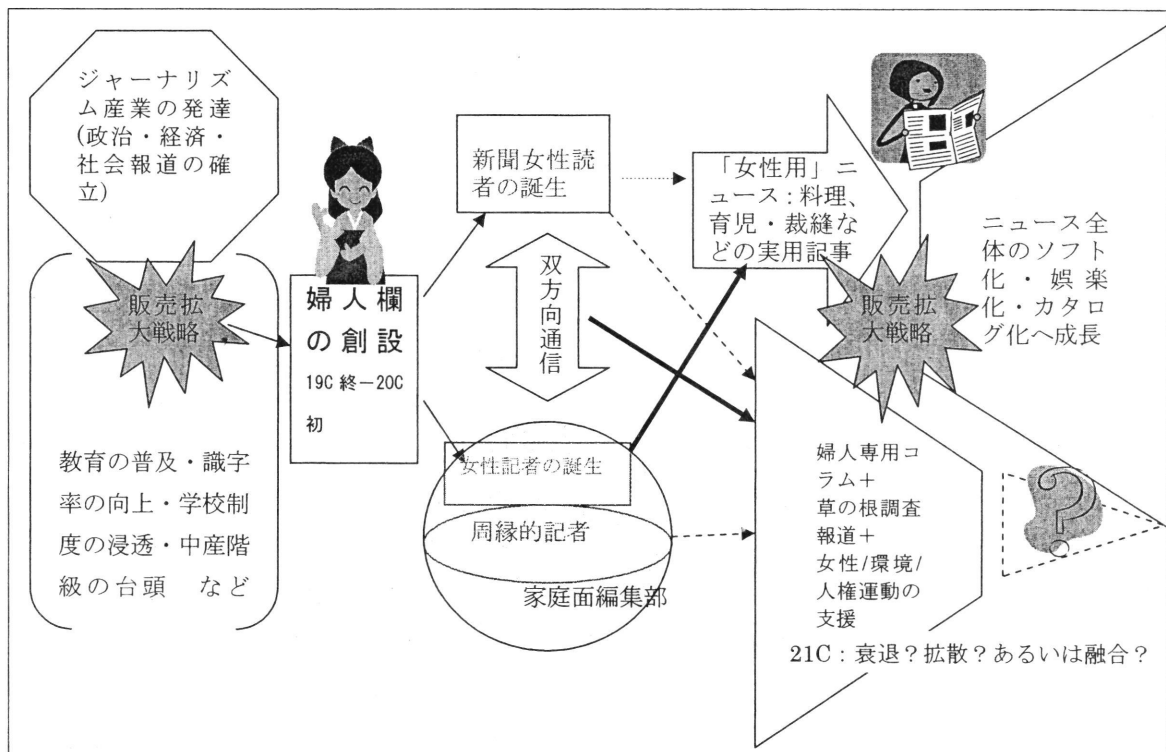


図2. 婦人欄・家庭面記事の発達と変遷 (林(2002)より)

c. ワイドショー

ソープオペラと並んで、「主婦向け番組」の代表と言われる、平日の昼間に放送される「ワイドショー」はどうだろうか。確かに、「ワイドショー」の内容はいま、芸能人のスキャンダルや事件事故ニュースが中心で、ジャーナリズムとして感心できるものが少ない。「ワイドショー」は、日本のジャーナリズムを論ずるときに、もっとも蔑まれるジャンルであり、たしかに批判されてしかるべきところが多い。しかし、「ワイドショー」の内容は、少なくとも初期のころは、センセーショナリズムやスキャンダリズムだけでなく、生活情報や声なき人の声を取り上げるような、草の根的な心情とジャーナリズムの在野精神をもち合わせていた(浅田1987)。また、現在、いわゆる「タブロイド的取材手法」によるマックレイキング・センセーショナリズムは、日本ではどちらかと言うと男性向けのニュース週刊誌や写真誌のほうに目立っている⁴。それにもかかわらず、「ワイドショー」は主婦の午後のたいくつしのぎの番組としてもっとも蔑まれているメディアである。「ワイドショー」的なニュースは、実のところ、毎夕方発行されてサラリーマンに広く読まれているスポーツ紙にも展開され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である。

「ワイドショー」がメディアのプロダクトのなかでもとくに蔑まれるのには、「テレビ」を通して伝えられる刺激の強い内容もさることながら、「家に居て、特別やることのない、政

治的関心のない主婦が見るもの」という社会的通念があるからではないだろうか。

「ワイドショー」は、1960年代に「夕方になると買物カゴをぶらさげて、ささやかなさいふの中味と相談しながら、夫のために、あるいは子どもたちのために、少しでもおいしい夕食を作ろうと近くのマーケットに買いものに出かける、どこでも見かける中年の女性」（浅田 1987: 22）を視聴者の代表的イメージとして構想された。このような「買物カゴをぶらさげて買い物に行く女性」とは、大きな意味での政治（あるいは政局）には興味のない人間像であり、この視聴者像こそが「ワイドショー」の内容を大衆嗜好と消費嗜好に凝縮させていったと言える。今日、たとえば柴山哲也は、小泉政権のメディア・ポリティクスを批判的に検証する際に「ワイドショー内閣」という言葉を取り上げている。そこでは、ワイドショーを見た女性たちへの学生による聞き取り調査において、「いままで井戸端会議のなかで政治の話などしたことのないおばちゃんたちが、道路財源や外務省のことを話題にするようになったと母親が話していた。」（柴山 2004: 324）という言葉を用いながら、小泉政治を批判しながらも、ショービジネスの手法に近い「ワイドショー内閣」を、政治参加のすそ野を広げたという意味において評価した。柴山にとって、そしておそらく多くのジャーナリストやジャーナリズム研究者にとっても、「ワイドショー」とは、まず第一に、平日の午後に家庭に居ることのできる「政治を知らないおばちゃん」や「母親」が見るものであり、そこからこの番組の「通俗性」が論じられる。制作者側もまた、そういう脱政治化して井戸端会議好きな「おばちゃん」をイメージしながら、「ワイドショー」が「ワイドショー」たるように、社会的期待に応えた大衆向け（本来的な意味での「女性向け」ではない）の内容を再生産している。

以上の3つの例は、別の面から見れば、メディアの発達史において、つまりマスメディアの普及と大衆化の過程において「女性」という存在がつねに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きたことを物語っている。すなわち、マスメディアは産業として発展し続けるためには、「文字を読む教養のある男性」以外の、「他者」を巻き込まざるをえなかった。その「他者」とは、ときに労働階級であったり、ときに女性であったりした。しかし、とりわけ女性の場合は、女性がメディア産業内部にはほとんど不在であるために⁵、企業にとっては今日まで「社会の約半数を占める他者」であり、売り込みの「対象」であるために、男性側が考える限りの「女性向けの内容」というフィクションを供給し続けることを可能にしてきたのだった。

4. 日本の公共圏における「韓流ドラマ」の位置

そろそろ話を「韓流ドラマ」に戻そう。いま、日本では、「韓流ブーム」の影響により、韓国ドラマの分野が、女性に人気があるという認識によって、ひとつのジャンルとして定着し、さらにこのジャンルは女性人気という言葉に再帰的に定義づけられて、商業化および平準化、そして通俗化の圧力に晒されているとは考えられないだろうか。

たとえば、いま、「韓流」がもっとも優勢なのは、新しいインターネット・ブロードバンド視聴の分野であり、以下にしめすとおり、圧倒的な威力を発揮している。一例として、イン

ターネット・ブロードバンド視聴できる動画サイトの最近のランキングの流れを見てみよう。

(http://ranking.goo.ne.jp/ranking/030/bb_movierank 2006 年 11 月 4 日閲覧)

表1 goo ブロードバンドナビ 2006 年月間人気番組ランキング

(2ヶ月おきの Web ランキング、筆者作成)

順位	10 月	8 月	6 月	4 月
1	代ゼミ TV ネット	代ゼミ TV ネット	代ゼミ TV ネット	チャングムの誓い
2	ラストダンスは私と一緒に	ラストダンスは私と一緒に	チャングムの誓い	快傑春香
3	チャングムの誓い	チャングムの誓い	ガラスの華	チェオクの剣
4	恋するスパイ	るろうに剣心	快傑春香	代ゼミ TV ネット
5	火の鳥	火の鳥	北京 MYLOVE	1 %の軌跡
6	るろうに剣心	ウルトラマンメビウス外伝ヒカリサーガ	1 %の軌跡	クラビット・アリーナ
7	1 %の軌跡	1 %の軌跡	イルカ湾の恋人	パリの恋人
8	ビクトリア～愛と復讐の嵐	北京 MYLOVE	2 人のお嬢様	ラブホリック
9	ルパン三世 1 st シリーズ	恋するスパイ	ラブホリック	攻 殻 機 動 隊 S.A.C. 2nd GIG
10	フルメタル・パニック	機動戦士ガンダム SEED C.E.73-STARGA ZER-STAGE-I	バリでの出来事	バリでの出来事
11	ガラスの華	ガラスの華	海神	PRISMIX.TV
12	ラブホリック	ルパン三世 1 st シリーズ	パリの恋人	マジック
13	快傑春香	フルメタル・パニック	チェオクの剣	イルカ湾の恋人
14	ウルトラマンメビウス外伝ヒカリサーガ	ラブホリック	PRISMIX.TV	冬のソナタ
15	北京 MYLOVE	パリの恋人	ピアノ	ケロロ軍曹
16	パリの恋人	美しき日々	機動戦士ガンダム SEED DESTINY	鋼の錬金術師
17	ルパン三世 2nd シリーズ	快傑春香	ケロロ軍曹	ベストカップル
18	PRISMIX.TV	ビクトリア～愛と復讐の嵐	プレイボール 2 nd	12 月の熱帯夜
19	TV 版サクラ大戦	ひぐらしのなく頃に	ラブレター	2 人のお嬢様
20	ケロロ軍曹	バリでの出来事	ノエイン もう一人の君へ	北斗の拳

は韓国ドラマ

あるいは、ストリーミング・TV サイト「Gyao」のドラマ部門でも、10月2日から11月2日の週の人気ランキング10位のうち、10位の「デザイアー」（米国製ドラマ）以外、9位までが、以下のとおり、韓国の恋愛テレビドラマ、すなわち「韓流ドラマ」であった。

(http://www.gyao.jp/ranking/?genre_name=ranking_rankGenre_drama 2006年11月4日閲覧)

1. 冬のソナタ
2. ラストダンスは私と一緒に
3. I LOVE ヒョンジョン
4. 新貴公子
5. 太陽に向って
6. 美しき日々
7. ラブストーリー
8. バリの恋人
9. ただいま恋愛中
10. デザイアー

は韓国ドラマ

本国では放送後すぐにインターネット視聴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る韓国のドラマは、その経験と技術を生かして現在の日本のブロードバンド視聴市場を席卷し、次々とコンテンツを供給している。また、ケーブルテレビやデジタル衛星放送でも、韓国ドラマは主力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プログラムとなって登場している⁶。こうして、日本で視聴可能な韓国ドラマの大部分は、新しいメディア市場の開拓の手段という意味合いを帯びて、女性層をターゲットにした恋愛ドラマ中心となった。デジタル化による通信と放送の融合、および多チャンネル化といった技術革新によって、今後は放送コンテンツを必然的に増やさなくてはならないが、そこに「韓流」人気がうまく活用されている。かつて新聞読者を増やすために新聞家庭面が設けられて、人気を博したように、インターネットのブロードバンド視聴の普及に韓国からの「韓流ドラマ」が一役買っている構図が見て取れる。

以上のような背景から、女性たちに人気のある、あるいは人気の出そうな韓国製の恋愛ドラマは、次々と日本に輸入され、インターネットやケーブルテレビで放映され「韓流」を再生産する。人気あるコンテンツを虎視眈々と探す放送事業者にとって、「韓流」は大切な収入源のひとつだ。

「冬のソナタ」の人気で、日本には新しい「韓国」が生まれたことは別の場所で議論した（林 2005: 134ff）。このドラマによって、多くの女性は涙を流し、韓国に敬意を表し、日本を反省した。同時に、女性ファンたちから誕生した新たな「韓国」は、日本にあった以前の「暗い」「怖い」というイメージとは別の「美しい」「進んでいる」「モダン」といったことばで修

飾される、きわめてポジティブでクリーンなイメージをもっていた。この点は「冬のソナタ」が日本にかつてない「韓国」のよいイメージをもたらしたことから、積極的に評価すべきだろう。

しかし、すでに述べたとおり、この新しい、ポジティブな「韓国」という記号は、「女性ファン」が恋愛ドラマのなかからつくりだしたイメージである。彼女たちの韓国に対して抱くポジティブなイメージは、どこかに近代の消費文化や情報文化の最先端を共有する心地よさがつきまといってきた。そして、次第にこのイメージは、日本および韓国側のマスメディア戦略と合致しながら、一層脱政治的な方向、たとえば韓国のツーリズムや消費文化と結びつくことになった。

また、「韓流」は、家庭というやすらぎとくつろぎの場と規定されている空間に存在するテレビというメディアを通して日本に浸透していった点にも注意を払う必要がある。「視聴者の多くはテレビを学校教室の延長のように利用することに抵抗を示す」(Ang 1996: 32)ことはすでに多くの研究によって明らかになっており (Silverstone 1994)、日本でもテレビから生まれた新しい「韓国」の表象は、日常生活という統一性がなく、矛盾で散漫な生活を舞台にするメディアであるテレビの特性に合わせた形で増殖している。こうした家庭のテレビ受像機を通してつくられる公共圏のことを、英国のメディア学者 R.シルバーストーンは「郊外化される公共圏」と呼んでおり、その内容の政治性と革新性の限界を論じている (Silverstone 1994: 52ff)。日本でも、「韓流ドラマ」が表象する「韓国」という記号は、テレビを通して「郊外化」された公共圏に展開されている、と考えられないだろうか。

戦後日本における「韓国」発の娯楽は、「韓国」という国に実際に何らかの縁のある者たち一多くは在日韓国・朝鮮人とその関係者たち一など、限定された社会グループ向けと理解されてきた。韓国に関する娯楽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は、長らく前提として、韓国に関する具体的なパーソナル・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動機付けとなってい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ところが、女性が夜中に静かに娯楽として楽しんでいた韓国ドラマは、「韓流ドラマ・ブーム」へと発展するにつれて、こうした前提は崩れ去った。もはや、これまで韓国・朝鮮とも在日社会ともいっさい関わりをもったことのない人たちが、「韓流ドラマ」に心を熱くして、それを支えていると言ってよい。今日表象される「韓国」は、不特定で相互につながりのない匿名のオーディエンスに向けられ、ファンの間で人気を獲得しながら次々と浮沈する。「韓国」は、もはや韓国とのパーソナルな関係や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前提としない抽象性を獲得することになった。「韓流」や「韓国」は、完全にマスメディアの記号の世界に参入したのである。

このように考えるならば、日本での「韓国」とは、メディアによって媒介される表象が主流となった新しい時代を迎えたと位置づけることができよう。N. ルーマンによると、マスメディアの機能は、私たちの「認識の地平」を更新するものである。つまり、「韓国」は、マスメディアによってつねに刺激されやすい記憶として社会の意識の表層に呼び出し可能なものとして待機する「表象」の予備軍に参入してきた。いまや「韓国」とは、政治、経済、ドラマ、スポーツ、教育、芸術などあらゆるテーマに接続しやすい抽象度の高い、同時代性 (アクチュ

アリティ) をもったシンボルだと言える。ルーマン的な解釈をすれば、「韓国」に関す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は、政治はもちろん、まんがやポルノ、ロック・ミュージックから芸術からまで、あらゆるテーマに接続しながら「情報」となっては消費され、消費されたとたんにまた次なる未知の「韓国」を求めて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探し出す。今後生み出されると予想される「未知なる韓国」の表象とは、マスメディアが取り上げる「韓国」を基準にして、そこから差異を生み出す範囲での「韓国」が多勢を占めることになるだろう⁷。

この状況は、ブーム以前の、「韓国」というものが親密圏にとどまり、公共圏から隠蔽され、かつ不可視化されていた状態よりは「よい」状態なのかもしれない。ただし、マスメディアは、近代の成長過程を通して、近代化が含意する論理や価値体系を内在させ、さらに消費社会との連携を見事に果たしてきた。近代と消費の価値体系を、メディアはさまざまなシンボルを通して私たちの生活に不断なく頒布してきたことは間違いない。そのことは、次の時代の言説の再生産に重要な鍵を握っているであろう。

¹ 本論でいう「韓流ドラマ」は、「韓国ドラマ」と等号には結ばれない。つまり、日本で「韓流ドラマ」というとき、それは「冬のソナタ」に代表される、女性ファンによって人気が出た韓国製の恋愛テレビドラマシリーズのことを指す。

² このブームは晋遊社発行、山野車輪『嫌韓流』が発端となった。『嫌韓流』はいま、1巻と2巻が発行され、同社のホームページによると、両巻あわせてこれまで65万部を売り上げたという。(http://www.shinyusha.co.jp/~kenkanryu2/より、2006年11月4日閲覧)

³ たとえば、朝日新聞には、戦後まもなく「草の実会」という婦人読者ネットワークがあった。朝日を先駆けとして、読売新聞は「こだまの会」など、そのほかの新聞社でも次々と独自の婦人読者ネットワークが組織されていく(林 2003: 258)。

⁴ 「ワイドショー」は、政治報道のタブロイド化という文脈のなかで日本の事例としてよく取り上げられてきた。したがって、「ワイドショー」の現象は、しばしば欧米のタブロイド紙と並べて論じられるが、私見では、「ワイドショー」に向けられるまなざし、つまり“「愚かなおばさん」が見る愚かな番組」というジェンダー化した通俗性の感覚は、欧米のマスメディアではむしろ「ソープオペラ(連続メロドラマ)」というジャンルにある。したがってワイドショーを分析するときは、「タブロイド紙」との関連だけでなく、「ソープオペラ研究」の視点を取り入れるべきではないかと思う。それに対して、欧米のタブロイド紙研究では、ジャーナリズムの取材方法(メディア・スクラム)や内容(女性の商品化やセンセーションリズム)、そして産業構造(メディアの集中化)のほうに批判的分析が蓄積しており、それはむしろ、日本の男性用ニュース週刊誌分析のほうに有効な視点を提供するものだと考える。日本の男性用ニュース週刊誌に関しては、日本では批判的な実証研究がたいへん少ない。

⁵ 日本の新聞社における女性記者の割合は、2005年現在、12%。1993年はわずか7.8%だった。(日本新聞協会ホームページより。http://www.pressnet.or.jp/ 2006年6月22日閲覧)。放送業界では、1993年から99年までの6年間で、民放・NHKに働く女性の比率は、13.4%から15.0%への微増に、そして2004年では15.4%にとどまっている。また、部長級以上の上位管理職は、0.4%→2.1%→3.9%と増加してはいるものの、経営の男女共同参画と言うには程遠い状況となっている。(日本女性放送者懇談会編『放送ウーマン2004』より)

⁶ 衛星放送チャンネル、LalaTVなどの「女性向け」チャンネルでは「韓流」がひとつの売り物となっている。

⁷ ただし、ここで、これまでのマスメディアの表象との関係は、必ずしもポジティブな方向だけではないという点は考慮されるべきだろう。近年議論されてきた「嫌韓」ブームも、従来のマスメディアの言説との距離のとり方がテーマになっていることに注意したい(林 2005: 153ff)。私たちは、ヨン様の写真やニュース、新しい韓流ドラマ・シリーズ、そして韓国俳優

優による CM と同時並行して、「韓国」という記号をめぐる反動的なニュースや言説も、かつてないほど多く目にするようになった。この流れのなかで、一部の政治家や知識人たちは、いまや嫌韓の姿勢をタブー視せず、隠し立てしなくなった。これもまた、「冬ソナ」ブームのひとつの帰結だと言えるだろう。可視化された「韓国」という記号は、反動的な意見や思想にも容易に結びついていく。しかし、この状態は、かつて自由主義が理想とした、自由な個人による自由な意見の開陳に基づく「百家争鳴」状態とは異なる。これはむしろ、マスメディア・システムによって選好される「韓国」言説のインフレーションと呼ぶべきだろう。こうしたインフレーションにおいては、「韓国」が完全に記号化されていく。いま、ネット言論空間では、作家の雨宮処凛が指摘するごとく、「攻撃相手が血の通った生身の実在であることさえ抜け落ちてしまう。『韓国・朝鮮』を純粋な記号として捉えているので、ここまで残酷で冷たくなれるのでは」という現象が起こっている（瀬下 2006: 46）。

文献リスト

- Ang, Ien (1996) *Living Room Wars. Rethinking Media Audiences for a Postmodern World*. Routledge.
- Ang, Ien (1985) *Watching Dallas: Soap Opera and the Melodramatic Imagination*. Methuen.
- 浅田孝彦 (1987) 『ワイド・ショーの原点』 新泉社。
- Felski, Rita (1995) *The Gender of Modernity*. Harvard Univ. Press.
- 林香里 (2005) 『「冬ソナ」にハマった私たち』 文春新書。
- 金相美 (2004) 「日本における『冬のソナタ』視聴と効用 —韓国に対するイメージ・関心・評価向上を中心に」 2004 年 11 月 4 日 ソウル大学言論情報研究所主催 ソウル大学・東京大学合同シンポジウム・プレゼンテーション。
- 林香里 (2002) 『マスメディアの終焉、ジャーナリズムの核心』 新曜社。
- 飯田祐子 (1998) 『彼らの物語』 名古屋大学出版会。
- 岩渕功一 (2001) 『トランスナショナル・ジャパニズム アジアをつなぐポピュラー文化』 岩波書店。
- 岩井志麻子 (2005) 「現実世界が幸せだから安心してミーハーになれる」 —私の「冬のソナタ」論 『週刊朝日』 2005 年 1 月 7 日/14 日号、38-39 頁。
- 金子明雄 (1997) 「「家庭小説」と読むことの帝国—『己が罪』という問題領域』 『メディア・表象・イデオロギー—明治三十年代の文化研究』 小沢書店、131-157 頁。
- 金子明雄、杉山光信、大畑祐嗣、吉見俊哉 (1990) 「近代日本におけるユートピア運動とジャーナリズム」 『東京大学新聞研究所紀要』 第 41 号。
- 瀬下美和 (2006) 「きんようぶんか『マンガ嫌韓流』 ネットが仕掛ける韓国・朝鮮人攻撃」 『週刊金曜日』 2006 年 6 月 23 日号、45-47 頁。
- Lee, Eun-Jeung (李恩政) (2005) Korea as a world-class culture centre in Asia? Korean Discourses on Korean Wave in Japa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IAMCR Conference in Taipei, July 2005.
- Luhmann, Niklas (1996) *Realität der Massenmedien*. Westdeutscher Verlag. (邦訳『マスメディアのリアリティ』 林香里訳、木鐸社、2005 年)
- Luhmann, Niklas (1982) *Liebe als Passion*. Suhrkamp. (邦訳『情熱としての愛』 佐藤勉・村中知子訳、木鐸社、2005 年)
- 前田愛 (1973) 『近代読者の成立』 有精堂。
- 宮地尚子 (2005) 「支配としての DV」 『現代思想』 2005 年 9 月 (vol.33-10)、121-133 頁。
- Modleski, Tania (1979) The Search for Tomorrow in Today's Soap Opera. In: *Film Quarterly*, 33/1:12-21.
- 小倉紀蔵 (2005) 「〈純粹なるもの〉への回帰願望」 『論座』 2005 年 11 月号。

Radway, Janice (1991) *Reading the Romance. Women, Patriarchy, and Popular Literature*. (With a New Introduction by the Author) The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柴山哲也 (2004) 「日本型「公共圏」と「ワイドショー内閣」—日本におけるテレビジャーナリズム試論」『日本のジャーナリズムとは何か—情報革命下で漂流する第四の権力』ミネルヴァ書房、317-333 頁。

Silverstone, Roger (1994) *Television and Everyday Life*. Routledge.

インターネット資料

平成 17 年度情報通信白書 (2006 年 6 月 12 日閲覧)

<http://www.johotsusintokei.soumu.go.jp/whitepaper/ja/h17/index.html>

日本新聞協会 調査: 「各国別日刊紙の発行部数, 成人人口 1,000 人あたり部数, 発行紙数」「新聞・通信社従業員数と記者数の推移」(2006 年 6 月 22 日閲覧)

<http://www.pressnet.or.jp/>

일본 공공권에 있어 '한류 붐'의 위치
-매스미디어 시스템에 있어 여성 오디언스의 문제

하야시 카오리

1. '겨울연가' 인기를 돌아보며

일본에서는 2003년부터 중 장년 여성들 사이에서 '겨울연가'를 비롯한 '한류드라마'¹가 많은 인기를 얻었다. 그 인기는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붐이 절정에 달한 2004년에는 '한류 붐'이 일본과 한국의 외교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논의도 많았다. (예를 들면 "Soap Opera Diplomacy" In, Far Eastern Economic Review September 16, 2004.) 그러나 이와 같은 기대는 그 이후 조금씩 배신당해나갔다. 당연한 일이지만 한일 두 나라 관계는 양국의 역사인식의 차이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외교문제로 인해 아직까지 복잡하다는 점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오히려 고이즈미 정권에서 독도/다케시마 문제와 야스쿠니 문제로 인해 국가간 대화는 단절되고 악화되었다. 또한 그와는 별개로 일부 매스미디어와 인터넷상에서는 '한류 붐'을 계기로 '험한류 붐'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했다.² 이 붐은 '험한류'라는 만화의 발매가 계기가 되었다. 이 만화는 한국에 대한 격렬한 악감정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험한류' 현상은 특히 남성 그 중에서도 청년층 남성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하며, '한류 붐'이 당초의 기대를 역행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한류 붐'에 대해서 논하는 논자들 사이에서는 이 현상을 전혀 별개의 시점에서 보는 사람도 있다. 즉, 이것을 일본여성들의 욕망과 생활세계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여성들이 한국의 젊은 배우들에게 이처럼 열광하는 것은 자신의 파트너인 일본 남성에게 정이 떨어져서가 아닌가 또는 일본 가정에 잔존하는 가부장제에 대한 무의식적인 저항현상이 아닌가 등. 이러한 측면의 논의도 학계나 매스미디어에서 나왔다.

이상과 같은 논의 중 전자는 한류 붐을 사회전체에 대한 영향, 즉 매크로적으로 본 논의로, 후자는 한류 붐을 여성 개인의 생활적인 기능으로 즉 마이크로적으로 본 논의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같이 매크로적인 사회적 효과와 마이크로적인 개인적 욕망과는 실로 여러 의미에서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 그렇다면 여성들의 대중오락에 대한 개인적인 기호는 사회나 국가라고 하는 비인격적인 단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¹ 본론에서 말하는 '한류드라마'는 '한류드라마'와 등호로는 연결되지 않는다. 즉, 일본에서 '한류드라마'라고 말할 때 그것은 '겨울연가'로 대표되는 여성 팬에게 인기가 있는 한국 연애 TV 드라마 시리즈를 말한다.

² 이 붐은 신유사 발행 야마노 샤린 '험한류'가 발단이 되었다. '험한류'는 지금 1권과 2권이 발행되어 출판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두 권 합해 지금까지 65만부가 팔렸다고 한다.

(<http://www.shinyusha.co.jp/~kenkanryu2/>에서, 2006년 11월 4일 열람)

본론에서는 여성들이 생활세계 속에서 개별적으로 ‘한류 드라마’를 오락으로 즐기면서 시청하는 행위가 사회적인 붐이 되면서 ‘한류드라마’라고 하는 장르가 재귀(在歸)적으로 사회에 있어 ‘여성적인 장르’로 확립되어 가는 프로세스와 그 사회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 속에서 ‘여성의 오락’이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가, ‘여자의 오락’을 보는 시선을 검토하고(2 장), 일본의 매스미디어와 여성 오디언스의 관계에 대해 생각한다(3 장). 마지막으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현대 ‘한류’라고 하는 장르를 고찰하고자 한다(4 장). 최종적으로 본론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일본에 있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라는 예상을 할 때 하나의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2. 여성의 오락: 해방(liberation)인가 현실도피(escapism)인가?

2004 년부터 2005 년에 걸쳐 나는 ‘겨울연가’가 왜 일본 중 장년 여성에게 인기가 있는가? 그녀들은 이 프로그램의 어디에서 재미를 찾는가? 프로그램을 본 후 그녀들은 무엇을 하는가? 등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조사 분석했다. (하야시 2005/금 2004)

이번 본 논문에서 특히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이 2004 년에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 즉 93%의 회답자가 여성이었다는 점, 팬 평균연령이 47.3 세이었다는 점, 그리고 드라마 감상방법은 혼자서 몇 번씩 반복해서라는 특징이 매우 현저했다는 점, 이 세가지 테마를 둘러싼 사회적 의미다. 후자의 시청행동에 관해서는 앙케이트 회답자의 약 70%가 혼자서 본다고 답했고 더욱이 회답자의 80%이상은 드라마 전편을 2~3 회 이상 반복 시청했다고 답했다. 여기에서 ‘겨울연가’라고 하는 드라마는 일본의 중 장년 여성들 사이에서 혼자서 게다가 몇 번씩 반복해서 시청되고 있다는 하나의 상(像)이 떠오른다. 게다가 많은 팬의 편지를 읽어보면 그녀들이 ‘겨울연가’를 보고 있는 동안에는 육아나 개호, 남편수발 등 여러 책임을 일단 접어두고 ‘자신만을 위한 개인적인 시간’을 즐기는 모습도 떠오른다. ‘혼자서’ ‘반복해서’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공상의 로맨스에 가슴 설레이며 즐기는 방법은 서구에서는 이미 오페라(연속극 드라마) 시청 연구(Modleski 1979; Ang 1985)나 로맨스 소설을 읽는 것에 대한 연구(Radway 1991) 등에서 언급되고 분석되었다. 특히, 미국 사회학자 J. 래드웨이 저작에서는 여성들이 매일 혼자서 조용하게 로맨스의 세계에 빠져 평소 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a free space)을 즐기는 것을 팬들로부터 듣고 편지를 받아서 명확히 하고 있다. (Radway 1991: 93)

흥미롭게도 여성들이 꽤 오랫동안 그리고 동서를 막론하고 이 장르의 오락을 ‘개인의 해방’과 연결시키면서 즐기고 있다. 이것이 ‘여성성’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라는 점은 진중한 검증이 되어야 하지만 예를 들면 메이지에서 다이쇼에 걸쳐 여성들의 인기를 끌고, 신문이나 부인잡지에서 유행한 ‘가정소설’이라는 장르도 그러했다. 메이지 말기 당시 조금씩 탄생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중산계급 여성들’은 ‘가정’의 중책에서 잠깐 동안 심리적인 해방감을 얻기 위해 ‘가정소설’을 읽었다고 한다 (가네코 외, 1990; 이다 1998;

마에다 1973). 여기에서 일본의 ‘가정소설’이 어떤 것인지를 보기 위해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는 ‘내가 죄’의 내용을 살펴보자. 이다 유코에 의한 줄거리를 인용한다.

주인공은 미노와타 마키라는 여성이다. 그녀는 여학교시절 의대생에게 속아 임신을 한다.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안 마키는 자살을 시도하나 목숨을 건지고, 낳은 아이는 입양보내고 귀향을 한다. 부친의 소원으로 지금까지의 일을 숨긴 채 남작 사쿠라도 다카히로 결혼. 다카히로와의 결혼은 순탄했고 마사히로라는 아이를 낳았지만 마키는 안심할 수 없었다. 그 후 장티푸스에 걸린 마사히로의 요양을 위해 방문한 房州에서 입양을 보냈던 아이와 재회를 하지만 엄마라고 말하지 못한 채 두 명의 아이는 죽음을 맞이한다. 스스로의 죄가 모든 원인이라고 생각한 마키는 과거를 다카히로에게 말하게 된다. 아버지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이혼은 면하지만 마키는 간호사로 다카마사는 해외로 서로 떨어져 지내게 된다. 여행하던 곳에서 위독하게 된 다카마사를 마키가 헌신적으로 간호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두 사람은 참된 행복을 얻게 된다. (이다 1998: 51)

이것은 현대의 한류 드라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줄거리이다. ‘어린 시절 친구’ ‘연애’ ‘운명’ ‘사고 사’ ‘부모’ ‘결혼’이 전개하는 스토리는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던 ‘겨울연가’를 비롯해 ‘아름다운 날들’ ‘천국의 계단’ 등 한류드라마의 왕도이다. ‘겨울연가’의 줄거리를 살펴보자.

어머니와 여동생과 셋이서 살고 있는 정유진은 밝은 성격의 여고생. 어릴 때 친구 김상혁과는 가족도 모두 아는 사이로 남매 같은 사이.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은 서울에서 온 전학생 강준상과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갑자기 교통사고가 두 사람을 갈라 놓고, 첫사랑은 종지부를 찍는다.

10년 후 건축디자이너로 활약하는 유진은 상혁과 약혼을 한다. 그런 유진 앞에 어느 날 준상과 꼭 닮은 이민혁이 나타나 유진의 마음을 흔들여 놓는다. 그 때 이민혁은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 충격으로 기억이 돌아와 자신이 강준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유진과 준상 재회하고 다시 결합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준상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두 사람이 이복남매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고 유진은 프랑스로 유학을 떠난다. 준상은 사고 후유증으로 실명하지만 몇 년 후 유진이 설계한 ‘불가능한 집’에서 재회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된다.

또 ‘아름다운 날들’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히로인으로 음반회사 빅토리에서 일하고 있는 고아 연수는 고아원에서 동생처럼 귀여워한 세나의 행방을 찾고 있다. 그 때 연수가 일하는 곳의 상사이며 빅토리 레코드 후계자인 민철과 만난다. 민철의 집은 유복하지만 인간관계가 복잡하며, 민철은 특히 아버지가 다른 동생인 의대생 선재에게 강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다. 민철과 선재 둘 다 연수를 좋아하게 되지만 결국 민철과 연수가 행복하게 이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그 때 연수에게 병이 발견된다. 연수의 증세는 악화되고 민철은 골수이식의 가능성을 찾아 골수검사에 협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여러 시도 끝에 민철은 일본의 골수은행에서 이식 가능하다는 연락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두 사람은 다시 행복을 찾는다.

‘겨울연가’를 비롯한 이른바 ‘한류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던 때 많은 평론가는 이러한 ‘낯은’ 줄거리가 일본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평가했다. 오구라 키조는 한류 드라마는 모던한 ‘서투름’ ‘순결성’ ‘로맨틱’ 을 합한 ‘이념 추구형’ 인데 반해 가치다양화가 진행되는 포스트 모던한 일본에서는 이미 그러한 타입의 드라마는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중 장년층 여성은 오랜만에 클래식한 이념추구형 드라마를 만나 정겹고 신선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고 설명했다(오구라 2005: 226-227).

여성이 연애드라마나 로맨스소설을 즐기는 것은 ‘근대’ 라는 시대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근대라는 것은 신분제 폐지와 함께 자유로운 연애가 이념으로 추구되어 로맨틱 러브에 따른 혼인 체결이 이상적인 시대였던 한편으로 친밀권에서는 여전히 가부장제가 지배한 시대이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사랑하는 것이 이념으로써 장려되면서도 ‘결혼, 가족 또는 교육이라는 모든 제도를 이 원리에 적용시키는 것은 별도의 사항’ (르만 1982=2005: 199-200) 이었다. 즉, 근대에는 많은 인간에게 있어 인간의 관계성별로 장면별로 그리고 공간별로 퍼스널/인퍼스널이라는 관계성의 이념과 논리를 조정할 것이 요구된 시대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들은 인간관계의 불투명성의 틈을 타 <근대사회의 이념> <근대사회의 실태> <여성의 규범> 세가지 상극을 살아가면서 ‘초점이 정해지지 않은 불만(unfocused dissatisfaction)’ 과 ‘막연한 동경(indistinct longings)’ (Felski 1995: 90) 을 가진다.

불안정, 불투명 그리고 유동적인 - 환언하면 ‘자유로운’ -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여성들은 ‘운명’ 이라는 것에 자신을 맡겨야 하는 주인공의 삶에 스스로를 겹쳐보면서 역설적으로 한 때의 ‘해방’ 감을 맛본다. 이 점에서 가장 시사적인 것은 Radway 의 연구이다. 조사한 미국 여성들의 사이에서는 17 세기에서 18 세기를 무대로 한 히스토리컬 로맨스에 가장 인기가 집중되었다. (Radway 1991: 121) 국민국가 형성의 격동기였던 메이저 시대를 살았던 여성에게 있어서도 현대의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근대국가를 살고 있는 여성에게 있어서도 ‘운명’을 결정하는 히로인의 아이덴티티를 체감하는 것이 오락이 되고 카타르시스가 된다. 나는 2004 년 8 월부터 2005 년 10 월까지 약 500 통의

‘거울연가’ 팬레터를 읽었다. 그 속에서 여성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한 때의 해방감을 맛보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저는 5년간 어머니(83세) 병간호를 해 왔습니다. 지난해 4월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NHK) 채널을 돌리다가 윤사마가 인터뷰에 대답하고 있는 장면이 보았습니다. 문득 이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부터 저는 거울연가라는 한국드라마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병간호에 지칠 때 거울연가를 보면 피로가 풀리는 듯 했고 완전히 윤사마의 팬이 되어 DVD도 몇 십 번 봐서 수리를 맡길 정도였습니다 (여성, 치바현, 60세)

‘거울연가’는 강력한 제 마음의 영양제입니다. 이 영양제로 병간호 생활에서 힘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울연가’를 제작해 주신 윤석호 감독님, 작가, 음악 담당, 성우 여러분 그리고 주인공인 윤사마 여러 표정으로 훌륭한 미소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지우씨의 투명한 아름다움에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효고현, 여성)

지금까지 일과 육아에 쫓긴 재미없는 생활이었던 것이 일변하여 탄력이 생겼고 행복을 느낍니다 (동경도, 여성 41세)

그러나 이러한 근대 여성과 연애 로맨스에 관해 내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로맨스나 스킵오페라를 보는 방법으로 자신을 해방시키는 여성들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해방’은 많은 경우 ‘현실도피’라는 단어로 일컬어져왔다.

아오노 스에키치는 1925년에 ‘부인잡지 통속문학’(게재지 1925년 6월 출간, 『전환기 문학』 1927년 2월 초판)이라는 논고에서 이러한 오락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다. 이야기가 길어지지만 서구의 로맨스 소설의 효용 그리고 현대의 한류드라마 시청 비평과 놀랄 정도로 비슷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마에다 아이의 저작에서 인용한다.

(...) 거기에서 말하는 구속력(남녀관계의 습관이나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제도적 습관 - 필자 주)을 가장 많이 받기 쉬운 중소 부르조아 여성이 그 많은 요구를 실제 행동에서 만족시키려면 그 구속력과 마주서서 투쟁하고 그것을 뿌리쳐야 한다. (중략) 그러나 보통 여성은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용감하게 보이는 그런 행동을 취하기 좋은 상태가 아니다. 그녀들은 그 구속력에는 점착하지 않고 안이한 길을 따라 내심의 요구를 만족시켜가는 것 외에는 없다. (중략) 이 안이한 길에 대한 내심의 요구의 만족이라는 욕구가 그녀들로 하여금 문학을 애호하게 만드는 근본동기이다. (중략) 그 파괴도

비평도 자유세계의 창조도 결코 로직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감정적 요구에 따라 내용에 있어서도 표현에 있어서도 적당하게 완화되어 ‘詩化’ 되어야 한다. (마에다 1973: 210-211)

마에다 아이가 인용한 아오노의 ‘가정소설’ 및 그것을 읽는 여성들에 대한 비평은 오늘날의 ‘한류드라마 인기’의 문맥에서도 자주 듣는 ‘아줌마들의 안이한 현실도피’라는 선을 답습하고 있다. ‘겨울연가’ 비평에서는 팬과 거의 동세대 여성작가 이와이 시마코가 ‘한국 스타에 열광하는 아줌마들의 기분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단언한데다가 아래와 같은 신랄한 코멘트를 했다.

순정만화 같은 거예요. (중략) ‘겨울연가’도 현실이 아니니까 괜찮아요. (중략) 그런 꿈의 세계에 흠뻑 젖어있는 아줌마들을 ‘현실에서 행복하지 않으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반대가 아닐까요? 행복하니까 안심하고 유행을 쫓을 수 있죠. 정말 불행하다면 성인화상채팅이나 실존 남자를 찾겠지요. ‘겨울연가’ 붐은 행복한 주부들의 상징. (이와이 2005 39)

이와이는 ‘겨울연가’로 인해 현실도피를 하는 팬은 일본에 다수 존재하는 보통의 ‘행복한 아줌마’라고 한다.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지 않는 그녀들은 일시적으로 위안을 얻는 ‘겨울연가’ - 이 의견에는 팬들로부터 여러 이견이 나올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팬레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팬들은 ‘행복한 아줌마’ 라기 보다는 오히려 ‘견실한 아줌마’ 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하야시 2005: 28ff) 매일 집에서의 책임을 다하면서 일상생활을 지장 없게 운영하고 있는 그녀들은 ‘다른 곳에서 해야 할 일을 다하고 있으니 이정도 짬은’ 이라 생각하며 ‘겨울연가’나 그 밖의 한류드라마 DVD 를 사거나 상품을 수집하거나 한류여행을 하거나 한다. 즉, 그런 의미에서 ‘현실세계가 견실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유행을 쫓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로맨스를 즐기는 여성 자신들은 ‘자유로운 공간’ 이나 ‘해방’ 의 획득이라고 하더라도 평론가들의 말은 ‘현실도피’ 가 된다. 이러한 양자 간 언설의 차이는 세계 곳곳에서 오랫동안 있어 왔다. 먼저 인용한 래드웨이드 여성들의 로맨스소설을 읽는 행동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저서의 가장 마지막에서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체적(vicarious)’ 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리들처럼 사회변혁에 커미트하는 사람들이 이러한(로맨스소설을 읽는 일- 하야시 주) 최소한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성 있는 저항의 형태를 놓치지 않도록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 기원이나 유토피아적 동경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향해 얼마나 능숙하게 지원을 하고 실현시키는가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도 모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이미 싸움에서 양보를 한 셈이 된다. 즉, 적어도 로맨스소설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을 읽고 대체적 즐거움을 얻는 일이 필요 없어지는 세계를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 버리는 것이 된다.

(original quote) I think it absolutely essential that we who are committed to social change learn not to overlook this minimal but nonetheless legitimate form of protest. We should seek it out not only to understand its origins and its utopian longing but also to learn how best to encourage it and bring it to fruition. If we do not, we have already conceded the fight and, in the case of the romance at least, admitted the impossibility of creating a world where the vicarious pleasure supplied by its reading would be unnecessary. (Radway 1991: 222)

로맨스를 읽는 즐거움을 그대로 받아 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페미니즘의 패배인 것일까? 래드웨이가 말하는 여성들의 ‘대체적인 즐거움’이라는 단어의 뒤에는 대체가 아니라 ‘진짜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항상 함의되어 있다. (Ang 1996: 104ff) 그것은 대체 무엇일까?

이와 같이 여성의 오락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는 것은 래드웨이와 같은 페미니스트나 아오노같은 마르크스주의적 문예평론가만은 아니다. 보수적인 남성들로부터도 로맨스에 멍해질 정도라면 좀더 ‘건실한’ 모성애나 부부애를 소중히 하라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하다. 실제 남성독자 중심의 주간지 연설에는 그와 같은 논조가 많이 보인다(하야시 2005: 51ff). ‘가정소설’이나 로맨스소설이나 ‘겨울연가’나 평론가들은 그러한 것들을 생활이 그다지 어렵지 않는 ‘중류층’ 여성들이 가볍게 손을 뻗치는 대체적 오락이며, 현실의 일상생활을 흔들여 놓을 수 있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그런 것일까?

정신의학자 미야지 나오키는 모든 여성들에게 있어 ‘친밀적인 영역’에서는 구별되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 ‘타인들로부터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장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장소’ ‘안식과 휴양의 장소’로서의 ‘개인적 영역’을 의도적으로 확보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가정 내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의 증상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미야지 2005: 127ff). 이 논의에서 보면 연애드라마나 로맨스소설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자신이 쉽게 준비할 수 있는 ‘개인적 영역’ 공간인 것일까? 따라서 내가 관찰한 바와 같은 건실한 가정의 여성들은 ‘이 정도라면’이라고 생각하고 한층 열중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개인적 영역’이라는 것은 반드시 네 군데 벽으로 둘러싸인 방일 필요는 없다. 여성에게 있어 하나의 의미공간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오락은 원래 그런 의미에서의 휴식의 장소를 만든다. 친밀권과 개인적 영역과의 경계선을 보기 힘든 가정에 있는 여성들에게 있어 어떠한 별도의 의미공간 창출은 매우

중요하다. 현실생활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또는 단순한 오락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볼 필연성은 없다. 많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 정도의 오락을 즐기면서 생활이 윤택해진다면 매우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여성들에게 즐거움을 주어 온 로맨스소설이나 연애드라마와 같은 오락은 현실도피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됨으로써 그것이 단순히 적당히 맞추는 것이며 그 즐거움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천박하고 쓸데없는 것으로 취급 받아 왔다. 이상하게도 보수적인 남성과 페미니스트와는 여기에서 의견 일치를 보이게 된다. 더욱이 이와 같은 여성의 오락에 대한 멸시 의식은 미디어를 만드는 쪽으로도 전해져 제작현장에도 반영되게 된다. 어차피 본질적인 즐거움이 아니라면 그다지 시간을 들여 만들 필요가 없다고. 오페라 제작비가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해 매우 저렴한 것은 단순히 낮 프로그램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여기까지 대략 여성의 오락 특히 여성 대상 소설이나 드라마 연구에 대해서는 왜 여성들이 거기에 ‘해방’이나 ‘자신의 시간’이라는 점에 연연하는지 또는 왜 많은 여성이 이런 종류의 오락에 즐거움을 보이는 것인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언설보다는 오히려 ‘여성의 인기’를 얻은 장르에 대한 비판적인 언설 쪽이 널리 유통되어 왔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에 있어 재귀(在歸)적으로 이 ‘여성의 오락’이라는 카테고리의 평준화를 진행시켜 현대사회의 오락의 원동력인 매스미디어의 세계에도 많은 부차적 효과를 낳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그러한 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3. 여성의 인기라고 하는 ‘통속화(trivialization)’효과의 역사

지금까지는 ‘여성의 오락’을 둘러싼 여성 개인의 측면과 사회의 측면 사이의 수용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 속에서 ‘여성용 오락’이 만들어진 과정에도 반영되어 왔다. 즉, 일반적으로 매스미디어의 ‘여성용’이라는 것은 ‘여성의 레벨에 맞춘 레벨이 낮은 것’이라는 의미가 제작자 측에 작용하여 제작되어 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콘텐츠가 (중 장년) 여성에게 지지를 받는다고 하는 언설은 단순히 ‘오디언스’의 연령과 성별이라는 특색을 묘출하기 위해서만 일컬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중 장년) 여성이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인해 인기가 생긴 콘텐츠의 내용에 가치평가를 낮추려는 의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즉, 보다 단적으로 말하면 매스미디어에 있어 어떠한 장르가 ‘(중 장년) 여성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라는 언설은 그 콘텐츠의 ‘통속성’을 의미하고 또한 일단 그러한 ‘통속성’이 부여된 카테고리는 재귀(在歸)적으로 한층 자신들의 ‘통속화’를 진행시켜 여성이라는 젠더와는 무관한 익명성의 통속성과 대중성을 획득해 나간다고 하는 전개를 보인다. 그러한 사례를 살펴보자.

a. 가정소설

먼저 조금 전에 말한 메이지 30년대(1897년대)의 ‘가정소설’이라는 장르에 관한 논의이다. 그것은 ‘신문연재소설’이라는 형태로 신문이라는 미디어를 무대로 확대된

‘문학’ 장르였다. 이것은 ‘대부분 모든 신문기자가 직접 본인의 구매자를 인식하고 쓴 신문소설’(세누마 1969: 428) 이라는 말처럼 저널리스트가 쓴 소설이었다. 오늘날 일본의 문학사에서 일본 ‘통속소설’의 원점으로 이해되는 이 ‘가정소설’이라는 장르는 당초 ‘신문을 읽는 독자가정의 일상’에 쉽게 침투하여 가정과의 연결고리를 돈독히 한 접착제’(가네코 1990: 134)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었다. (가네코 1997: 136)

한편으로 문학계에서도 ‘가정소설’을 당시 부진에 빠진 문단의 타개책으로 간주했다. 당시 문단은 심각소설, 비참소설이라는 것이 유행했으며, 도덕적인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여학생이 소설을 읽는 것을 금해야 한다는 논의조차 나온’(세누마 1969: 422)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서 신문과 문학 양쪽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가족 단란’이라는 개념으로 눈을 돌려 ‘문학’을 팔기 시작했다. 당초 이 판매작전에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한정은 없었다. 내용적으로도 ‘건전성’ ‘도덕성’이라는 이념을 간판으로 한 것이며, 아직 시작단계인 ‘도시가정’ 및 ‘종류층 계급’을 겨냥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여명기의 ‘가정소설’ 구상은 반드시 ‘비예술성’을 지향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가네코 1997: 133)

즉, ‘가정소설’이 등장한 당초에는 문학내부의 하나의 장르이며 문학 외부 즉 문학적 가치가 낮은 장르로 고안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소설’이라는 장르가 ‘가정용’에서 ‘여성용’이라는 통념으로 옮겨감에 따라 변화가 찾아왔다. ‘여성들’은 ‘비예술성’의 수용자로서 배치되어 그것이 문학장르에 ‘통속화(trivialization)’를 가져왔다. 이후 ‘여성독자와 통속성은 가정소설이라는 장르에서 일치되어’ (이다 1998: 34) 갔다.

즉, ‘통속소설’은 ‘여성이 읽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비예술적 문학’이라는 장르를 짊어지고 가는 한편 ‘읽혀지지 않는 문학’이라는 카테고리환기를 효과도 창출했다. 이치마 유코에 따르면 ‘읽혀지지 않는 문학’에서는 이윽고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읽을 수 없는 문학’으로 이해되어 여성 이외가 읽는 ‘예술성 있는 정통파 문학’으로 이해되어 갔던 것이다(이다 1998: 66ff). 그 후 가정소설은 부인잡지에 게재되어 ‘여성에게 인기 있는 장르’가 된 한편으로 저렴하고 통속적인 읽을 거리로 신파연극이나 신파비극의 원동력이 되어 갔다. (가네코 1997: 154) ‘이러한 유행은 예를 들면 『乳姉妹』의 전면 처음에 실려있는 사진판이 나타내듯이 자선음악회에 양가집 자녀들의 인물화를 보여주거나 또는 『소용돌이』의 앞에 실려 있는 사진판이 가르쳐 주듯이 소용돌이 모양의 인형, 소용돌이 모양의 염색, 소용돌이 모양의 직물을 비롯해 헤어스타일, 머리장식, 반소매, 넣을 것에 이르기까지 소용돌이 모양을 만들어내어 백화점에 선전 유행할 때까지 이르게 된다’ (세누마 1969: 428) 여성이 읽는 장르로서의 가정소설은 소비문화와 이미 손을 잡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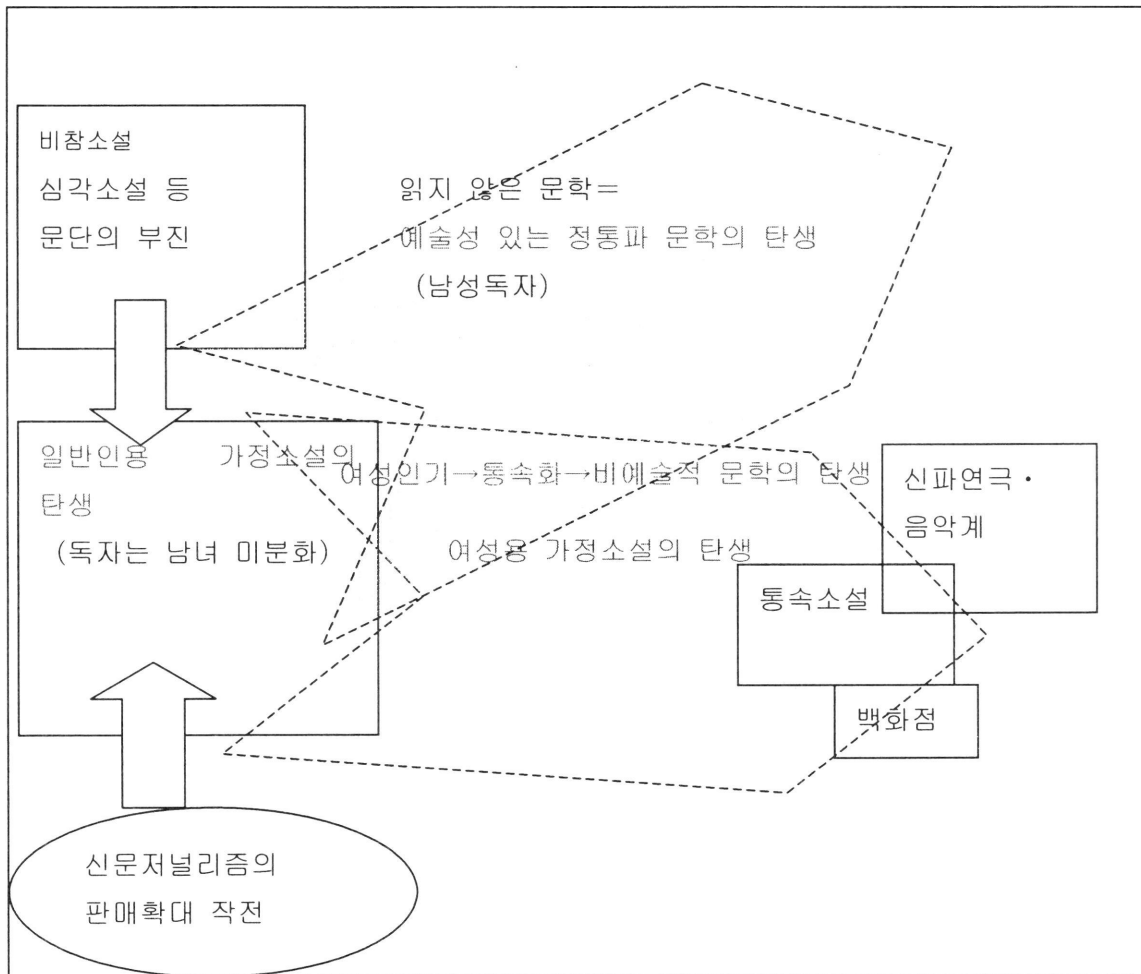


그림 1. 가정소설의 성립·발전 경위

b. 가전문

여성용이라는 것을 선언함에 따라 특정 장르가 재귀(在歸)적으로 통속화 = 비예술화 = 진부화 의 흐름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프로세스는 가정소설의 분야만은 아니다. 저널리즘에 있어서도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다른 논문에서 ‘부인란’이라는 신문면의 역사와 내용을 분석했다. ‘부인란’은 이름 그대로 여성독자용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독자의 확장이 목적이 되어 발달했다. 한편으로 ‘란’에서 ‘면’으로 발달하고 .. 지금은 매일 전용 페이지를 가질 정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발전을 뒷면에는 남자들의 남자를 위한 미디어였던 신문을 통속화 시킨 페이지로 오랫동안 ‘부억란’으로 조롱당했으며, 멸시되어 ‘원류 저널리즘’과는 확연히 구별되어 왔다. 이와 같이 신문의 발행부수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독자를 끌어들이려고 ‘부인란’을 만든 움직임은 일본뿐만 아니라 이미 19 세기 말 영국에서도 확인되고 있다(x x x x). 발단의 대부분은 시장확대가 목적이며 내용도 그러한 목적에 맞추어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 란은 성장의 과정에서 당초 신문기업측(즉 남성 측)의 의도와는 다른 다양한 전개를 보여왔다. 먼저 무엇보다 이 란이 생김으로써 신문사가 ‘여성기자’를

채용하고 남성기자들과는 다른 시점의 보도가 탄생되었다. 또한 전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문의 민주화 운동과 여성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육성된 ‘생활을 철하는 방법’ 운동이 겹쳐 ‘여성이 쓴다’라는 행위의 보급이 나타났다. 특히, 아사히 신문은 전국의 모든 신문보다 앞서 ‘한 때’라고 하는 여성독자 전용 컬럼란을 만들었다. 그 후 이러한 여성 참가형 컬럼은 일본 대부분의 중앙지와 지방지로 퍼져나갔다. 여성에 의한 새로운 언론 공간은 기자와 여성독자와의 긴밀한 대화 공간이 되어 투고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자주적인 네트워크³를 조직해 사회운동에도 관여했다. 게다가 여성전용 투고란은 이른바 일반용 ‘신문투고란’과는 달리 기자들의 뉴스 원으로서도 활용되어 매스미디어로써는 선구적인 쌍방향적 시민 저널리즘을 실현시켰다. 또한 ‘부인란’은 70 년대에 처음으로 페미니즘을 일본에 소개한 공간이며, 오키나와 문제나 환경 문제 등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보도를 전개해 왔다. 독자와 기자 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따라 신문 가정면은 저널리즘의 본질적인 역할을 발휘해 왔다고 말 할 수 있다(하야시 2003: 234ff).

그러나 그러한 공적을 쌓은 것은 이른바 ‘주류 저널리즘’의 편집 측에서는 거의 무시되어 왔다. 이러한 저널리즘은 불과 얼마 전까지 ‘여성용’이었으며, 저널리즘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또한 이 섹션에서 일하는 저널리스트들도 회사 내에서는 이류 삼류 취급을 받았다.

그런데 80 년대 이후 신문 판매부수 감소 경향이 심각해 짐에 따라 ‘가정면’ 기사는 ‘판매를 위해 내세울 것’이 된다는 인식이 대두되어 그 스타일이 거의 모든 장르로 퍼져나갔다. 신문판매 전략 중에 정치, 경제 등의 기사도 이해하기 쉽게 누구라도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생활면적인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방침으로 전환되었다. 이전 저널리즘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부엌 란’으로 일컬어지며 멸시되어 왔던 스타일은 고도정보화시대인 지금 그 경제적인 효용이 인지되어 지면 전체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전 부인란/가정면에서 발달한 여성들의 독특한 네트워크나 기자와 독자의 쌍방향 교류 등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쇠퇴 약화되었다.

³ 예를 들면 아사히 신문에는 전후 얼마 지나지 않아 ‘풀뿌리 열매모임’이라는 여성독자 네트워크가 있었다. 아사히를 선두로 요미우리 신문은 ‘메아리 모임’ 등 그 밖의 신문사에도 차례 차례로 독자적인 여성 독자 네트워크가 조직되었다(하야시 2003: 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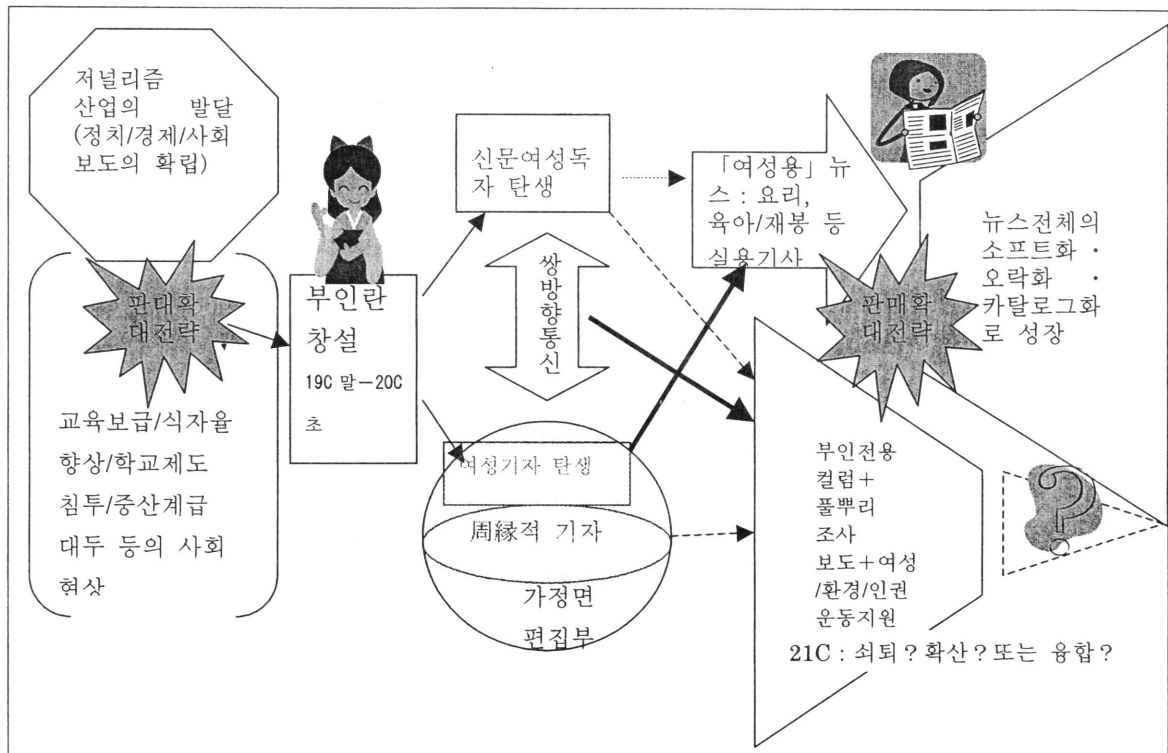


그림 2. 부인란·가정면 기자의 발달과 변천 (하야시 (2002) 에서)

c. 와이드 쇼

습오페라와 함께 ‘주부를 위한 프로그램’의 대표로 일컬어지는 평일 낮시간에 방송하는 ‘와이드 쇼’는 어떨까? 분명 ‘와이드 쇼’의 내용은 지금 연예인 스캔들이나 사건사고 뉴스를 중심으로 저널리즘이라고 말할 만한 것은 적다. ‘와이드 쇼’는 일본 저널리즘을 논할 때 가장 멀리받는 장르이며 분명 비판될 소지가 많다. 그러나 ‘와이드 쇼’의 내용은 적어도 초기에는 센세이셔널리즘이나 스캔들리즘 만이 아니라 생활정보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다루는 등 일반적인 인정과 저널리즘의 재야정신을 같이 다루었다(아사다 1987). 또한 현재 이른바 ‘타블로이드적 취재방법’에 의한 맥레이킹 센세이셔널리즘은 일본에서는 남성용 뉴스 주간지나 사진지 쪽에서 두드러진다⁴.

⁴ ‘와이드 쇼’는 정치보도의 타블로이드화라는 문맥 속에서 일본의 사례로 자주 언급되어 왔다. 따라서 ‘와이드 쇼’ 현상은 자주 서구 타블로이드지와 나란히 논해지는데 사건은 ‘와이드 쇼’를 보는 시각 즉, ‘어리석은 아줌마가 보는 어리석은 프로그램’이라는 젠더화된 통속성의 감각은 서구 매스미디어에서는 오히려 ‘습 오페라(연속 멜로드라마); 와의 관련 뿐만 아니라 ‘습 오페라 연구’의 시점을 놓아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에 대해 서구의 타블로이드지 연구에서는 저널리즘의 취재방법(미디어 스크럼)이나 내용(여성의 상품화나 센세이션널리즘) 그리고 산업구조(미디어 집중화) 쪽에 비판적 분석이 축적되어 있으며, 그것은 오히려 일본 남성용 뉴스 주간지 분석 쪽에 유효한 시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일본 남성용 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드 쇼’는 주부의 오후 지루함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장 열시당하는 미디어이다. ‘와이드 쇼’적인 뉴스는 실제 매일 저녁 발생하는 셀러리맨이 많이 읽는 스포츠지에도 나오는데도 말이다.

‘와이드 쇼’는 미디어의 프로젝트 중에서도 가장 열시 받는 것은 ‘TV’를 통해 전해지는 자극이 강한 내용도 그렇지만 ‘집에 있으면서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정치적 관심이 없는 주부들이 보는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와이드 쇼’는 1960년대 ‘저녁이 되면 장바구니를 들고 지갑 속을 확인하면서 남편을 위해 또는 아이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려고 가까운 슈퍼에 가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중년의 여성’(아사다 1987: 22)을 시청자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구상한다. 이와 같은 ‘장바구니를 들고 장보러 가는 여성’은 큰 의미에서의 정치(또는 정국)에는 흥미가 없는 인간상이며, 이 시청자상이야말로 ‘와이드 쇼’의 내용을 대중기호와 소비기호로 응축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예를 들면 시바야마 데츠야는 고이즈미 정권의 미디어 폴리틱을 비판적으로 검증할 때 ‘와이드 쇼 내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거기에서 와이드 쇼를 본 여성들에 대한 학생들의 조사에 있어 ‘지금까지 수다에서 정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아줌마들이 도로재원이나 외교부를 화제로 삼게 되었다고 어머니가 이야기 했다’(시바야마 2004: 324)는 말을 인용하면서 고이즈미 정치를 비판하면서도 쇼비즈니스 방법에 가까운 ‘와이드 쇼 내각’을 정치 참가의 폭을 넓혔다는 의미에서 평가했다. 시바야마에게 있어 그리고 아마 많은 저널리스트나 저널리즘 연구자에게 있어서도 ‘와이드 쇼’는 우선 첫째 평일 오후 가정에 있을 수 있는 ‘정치를 모르는 아줌마’나 ‘어머니’가 보는 것이며, 그래서 프로그램의 ‘통속성’을 논한다. 제작자 측도 또한 그러한 탈정치화해 수다를 좋아하는 ‘아줌마’를 이미지로 삼으면서 ‘와이드 쇼’가 ‘와이드 쇼’답도록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대중적인(본래적인 의미의 ‘여성용’이 아닌) 내용을 재생산하고 있다.

이상의 세가지 예는 다른 면에서 보면 미디어의 발달사에 있어 즉 매스미디어 보급과 대중화의 과정에 있어 ‘여성’이라는 존재가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매스미디어는 산업으로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 ‘문자를 읽는 교양 있는 남성’ 이외의 ‘타자’를 끌어들여야 했다. 그 ‘타자’는 때로는 노동계급이거나 때로는 여성이었다. 그러나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이 미디어 산업내부에는 거의 부재하기 때문에⁵ 기업에 있어서는 오늘날까지 ‘사회의 약 반수를 차지하는 타자’이며 물건을 팔

주간지에 관해서는 일본에서는 비판적인 실증연구가 매우 드물다.

⁵ 일본의 신문사 여성기자 비율은 2005년 현재 12%. 1993년에는 불과 7.8%였다.(일본신문협회 홈페이지에서. <http://www.pressnet.or.jp/> 2006년 6월 22일 열람). 방송업계에서는 1993년부터 99년까지 6년간 민방, NHK에 일하는 여성의 비율은 13.4%에서 15.0%로 조금 증가했고, 2004년에는 15.4%에 머물렀다. 또한 부장급 이상 상위관리직은 0.4%→2.1%→3.9%로 증가하고 있지만 경영 남녀공동참여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일본여성방송자 간담회편 『방송우먼 2004』에서)

‘대상’ 이기 때문에 남성 측이 생각하는 한 ‘여성적인 내용’ 이라는 픽션을 계속 공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왔던 것이다.

4. 일본의 공공권에 있어 ‘한류드라마’ 의 위치

이제 이야기를 ‘한류드라마’로 돌리고자 한다. 지금 일본에서는 ‘한류 붐’ 의 영향으로 한국드라마 분야가 여성에게 인기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하나의 장르로 정착했으며 이 장르는 여성의 인기라는 언설에 재귀(在歸)적으로 정의되어 상업화 및 평준화 그리고 통속화의 압력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일까?

예를 들면 지금 ‘한류’ 가 가장 우세한 것은 새로운 인터넷 브로드밴드 시청분야이며 아래에 나타낸 것과 같이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일 예로 인터넷으로 시청이 가능한 동영상 사이트의 최근 랭킹의 흐름을 살펴보자.

(http://ranking.goo.ne.jp/ranking/030/bb_movierank 2006 년 11 월 4 일 열람)

표 1 goo 브로드밴드 네비 2006 년 월간 인기 프로그램 랭킹
(2 개월마다 web 랭킹, 필자작성)

순위	10 월	8 월	6 월	4 월
1	代세미나 TV 네트	代세미나 TV 네트	代세미나 TV 네트	대장금
2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대장금	쾌걸춘향
3	대장금	대장금	유리화	다모
4	달콤한 스파이	유랑 검심	쾌걸춘향	代세미나 TV 네트
5	불새	불새	북경 내사랑	1 %의 어떤 것
6	유랑 검심	울트라맨 메비우스 외전 히카리 사가	1 %의 어떤 것	그라비아·아리나
7	1 %의 어떤 것	1 %의 어떤 것	이르카만의 연인	파리의 연인
8	빅토리아 ~ 사랑과 복수의 태풍	북경 내사랑	두명의	러브홀릭
9	르팡 3 세 시리즈 1	달콤한 스파이	러브홀릭	공각기동대 S.A.C. 2nd GIG
10	블루메탈·패닉	기동전사 간담 SEED C.E.73-STARG AZER-STAGE-I	발리에서 생긴 일	발리에서 생긴 일
11	유리화	유리화	해신	PRISMIX.TV
12	러브홀릭	르팡 3 세 시리즈 1	파리의 연인	매직
13	쾌걸춘향	블루메탈·패닉	다모	이르카만의 연인
14	울트라맨 메비우스 외전 히카리 사가	러브홀릭	PRISMIX.TV	겨울연가
15	북경 내사랑	파리의 연인	피아노	게로로 군조
16	파리의 연인	아름다운 날들	기동전사 간담	강의 연금술사

			SEED DESTINY	
17	르팡 2 세 시리즈 2	쾌걸춘향	게로로 군조	천생연분
18	PRISMIX.TV	빅토리아 ~ 사랑 과 복수의 태풍	플레이볼 2	12 월의 열대야
19	TV 판 사쿠라 대전	쓰르라미가 울 때	러브레터	2 명의 아가씨
20	게로로 군조	발리에서 생긴일	노에인 이제 한 사람인 그대에게	복두권

는 한국드라마

또는 스트리밍 TV 사이트 'Gyao' 드라마 부분에서도 10 월 2 일부터 11 월 2 일 주간 인기 랭킹 10 위 중 10 위 '디자이너' (미국드라마) 이외에 9 위까지가 아래와 같이 한국 연애드라마 다시 말해 '한류드라마' 이었다.

(http://www.gyao.jp/ranking/?genre_name=ranking_rankGenre_drama

2006 년 11 월 4 일 열람)

1. 겨울연가
2.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3. 현정아 사랑해
4. 신귀공자
5. 태양 속으로
6. 아름다운 날들
7. 러브스토리
8. 파리의 연인
9. 지금은 연애중
10. 디자이너

는 한국드라마

한국에서는 방송 후 금방 인터넷으로 시청할 수 있는 한국드라마는 그 경험과 기술을 살려 현재 일본의 브로드밴드 시청시장을 석권하고 차례 차례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케이블 TV 와 디지털 위성방송에서도 한국드라마는 주력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으로 등장하고 있다.⁶ 이렇게 일본에서 시청가능한 한국드라마의 대부분은 새로운 미디어시장의 개척 수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여성층을 타겟으로 한 연애드라마가 중심이다. 디지털화에 따른 통신과 방송의 융합 및 다채널화라는 기술혁신으로 앞으로는 방송 콘텐츠를 필연적으로 늘려가야 하는데 그곳에 '한류' 인기를 잘 이용하고 있다. 이전에 신문독자를 늘리기 위해 신문 가정면을 만들어 인기가 있었던 것처럼 인터넷

⁶ 위성방송 채널, LalaTV 등 '여성용' 채널에서는 '한류' 가 하나의 상품이 되어있다.

브로드밴드 시청의 보급으로 한국의 ‘한류드라마’가 큰 역할을 하는 구조를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또는 인기를 끌 것 같은 한국산 연애드라마는 차례 차례 일본에 수입되어 인터넷이나 케이블 TV에서 방송되고 ‘한류’를 재생산한다. 인기 있는 콘텐츠를 호시탐탐 찾고 있는 방송사업자에게 ‘한류’는 소중한 수입원의 하나이다.

‘겨울연가’의 인기로 일본에는 새로운 ‘한국’이 탄생되었다는 사실은 다른 장소에서 논의되었다(하야시 2005: 134ff). 이 드라마로 인해 많은 여성이 눈물을 흘리고 한국에 경의를 표하며 일본을 반성했다. 동시에 여성팬들로 인해 탄생한 새로운 ‘한국’은 일본에 있었던 이전의 ‘어둡다’ ‘무섭다’라는 이미지와 다른 별도의 ‘아름답다’ ‘발전하고 있다’ ‘모던’이라는 단어로 수식되는 매우 긍정적이고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이 점은 ‘겨울연가’가 일본에 예전에 없었던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가져왔다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류’는 가정이라는 안락함과 편안함의 장소로 규정되는 공간에 존재하는 TV라는 미디어를 통해 일본에 침투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많은 시청자는 TV를 학교 교실의 연장선에서 이용하는 것에 저항을 나타낸다’(Ang 1996: 32)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확실해졌으며(Silverstone 1994), 일본에서도 TV에서 탄생한 새로운 ‘한국’의 표상은 일상생활이라는 통일성이 없고 모순되고 산만한 생활을 무대로 하는 미디어인 TV의 특성에 맞춘 형태로 증식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의 TV수상기를 통해 만들어진 공공권이라는 점을 영국의 미디어 학자 R. 실버스톤은 ‘교외화된 공공권’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 내용의 정치성과 혁신성의 한계를 논하고 있다(Silverstone 1994: 52ff). 일본에서도 ‘한류드라마’가 표상하는 ‘한국’이라는 기호는 TV를 통해 ‘교외화’된 공공권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일까?

전후 일본의 ‘한국’ 발 오락은 ‘한국’이라는 나라와 실제로 인연이 있는 사람들 - 대다수는 재일교포와 그 관계자들 등 - 한정된 사회그룹용이라고 이해되어 왔다. 한국에 관한 오락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전제로써 한국에 관한 구체적인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 동기부여가 되어야 했다. 그런데 여성이 한밤중에 조용하게 오락으로 즐기고 있는 한국드라마는 ‘한류드라마 붐’으로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전제를 무너뜨렸다. 이제 지금까지 재일교포라는 교포사회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한류드라마’에 열광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오늘날 표상되는 ‘한국’은 불특정하고 상호 연관성이 없는 익명의 오디언스를 향하고 있으며, 팬들 사이에서 인기를 획득하면서 차례 차례로 부침(浮沈)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한국과의 개인적인 관계나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하지 않는 추상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한류’와 ‘한국’은 완전하게 매스미디어의 기호세계로 참입한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일본에서의 ‘한국’이라는 것은 미디어에 의해 매개된 표상이 주류가 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N. 르만에 따르면 매스미디어의 기능은 우리들의 ‘인식의 지평’을 갱신하는 것이다. 즉, ‘한국’은

매스미디어에 의해 계속 자극되기 쉬운 기억으로 사회의 의식 표층으로 불러 낼 수 있는 것으로 대기하는 ‘표상’의 예비군으로 참입해 왔다. 지금은 ‘한국’은 정치, 경제, 드라마, 스포츠, 교육, 예술 등 여러 테마로 접속하기 쉬운 추상도가 높은 동시대성(액츄얼리티)을 가진 심볼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르만적인 해석을 하면 ‘한국’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은 정치는 물론 만화나 포르노, 록, 뮤직에서 예술까지 모든 테마로 접속하면서 ‘정보’가 되어 소비되고, 소비된 후 또 다음의 미지의 ‘한국’을 찾아 커뮤니케이션을 찾기 시작한다. 앞으로 탄생될 것이 예상되는 ‘미지의 한국’의 표상은 매스미디어가 얘기하는 ‘한국’을 기준으로 그곳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범위에서의 ‘한국’이 대세를 점할 것이다⁷.

이 상황은 봄 이전의 ‘한국’이라는 것이 친밀권에 머물러 공공권에서 은폐되고 가시화 되지 않았던 상황보다는 ‘좋은’ 상황일지도 모른다. 단지 매스미디어는 근대의 성장과정을 통해 근대화가 함의하는 논리나 가치체계를 내재시켜 더욱 소비사회와의 연계를 훌륭하게 달성시켜 왔다. 근대와 소비의 가치체계를 미디어는 여러 심볼을 통해 우리들의 생활과 꿰을 수 없게 반포시켜 온 것은 틀림이 없다. 이 점은 다음 시대의 연설의 재생산에 있어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⁷ 단 여기에서 지금까지의 매스미디어 표상과의 관계는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만은 아니라고 하는 점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논의되어 온 ‘혐한’ 붐도 종래의 매스미디어의 연설과의 거리를 두는 것을 테마로 하는 점에 주의하고자 (하야시 2005: 153ff). 우리들은 윤사마의 사진과 뉴스, 새로운 한류드라마 시리즈 그리고 한국인 배우의 CF와 동시 병행하여 ‘한국’이라는 기회를 둘러싼 반동적인 뉴스나 연설도 예전과 다르게 자주 보이게 되었다. 이 흐름 속에서 일부 정치가나 지식인들은 이제 혐한 자세를 터부시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도 또한 ‘겨울연가’ 붐의 하나의 귀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시화된 ‘한국’이라는 기호는 반동적인 의견이나 사상으로 쉽게 연결되어 간다. 그러나 이 상태는 예전 자유주의가 이상으로 한 자유로운 개인에 의한 자유로운 의견의 개진에 그거한 ‘百家争鳴’ 상태와는 다르다. 이것은 오히려 매스미디어 시스템에 의해 선호된 ‘한국’ 연설의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는 ‘한국’이 완전히 기호화 되어 간다. 지금 인터넷 언론공간에서는 작가 야마미야 야카린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격상대가 피가 통하는 존재라는 사실조차 빠져있다. ‘한국 북한을 순수한 기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잔혹하고 차가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세지모 2006: 46)

문헌 리스트

- Ang, Ien (1996) *Living Room Wars. Rethinking Media Audiences for a Postmodern World*. Routledge.
- Ang, Ien(1985) *Watching Dallas: Soap Opera and the Melodramatic Imagination*. Methuen.
- 浅田孝彦 (1987) 『와이드 쇼의 원점』 新泉社.
- Felski, Rita (1995) *The Gender of Modernity*. Harvard Univ. Press.
- 林香里(2005) 『「겨울연가」에 빠진 우리들』 文春新書.
- 김상미 (2004) 「일본의 『겨울연가』 시청과 효용 — 한국에 대한 · 관심 · 평가상승을 중심으로」 2004년 11월 4일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주최 서울대학교 · 동경대학교 합동 심포지엄 · 프리젠테이션
- 林香里 (2002) 『매스미디어의 종언, 저널리즘의 핵심』 新曜社
- 飯田祐子 (1998) 『그들의 이야기』 나고야대학교 출판회
- 岩渕功一 (2001) 『아시아를 잇는 대중문화』 岩波書店.
- 岩井志麻子 (2005) 「현실세계가 행복하니까 안심하고 유행을 쫓을 수 있다」 —나의 「겨울연가」론 『주간 아사히』 2005년 1월 7일/14일 호, 38-39 항.
- 金子明雄 (1997) 「「가정소설」을 읽는 제국—『내가 죄』라는 문제영역」 『미디어 · 표상 · 이데올로기—1897년대 문화연구』 小沢書店, 131-157 항.
- 金子明雄、杉山光信、大畑祐嗣、吉見俊哉 (1990) 「근대일본의 유토피아 운동과 저널리즘」 『동경대학교 신문연구소 기요』 제 41 호
- 瀬下美和 (2006) 「금요문화 『만화협한류』」
『주간금요일』 2006년 6월 23일 호, 45-47 항
- 이은정 (2005) Korea as a world-class culture centre in Asia? Korean Discourses on Korean Wave in Japa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IAMCR Conference in Taipei, July 2005.
- Luhmann, Niklas(1996) *Realität der Massenmedien*. Westdeutscher Verlag. (일본어 번역 『매스미디어의 리얼리티』 林香里번역, 木鐸社, 2005년)
- Luhmann, Niklas (1982) *Liebe als Passion*. Suhrkamp.(일본어 번역 『정열로서의 사랑』 佐藤勉 · 村中知子 번역, 木鐸社, 2005년)
- 前田愛 (1973) 『근대독자의 성립』 有精堂.
- 宮地尚子 (2005) 「지배로서의 DV」 『현대사상』 2005년 9월(vol.33-10), 121-133 항
- Modleski, Tania (1979) The Search for Tomorrow in Today's Soap Opera. In: *Film Quarterly*, 33/1:12-21.
- 小倉紀蔵(2005) 「〈순수한 것〉로의 회귀원망」 『논좌』 2005년 11월호
- Radway, Janice (1991) *Reading the Romance. Women, Patriarchy, and Popular*

Literature. (With a New Introduction by the Author) The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柴山哲也 (2004) 「일본형 「공공권」 과 「와이드 쇼 내각」 —일본의 텔레비전 저널리즘」 『일본의 저널리즘이란 무엇인가 - 정보혁명 하에서 표류하는 제 4의 권력』 미네르바 서방, 317-333 항

Silverstone, Roger (1994) *Television and Everyday Life*. Routledge.

인터넷 자료

2005 년 정보통신백서 (2006 년 6 월 12 일 열람)

<http://www.johotsusintokei.soumu.go.jp/whitepaper/ja/h17/index.html>

일본신문협회 조사 : 「각국별 일간지 발행부사, 성인인구 1,000 명당 부서, 발행지수」 「신문·통신사 직원수와 기자수의 추이」 (2006 년 6 월 22 일 열람) <http://www.pressnet.or.jp/>

제 3 주제
第3テーマ

한일문화산업 교류와 전망

日韓文化産業の交流と展望

● 송병준

ソン・ビョンジュン

그룹 에이트 대표

グループエイト代表

● 노자키 무네토시

野崎宗利

후지TV 국제국 부부장

フジテレビ国際局副部長

발 표 I
発 表 I

한국드라마가 일본에서 경쟁력을 얻기 위한
한국 방송산업 구조적 개선안
韓国ドラマが日本で競争力を得るための
韓国放送産業の構造的な改善案

◎ 송병준

ソン・ビョンジュン

그룹 에이트 대표

グループエイト代表

CREATIVE LEADERS GROUP EIGHT

한국 드라마가 일본에서 경쟁력을 얻기 위한
한국 방송산업의 구조적 개선안

B. J. Song
President/CEO

C ontents

1. Group 8
2. 한국방송시장
3. 일본 성공의 요건
4. 방송사의 유통 독점에 따른 문제점
5.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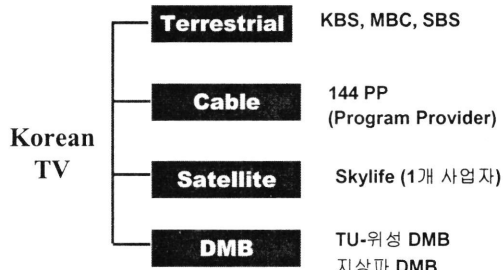
By Group Eight 2

Group E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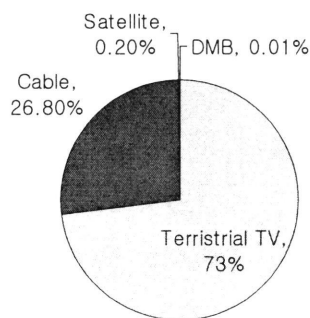


- | | |
|-----------|--|
| 2002. 3. | SBS〈明朗少女成功記〉
最高視聴率44.6%、「チャン・ナラ」ジンドロームを引き起こした2002年上半期最高のヒット作 |
| 2002. 10. | MBC〈三銃士〉 |
| 2003. 7. | MBC〈お向かいの女〉
不倫という重い素材をコミカルに展開して高視聴率(25%)と社会的な関心を集めた話題作 |
| 2003. 7. | KBS〈ボディーガード〉
最高視聴率36.9%で週間視聴率1位の週末ドラマ
ムービースター チャ・スンウォンのTVカムバック作、CFSター イム・ウンギョンのTVデビュー作として話題 |
| 2004. 1. | MBC〈天生緣分〜ベストカップル〉
年上の女性と年下の男性の新鮮で現実的なストーリーで、SBS「天国の階段」と視聴率を争う |
| 2004. 6. | SBS〈島村の先生〉 |
| 2004. 8. | SBS特別企画〈マジック〉 |
| 2004. 11. | KBSミニシリーズ〈ごめん、愛してる〉
50万ミサマニアを動員し、男性の主人公ソ・ジブをトップ俳優に引っ張り上げた力作、
2005百想芸術大賞「最優秀作品賞」受賞 |
| 2005. 11. | KBSミニシリーズ〈このろくでなしの愛〉 |
| 2006. 1. | MBCミニシリーズ〈宮〉
韓国が立憲君主国という面白い設定で展開するフュージョン仮想歴史作品
韓国的な文化コンテンツとして脚光を浴びる。2006年上半期大ヒット作(30%)。最初の3ヶ月クル制決定 |
| 2006. 10. | MBC〈幻想のカップル〉 |

한국 방송시장



(2005년 광고매출 기준)



2-2

외주 제작사 프로그램 현황

전체 지상파 프로그램의
40% 가량이 외주제작

드라마의 경우
70% 가까이 외주제작

최고 인기 드라마는 대부분
외주제작 프로그램

국내 방송산업 시장 규모는
8조 6352억원
(2004년 대비 11% 상승)

By Group Eight 5

2-3

열악한 외주제작 환경

Korean TV Production Enviro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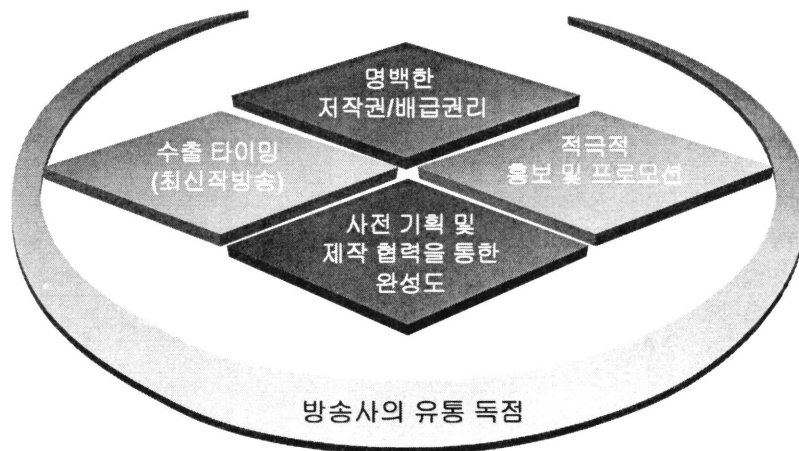
- 기본적인 프로그램 저작권은 방송사 소유
- 해외 판매권 방송사 독점 (일부 수익 지분 공유)
- 부가 사업도 방송사에서 진행
- 방송사는 전체 제작비의 30~70% 지급
(광고비 방송사 독점)

대박이 터져도
시청률에 상관없이
고정된 제작비로
(추가 이익없음),
제작사는 잘하면 even,
대부분 적자 보는 경우가 일반적

By Group Eight 6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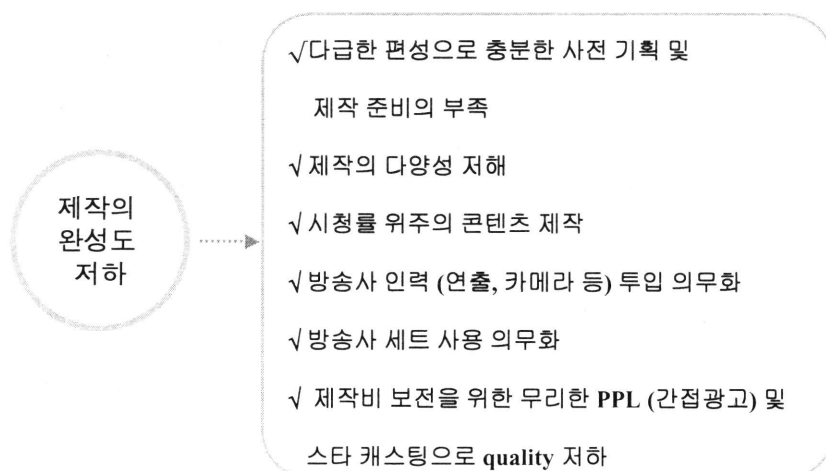
일본에서 경쟁력을 얻기 위한 조건



By Group Eight 7

4

방송사의 유통 독점에 따른 문제점



By Group Eight 8

4

방송사의 유통 독점에 따른 문제점

판권
독점으로
인한
문제

- √ 제작사의 수익구조 악화
(높은 캐스팅 비용, 대부분 다음 편성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드라마를 끝까지 촬영하는 사태 발생)
- √ 끼워팔기 및 방송사 간 매출 경쟁으로
무리한 해외 판매 거래가 형성 → 한류지속화에 악영향
- √ 부가 사업권은 방송사가, 관련 자료는 제작사가
소유함으로 진행 가능한 사업의 사장

By Group Eight 9

4

방송사의 유통 독점에 따른 문제점

철저한
사후 관리의
어려움

- √ 방송사의 경우 양질의 M/E 작업에 투자 하지 않음.
- √ 제작사에서 M/E 진행 시, 제작 단계에서
동시에 진행하여 불필요한 작업을 최소화하고,
풍부한 제작소스를 통해, 완벽한 ME와
양질의 수출 material 제공 가능

By Group Eight 10

4

방송사의 유통 독점에 따른 문제점

홍보의
일관성 유지
어려움

- √ 제작사의 경우, 제작 단계에서
각종 홍보 material 수시 제공 가능
- √ 직접 출연 배우를 동반한
현지 프로모션 투어 가능
- √ 기획단계부터 해외 마케팅 시작 가능함으로
신속한 딜 유도
- √ 적극적인 프로모션과 홍보 마케팅이
중요(MG이외의 추가수익과 직결)함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사후 프로모션 지원 미미

By Group Eight 11

4

방송사의 유통 독점에 따른 문제점

사전투자 및
공동제작의
구조적
어려움

- √ 일본의 사전 투자 및 공동제작 유치 시,
조건은 일본 판권.
- √ 이로 인해 해외 투자가 힘들고
글로벌 프로젝트 진행 불가

By Group Eight 12

5

개선 방향

개선
방향

→ 공정한 유통 권리 확보

정당한 저작권 확보하여, 드라마 제작·투자·배급이 모두 한 선에서 이루어
지도록 유통 구조 확립

→ 시청률에 따른 연동 보상 계약

→ 해외 판권 확보

판매와 프로모션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제작사와 해외 바이어가 win-win할
수 있는 구조 확립

→ Cable/IPTV 등 새로운 뉴미디어 플랫폼 개척

By Group Eight 13

Thank You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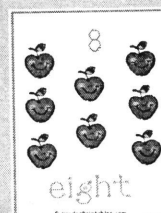
CREATIVE LEADERS GROUP EIGHT

韓国ドラマが日本で競争力を得るための韓国放送産業の構造的な改善案

B. J. Song
President/CEO

C ontents

1. Group 8
2. 韓国放送市場の概要
3. 外注製作社のプログラム現況
4. 厳しい放送コンテンツの製作環境
5. 放送局の流通の独占に伴う問題
6. 改善方向



By Group Eight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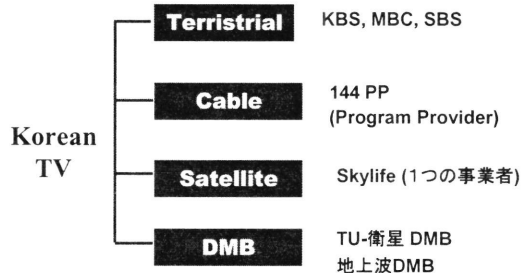
Group E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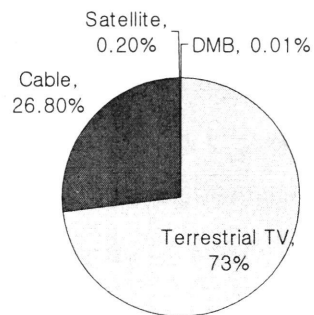
- 2002. 3. SBS <明朗少女成功記>
最高視聴率44.6%、「チャン・ナラ」シンドロームを引き起こした2002年上半年最高のヒット作
- 2002. 10. MBC <三銃士>
- 2003. 7. MBC <お向かいの女>
不倫という重い素材をコミカルに展開して高視聴率(25%)と社会的な関心を集めた話題作
- 2003. 7. KBS <ボディーガード>
最高視聴率36.9%で週間視聴率1位の週末ドラマ
ムービースター チャ・スンウォンのTVカムバック作、CFスター イム・ウンギョンのTVデビュー作として話題
- 2004. 1. MBC <天生缘分〜ベストカップル〜>
年上の女性と年下の男性の新鮮で現実的なストーリーで、SBS「天国の階段」と視聴率を争う
- 2004. 6. SBS <島村の先生>
- 2004. 8. SBS特別企画 <マジック>
- 2004. 11. KBSミニシリーズ <ごめん、愛してる>
50万ミサマニアを動員し、男性の主人公ソ・ジソプをトップ俳優に引っ張り上げた力作、
2005百想芸術大賞「最優秀作品賞」受賞
- 2005. 11. KBSミニシリーズ <このろくでなしの愛>
- 2006. 1. MBCミニシリーズ <宮>
韓国が立憲君主国という面白い設定で展開するフュージョン仮想歴史作品
韓国的な文化コンテンツとして脚光を浴びる。2006年上半年大ヒット作(30%)。最初の3ヶ月
クール制決定
- 2006. 10. MBC <幻想のカップル>

2-1

韓国放送市場の概要



韓国放送占有率
(2005年広告売り上げ基準)



2-2

外注製作社のプログラム現況

全体地上波プログラムの40%程が
外注による製作

ドラマの場合
70% 近くが外注による製作

最高人気ドラマは殆どは
外注製作によるプログラム

韓国内放送産業市場の
規模は 8兆 6352億ウォン
(2004年対比11%上昇)

By Group Eight 5

2-3

厳しい放送コンテンツ製作環境

Korean TV Production Enviro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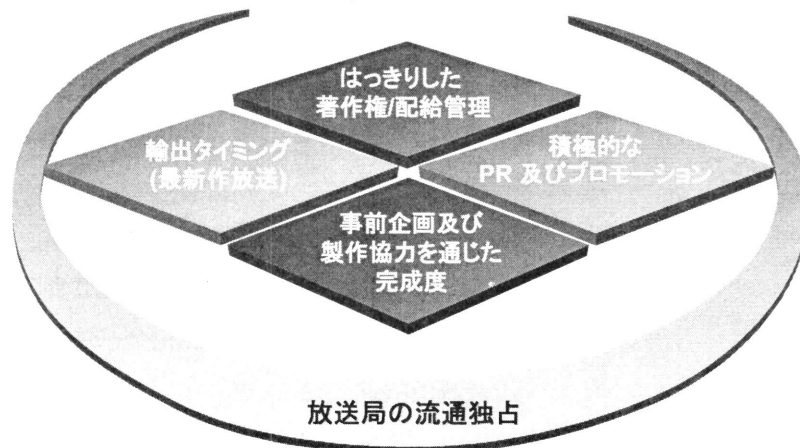
- 基本的プログラムの著作権は放送局が持つ
- 海外販売権の放送局独占(一部収益の持分の共有)
- 付加ビジネスも放送局で進行
- 放送局は全体の製作費の 30~70% 支給
(広告費の放送局独占)

大いにうけても視聴率とは
関係なく、決まった製作費で
(追加の利益なし)、
製作社はうまくいけばeven、
ほとんど赤字を出すのが
一般的である

By Group Eight 6

3

日本で競争力を得るための条件



By Group Eight 7

4

放送局の流通の独占による問題

製作の
完成度の低下

- √ 慌しい編成で十分な事前企画及び製作準備の不足
- √ 製作の多様性の阻害
- √ 視聴率優先のコンテンツの制作
- √ 放送局の人力(演出、カメラなど)投入の義務化
- √ 放送局セット使用の義務化
- √ 製作費の調達のための無理なPPL (間接広告) 及び
スターキャスティングによる quality 低下

By Group Eight 8

4

放送局の流通の独占による問題

著作権の
独占による
問題

- √ 製作社の収益構造の悪化
(高いキャスティング費用、ほとんどが次の編成のために赤字を甘受しながらドラマを最後まで撮影する事態が発生)
- √ 抱き合わせ販売及び売り上げ競争による無理な海外販売取り引きが形成 → 韓流持続に悪影響
- √ 付加ビジネスは放送局が、関連資料は製作社が持つて進められる市場の死蔵

By Group Eight 9

4

放送局の流通の独占による問題

難しい徹底した
事後管理

- √ 放送局の場合良質なM/E作業には投資しない
- √ 製作社でM/Eを進行する時、製作段階で同時に進行することで要らない作業を最小化し、豊かな製作ソースを通じて、完璧なMEと良質の輸出 material の提供が可能

By Group Eight 10

4

放送局の流通の独占による問題

難しいPRの
一貫性の維持

- √ 製作社の場合、製作段階で各種のPRmaterialを随時に提供可能
- √ 直接出演した俳優を同伴した現地のプロモーションツアー可能
- √ 企画段階から海外マーケティングの開始が可能なことによる迅速なディーラー誘導
- √ 積極的なプロモーションとPRマーケティングが重要(MGの他の追加利益と直結)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放送局は事後のプロモーション支援が微々たる

By Group Eight 11

5

放送局の流通の独占による問題

事前投資及び
共同製作の
構造的な問題

- √ 日本の事前投資及び共同製作を誘致する時、
条件は日本の版權
- √ これによって海外の投資が厳しくなり、
グローバルプロジェクトの進行が不可能

By Group Eight 12

6

改善方向

改善
方向

公正な流通権利の確保

正当な著作権を確保して、ドラマ製作、投資、配給がすべて一つのラインで行われることができるよう流通の構造の確立

視聴率による連動保障契約

海外の版権の確保

販売とプロモーションが同時にできることで製作社と海外のバイヤーがwin-winできる構造の確立

Cable/IPTV などニューメディアのプラットフォーム開拓

By Group Eight 13

Thank You !



발 표 Ⅱ
発 表 Ⅱ

한국드라마의 일본진출과
일본드라마의 한국진출 현황과 미래
韓国ドラマの日本進出と日本ドラマの
韓国進出の現況と未来

◎ 노자키 무네토시 후지TV 국제국 부부장
野崎宗利 フジテレビ国際局副部長